



2019년 하반기 공통교양 <글쓰기> 보고서 및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목 차

I . 보고서 부문	3
1. [총장상] 미세먼지 (PM _{2.5} , PM ₁₀) 오염도의 추이와 국민 인식 간의 간극 생성 및 평창의 이유 분석 - 박찬영	4
2. [교무부총장상] 강의 저작물 매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 박소연	37
3. [교무처장상] 헌법재판소 정당성 논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신규섭 ...	57
4. [교양교육원장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지성(知性)을 중심으로 바라본 고려대학교 SW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정경민	69
5. [교양교육원장상] “쌈 타다”라는 신조어 분석과 “쌈” 문화 유행의 원인 고찰 - 한동엽	81
II . 에세이 부문	96
1. [교무부총장상] 여행, 나에게서 엄마의 삶으로 - 백승주	97
2. [교무처장상] 다시 돌아온다는 것 - 김보민	99
3. [교양교육원장상] 소라게 껍데기 찻듯 - 박찬영	101
4. [교양교육원장상] 파도 위에 떠 있다는 것 - 배석준	104
5. [교양교육원장상] 천사의 무릎 - 임성준	106



I. 보고서 부문

[보고서 부문: 총장상]

미세먼지(PM_{2.5}, PM₁₀) 오염도의 추이와 국민 인식 간의 간극 생성 및 팽창의 이유 분석

박찬영(경영학과)

<목 차>

1. 서론	6
2.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염의 실태	
2.1 정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2.2 시간 경과에 따른 오염도 변화	
2.2.1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8
2.2.2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 변화 추이	9
2.2.3 가시거리 20km 이상 일수 변화 추이	11
3. 시간 경과에 따른 대중의 오염도 인식 변화	
3.1 인터넷 검색 빈도 분석	12
3.2 관련 시장 변화 분석	
3.2.1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련주 동향	13
3.2.2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산업의 팽창	16
3.3 설문을 통한 분석	



3.3.1 설문 방식과 질문 유형	17
3.3.2 설문 결과 분석	18
4. 인식 간극의 생성 및 팽창 요인 분석	
4.1 언론의 역할	20
4.2 스마트폰 사용률의 증가	22
4.3 통계의 한계	
4.3.1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인식의 왜곡	23
4.3.2 측정 방식과 통계 오류의 가능성	24
5. 결론	25
6. 참고 문헌	27
7. 부록	32

1. 서론

환경부가 2018년 10월 (주)케이티엠엠과 진행한 미세먼지 국민인식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전국 성인 남녀의 91%가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다 응답했으며, 83.2%가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의 위협을 느낀다 답했을 정도로 근래 미세먼지 오염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올라 있다(이선미, 2018). 이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체감 오염도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홍제우·홍진규·김정환, 2019), 간헐적이지만 언론에서는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 인식과 실제 오염도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의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의 김보영 기자는 2018년 11월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며 미세먼지의 오염이 최근 10년간 개선되어 왔다고 주장했으며(김보영, 2018), 동아사이언스의 조승한 기자 또한 2019년 2월경 “미세먼지, 20여년간 감소 추세… 인식 격차 줄여야”라는 제목으로 실제 오염과 국민의 인식 간 간극이 확장되고 있을 가능성을 추측했다(조승한, 2019). 한편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본인의 칼럼에서 공무원, 학자, 언론인 등의 전문가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장재연, 2018).

인식의 간극은 실재하는가? 만약 실재한다면 그를 일으키는 요인은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염려를 야기해 대기질 개선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과 통계치 간의 괴리의 존재를 검증하는 것이 첫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간극의 발생 요인을 찾아내 이해하고 배제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언론은 미세먼지 위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미세먼지 위험보도 프레임과 정보원 분석>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이 언론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확산되는지에 대해 연구되었다 (김영옥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했다는 주장을 통계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검증하고, 체감 오염도의 증감 여부를 1, 2차 조사를 통해 재확인할 것이다. 이후 만약 인식의 간극이 실재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 앞선 연구에서 주장된 언론의 역할을 다시 분석하여, 미세먼지 오염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 형성에 기여한 요인을 제안하려 한다.

2.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염의 실태

2.1 정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_{10} 과 $PM_{2.5}$ 로 분류된다. 이때 PM은 입자상 물질 (Particulate Matter)의 약자로, 때로 입자상 오염물질 (Particulate Pollutant)이라고도 불린다. PM_{10} 은 이 오염물질 중 직경이 $10\mu m$ 이하인 먼지이고 $PM_{2.5}$ 는 직경이 $2.5\mu m$ 이하인 것으로(〈미세먼지 브로셔〉, 2013), 후자는 언론에 의해 ‘초미세먼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PM_{10} 은 주로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어 1차 입자로 분류되며, $PM_{2.5}$ 는 자동차나 공장이 배출한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염 등의 1차 입자가 대기에서 열이나 빛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생성한 2차 입자로 분류된다(〈입자상물질〉, 2019).

PM_{10} 과 $PM_{2.5}$ 모두 안구와 접촉 시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각막염을 발병시키며, 이 중 $PM_{2.5}$ 는 호흡 시 기관지를 따라 이동하여 폐포에 흡착된 후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연세대학교의 2006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PM_{10} 의 농도가 $120\sim 200\mu m/m^2$ 일 경우 만성 천식 유병률이 10% 증가하며, $PM_{2.5}$ 의 농도가 $36\sim 50\mu m/m^2$ 일 경우 급성 폐 질환 유병률이 10% 증가한다고 한다(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2006).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단시간의 흡입보다는 장기적인 노출이 발병으로 연결되지만, 노약자와 어린이가 받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해오고 있다(〈미세먼지 브로셔〉, 2019).

2.2 시간 경과에 따른 오염도 변화

2.2.1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PM₁₀의 경우 1995년부터 환경부 차원에서 도시 대기측정망을 통해 전국 단위의 자료를 수집했으나 PM_{2.5}는 공식 자료의 수집이 2015년부터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2006년부터 측정해온 서울시의 자료를 제외하면 변화 추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PM₁₀의 농도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2**는 PM_{2.5}. 또한 비교적 짧은 측정 기간임에도 약 10년간 커다란 변화 폭 없이 유지, 혹은 감소되는 동향을 나타내고 있어 연평균 자료만 놓고 보았을 때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연평균 농도만으로는 해석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나 일수 등 미세먼지 오염의 심각성 판단에 있을 다른 측면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감소했다는 확정적인 결론을 짓기에 다소 부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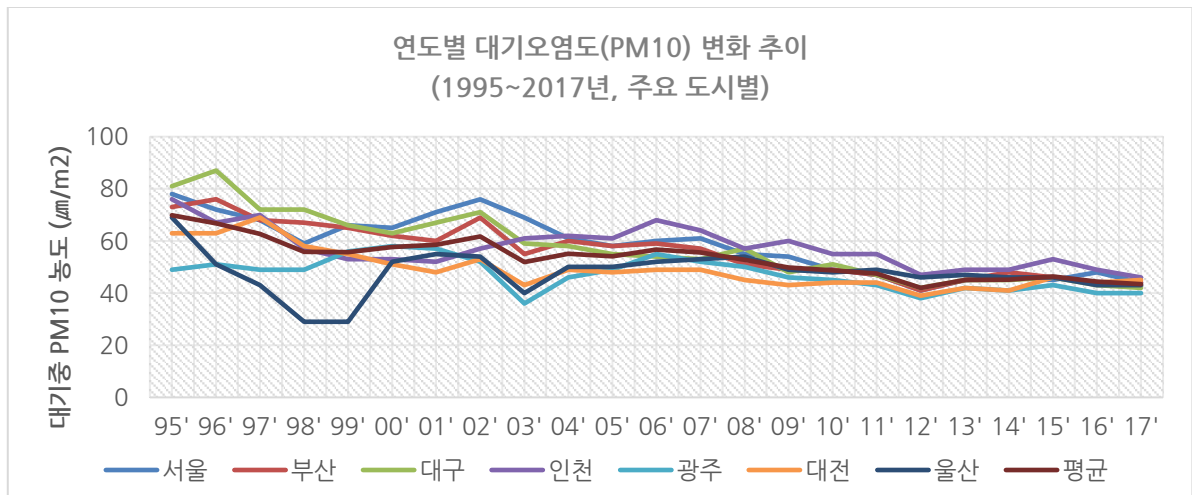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대기오염도(PM₁₀) 변화 추이 (이상보,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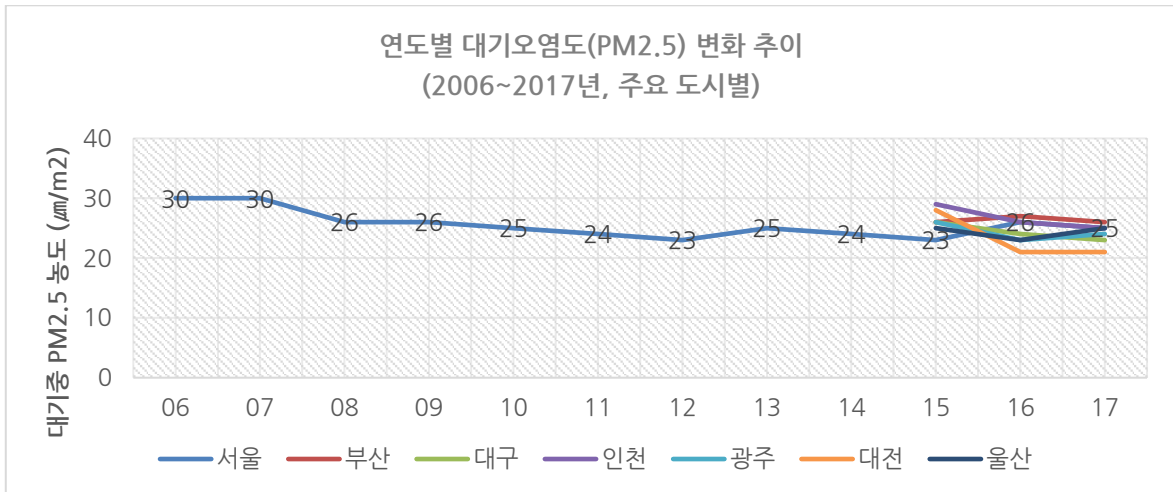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대기오염도(PM_{2.5}) 변화 추이
(이상보, 2018; 《2016년 서울 대기질 평가 보고서》, 2017)¹

2.2.2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 변화 추이

평균 농도와는 별개로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가 높아져왔다면 대중의 체감 오염도 또한 크게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표 1에 따르면 전국 PM_{2.5} 나쁨 일수는 2015년 측정을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대기환경연보 2017》에서 주요 도시로 꼽힌 도시들 중 유일하게 2015년에 비해 나쁨 일수가 증가한 서울조차도 2016년을 기준으로 정했을 시 19%의 감소를 보이며 큰 폭으로 변동하나 여전히 하향세를 띠고 있다. 2015년에 인천, 대전 등 몇몇 도시에서는 기록적으로 높은 오염 빈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서울의 나쁨 일수가 그 해 유독 낮았던 것은 이후 오염이 심해진 것이 아니라 2015년 서울의 대기 현상이 이례적으로 좋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PM _{2.5} 나쁨 일수 (35 μ g/m ³ 초과)	2015	2016	2017	2018
전국	62	62	60	59
서울	44	73	64	61

¹ ‘주요 도시’는 《대기환경연보 2017》의 연도별 대기오염도 변화 추이 부분의 표현을 인용했다

부산	67	71	62	60
대구	76	58	71	73
인천	99	77	65	49
광주	72	51	65	65
대전	105	40	32	43
울산	76	58	71	73

표 1. 연도별 PM_{2.5} 나뭇 일수 (<미세먼지 현황>, 2019)

실제로 서울시가 2008년부터 10년간 집계한 연도별 미세먼지 나뭇 일수(그림 3)에 따르면 PM_{2.5}로 인한 나뭇 일수는 2015년에만 유독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10년간의 추세를 보았을 때는 확실한 증가세 혹은 감소세 없이 기록된 수치의 평균인 60.3일의 주변으로 진동하고 있기에 PM_{2.5} 오염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긴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 PM₁₀의 나뭇 일수는 연도별 평균 농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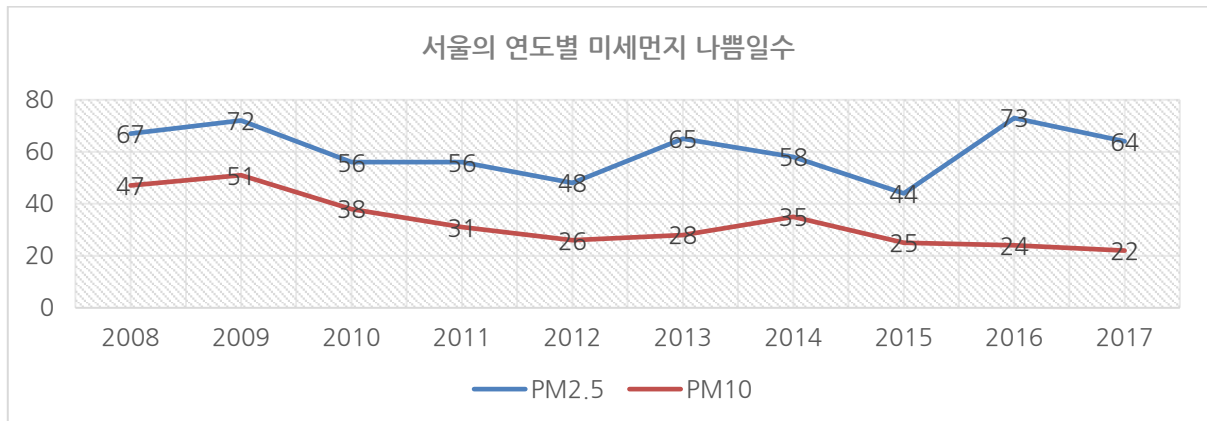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연도별 미세먼지 나뭇일수 (정권 외, 2018)

2.2.3 가시거리 20km 이상 일수 변화 추이

가시거리, 혹은 시정(視程)은 정상적인 시력으로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의미한다(〈미세먼지 팩트 체크: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9).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PM_{2.5}의 농도가 상승할 시 대기 중 미세먼지 입자에 의해 빛이 산란(散亂), 흡수되어 가시거리가 감소하며, 미세먼지가 다른 기체 상태의 오염물질보다 시정 감소에 평균적으로 9~10배 높은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홍유덕·신혜정, 2015). 따라서 가시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가 직접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체감 오염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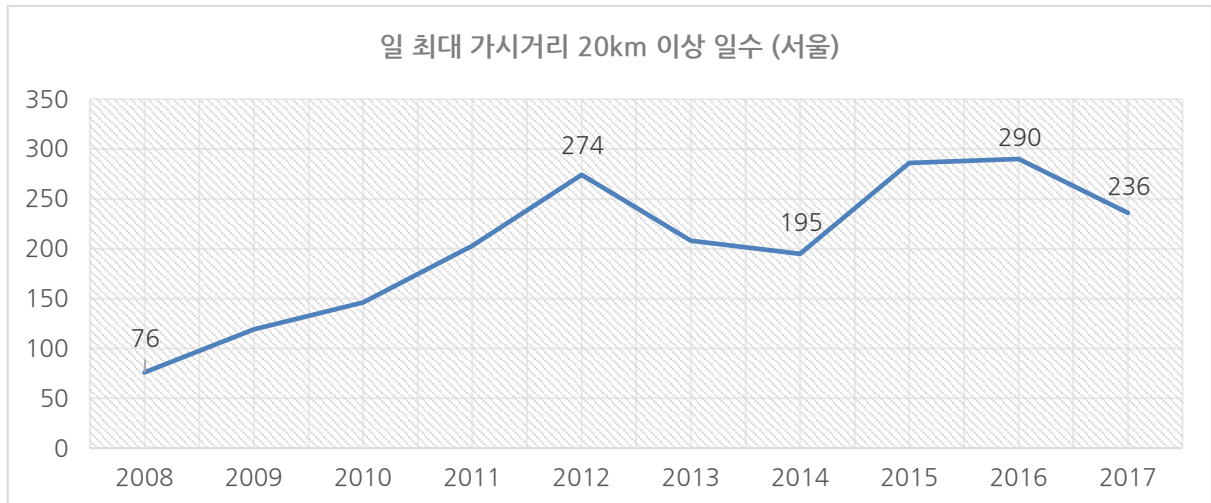


그림 4. 일 최대 가시거리 20km 이상 일수 (《2017년 서울 대기질 평가 보고서》, 2018)

그림 4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일 최대 가시거리가 ‘가시거리 좋음’의 기준인 20km 이상으로 나타난 날의 횟수를 2008년부터 서울시가 집계한 것이다. 시정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2016년 290일로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8년 76일의 4배 이상을, 또 1년 365일 기준으로 약 5/6의 비율을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에 비해 2017년의 ‘가시거리 좋음’ 일수가 일부 감소했기에, 최근 들어 미세먼지 오염이 악화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7년 이후 시정 측정 자료가 필요하다 사료된다².

² 본 연구가 작성되는 시점에는 아직 2018년의 가시거리 측정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다.

3. 시간 경과에 따른 대중의 오염도 인식 변화

3.1 인터넷 검색 빈도 분석

구글 트렌드의 검색 빈도 변화 추이는 선별된 키워드에 대해 가장 검색이 많았던 시점에 100을 할당하며 검색 빈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려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아래 그림들은 각각 키워드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설정했을 때 구글 트렌드의 결과로, 연구가 작성되는 시점인 2019년 10월 7일 스크린샷 된 것이다.

두 키워드에 대한 검색 빈도는 이전까지 미미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3년 3분기를 기준으로 조금씩 증가하며, 미세먼지가 통상적으로 심해지는 봄 무렵에 높아졌다가 이후 낮아지는 것을 반복한다. 이런 변동 와중에 검색 빈도 최고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되며 2019년 3월에 공통적으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 체감 오염도와 관심의 직접적인 연결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 빈도 자료의 해석만을 통해 2010년대 이르러 체감 오염도가 점점 증가해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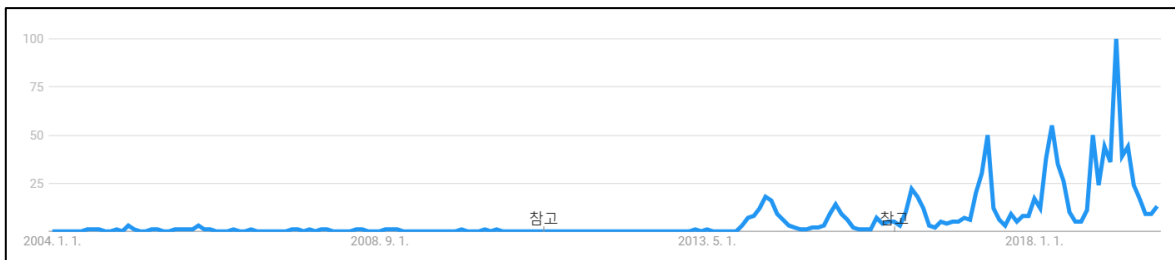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에서 ‘미세먼지’의 상대적 검색 빈도 변화 추이 (<미세먼지>, 2019)



그림 6. 한국에서 ‘초미세먼지’의 상대적 검색 빈도 변화 추이 (<초미세먼지>, 2019)

3.2 관련 시장 변화 분석

3.2.1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련주 동향

주식시장은 뉴스 한 편이나 발언 한 마디에도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각종 사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세먼지 또한 몇 년 전부터 주식시장에 변수로 등장하며 이른바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종목들의 주가 변동을 분석한다면 *3.1 인터넷 검색 빈도 분석*과는 다른 측면에서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관심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의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 매체에서(김영준·김재윤, 2019; 윤주호·이창석, 2019; 이정기·안주원·이정원, 2019; 김현정, 2019; 이정은, 2019) 언급되는 미세먼지 관련주는 총 일곱 업체의 것으로, 이에는 모나리자(012690), 위닉스(044340), 오공(045060), 크린앤사이언스(045520), 웰크론(065950), 케이엠(083550), 그리고 나노(187790)가 포함된다.³ 그림 7은 미세먼지 관련주 일곱 종목의 가격 변동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월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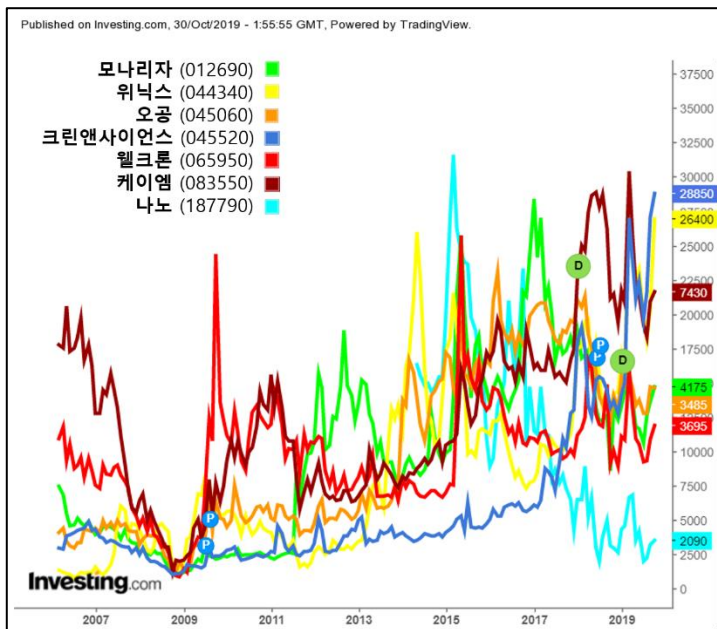


그림 7. 미세먼지 관련주 주가 추세 (<라이브 주식 차트>, 2019)

³ (주)모나리자, (주)오공, (주)웰크론과 (주)케이엠은 방진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며, (주)위닉스는 공기청정기를, (주)크린앤사이언스와 (주)나노는 각각 여과지와 여과지 제작용 촉매를 생산한다.

미세먼지 관련주 중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는 (주)크린앤사이언스와 (주)케이엠, (주)위닉스 등의 경우 변동폭을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흐름과 함께 큰 비율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국내 자동차용 여과지 시장의 44%를 차지하며 동시에 산업용 여과지 시장에서 국산화를 이끌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에(이한옥, 2019)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고객들의 민감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 할 수 있는 (주)크린앤사이언스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한편 (주)모나리자, (주)오공, (주)웰크론 등 방진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내지 못했고, (주)크린앤사이언스의 주 고객층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자료는 국민의 인식 변화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 또한 (주)케이엠은 크린룸 설계를 위한 오염제거기술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가의 성장은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종목 각각의 움직임이 아닌 미세먼지 관련주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주가 평균치가 계산되었다. 가장 최근까지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10월 종가(終價)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나노(187790)의 경우 2014년 5월 기업 공개가 이루어져 같은 해 10월부터 계산에 포함되었다. 아래 표 2는 미세먼지 관련주의 주가 평균과 코스닥⁴, 그리고 각각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2011년 코스닥의 하락은 미세먼지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쳐 하락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2012년을 거쳐 2013년 미세먼지 관련주 주가 평균은 코스닥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상회하며 3.1 인터넷 검색 빈도 분석에서 나타난 국민의 관심 증가가 주식시장까지 연결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후 2014년 코스닥이 증가한데 반해 미세먼지 관련주의 주가 평균은 하락했지만, 이때의 간극은 2015년 근소하게 큰 비율로 상승하고 2016년 더 작은 폭으로 하락하여 만회했으며, 비슷한 양상의 변동을 반복하다 2019년 코스닥 증가율에 비해 약 70배 이상 증가하며 10년간 미세먼지 관련주 평균 증가율은 무려 240배를 달성했다. 이는 코스닥이 10년간 증가한 비율의 약 10배이며,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일부 하락하는 종목이 존재하며 위아래로 크게 진동하여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기대는 시장 자체의 성장보다도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대상 기업들은 모두 미세먼지가 악화될 경우 수익률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일부이기에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 미세먼

⁴ 일곱 기업 모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지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예측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미세먼지 관련주 전년대비증가율(%)	주가 평균 /	코스닥 / 전년대비증가율(%)	
2010	3266.83		526.45	
2011	2595.50	-20.55	490.69	-6.79
2012	3121.83	20.28	508.31	3.59
2013	4621.67	48.04	532.44	4.75
2014	4545.14	-1.66	558.70	4.93
2015	5767.57	26.90	683.63	22.36
2016	5590.57	-3.07	624.68	-8.62
2017	5982.71	7.01	694.20	11.13
2018	6285.14	5.06	648.67	-6.56
2019	11124.29	76.99	658.52	1.52
	2010-2019 증 가율	240.52	2010-2019 증가율	25.09

표 2. 미세먼지 관련주 주가 평균과 코스닥의 증가율 대조 (〈라이브 지수 차트〉, 2019)

3.2.2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산업의 팽창

마스크 관련 특허 출원은 2013 년~2017 년까지 5 년간 연평균 113 건을 기록하며 2008 년~2012 년까지 5 년의 연평균 80 건에서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3 년~2017 년 기간 출원된 마스크 특허 중 66%가 방진마스크 관련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철·김도균, 2018). 방진 마스크를 포함한 국내 마스크 생산금액의 경우 2014 년 50 억 원에서 2017 년 381 억 원으로 4 년간 662% 성장하였으며 (<국내외 마스크 시장 관련 동향>, 2019), 업계에 따르면 2019 년 국내 황사마스크는 약 700 억 원 규모에 달했다 복수의 언론 매체가 전했다(신동호, 2019; 정다운·나건웅, 2018).

환경기술연구소의 박찬정 상무는 2016 년 [공기청정기 시장 및 기술 동향]에서 2012 년 38 만 5000 대였던 공기청정기 수요가 2018 년 83 만 7000 대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박찬정, 2019). 한편 KTB 투자증권과 (주)위닉스社は 2018 년 공기청정기 시장의 규모를 230 만 대로 집계했으며 (김영준·김재윤, 2019), 뉴데일리경제의 김희진 기사는 250 만대 (김희진, 2019), 중앙일보 하선영 기사는 시장조사업체 GFK 를 인용하며 180 만 1600 대로 추산하였다 (하선영, 2019). 이 밖에도 하나금융투자는 (주)크린앤사이언스 社の 기업리포트에서 대한민국의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2014 년 18.4%, 2015 년 22.4%에서 2018 년 46.0%까지 치솟았다고 밝히며 (이정기·안주원·이정원, 2019) 추산치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재 공기청정기 시장이 과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자료가 일치했다.

이처럼 마스크 시장과 공기청정기 시장 등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수혜를 입을 것이라 추측 가능한 시장들은 지난 몇 년간 모두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시장을 성장시킨 요인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된다.

3.3 설문을 통한 분석

3.3.1 설문 방식과 질문 유형

키워드 검색 빈도와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추측한 국민의 체감 오염도 및 인식의 변화 여부를 보충하기 위해 2019 년 11 월 6 일부터 7 일까지 이틀간 43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동일한 시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시 비슷한 수준의 대기오염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문 대상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미세먼지 오염의 악화가 통계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한 명의 참가자가 총 네 문항을 답하도록 조사를 구성하였다.

첫 문항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1(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7(매우 심각하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표현하도록 했다. 다음 문항에서는 미세먼지의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그렇다’와 ‘아니다’로 구분하여 답하도록 했다. 두 번째 문항에서 ‘그렇다’를 고른 경우 설문 미세먼지 오염이 언제부터 악화된 것 같은지를 2009 년부터 2019 년까지를 나타내는 스케일 상에서 선택한 후,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느끼는 이유를 보기 중 고르거나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했다. 단, 미세먼지가 악화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수선택을 허용하였다. 만약 두 번째 문항에서 ‘아니다’를 고른 경우 설문 참여자는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그렇다’와 ‘아니다’ 중 선택했다. 이때 ‘그렇다’를 선택했다면 참여자가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하고 있다고 느낀 이유를 보기 중 고르거나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했고, ‘아니다’를 선택했다면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한 이유를 주관식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3.3.2 설문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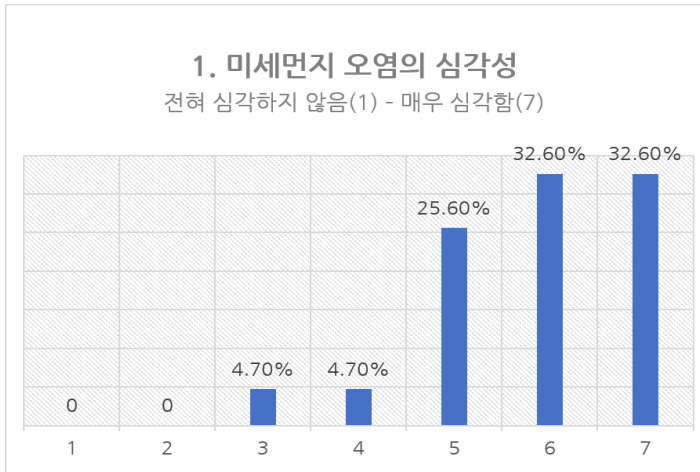


그림 8. 설문 1번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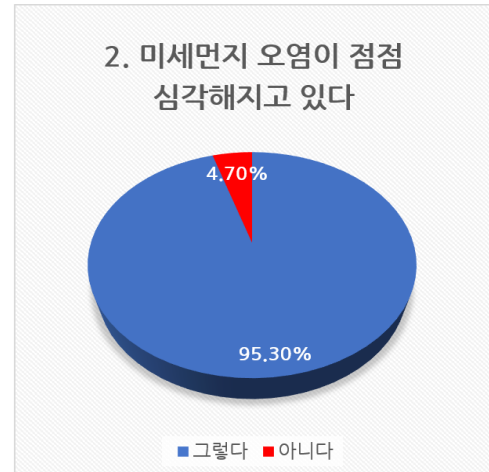


그림 9. 설문 2번 문항

설문 결과 응답자의 90.8%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 느낀다 답했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소개된 환경부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것뿐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9년 3월 15일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자료 속 수치인 87.2%와도 거의 일치하는 결과여서 국민들의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염려가 높은 수준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민지원·주원, 2019).

2번 문항에서는 총 응답자 43명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즉 95.3%가 미세먼지 오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응답했다. 이때 심각해지고 있다 답한 수치는 1번 문항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나타난 답변보다 높은 수치이기에,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이 현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조차도 일부 오염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미세먼지 오염이 악화되었다 느껴지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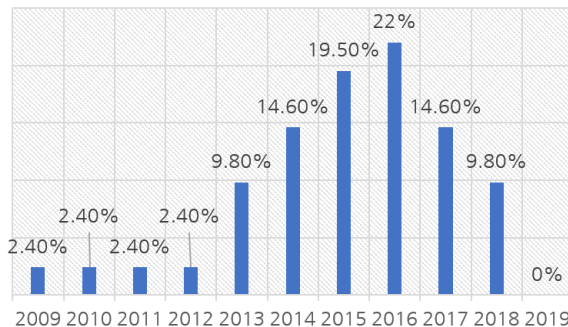


그림 10. 설문 3-1번 문항

3-2.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 (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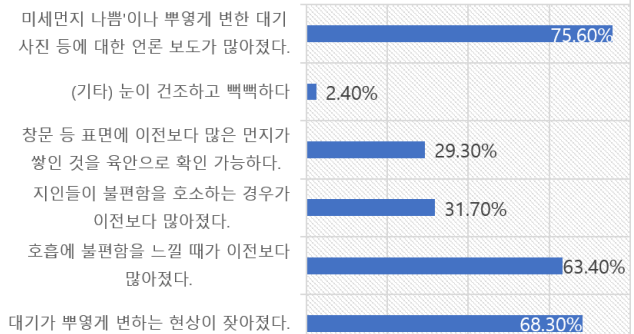


그림 11. 설문 3-2번 문항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오염이 증가한 시점을 고르라고 한 3-1 번 문항에서는 2016 년을 중심으로 정규분포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흥미를 끌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2009 년에서 2012 년까지에 대해 2.4%에 머물던 응답이 2013 년에서 4 배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은 4.1 언론의 역할 부분에서 더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은 해가 2016 년이라는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림 3 에서 알 수 있듯 PM_{2.5} 나쁨 일수가 2015 년 44 일에서 2016 년 76 일로 급증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2016 년은 일 최대 가시거리 20km 이상 일수를 290 일로 갱신한 해이며, 미세먼지 관련주 주가평균이 이례적으로 - 3.07%의 증가율을 보인 해 이기도 하기 때문에 2016 년이 분포의 평균으로 나타난 것에는 경험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⁵

문항 3-2 번은 2 번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답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응답 항목은 그 성격에 따라 '언론의 영향', '사회적 압력 (Peer Pressure)', 그리고 '경험'의 3 가지로 나뉘었으며 복수선택을 허용했는데, 그림 11 에서 알 수 있듯 '언론의 영향'이 75.6%로 가장 컸고, '경험'이 2.4%~68.3%로 두 번째 요인으로, '사회적 압력'이 31.7%를 차지하며 세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

⁵ 심리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경우 문항 3-1번의 효용성은 감소한다.

4. 인식 간극의 생성 및 팽창 요인 분석

앞에서 살펴보았듯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 변화 추이, 그리고 가시거리 20km 이상 일수 변화 추이 등의 통계 자료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인터넷 검색 빈도 상승과 미세먼지 관련주 주가의 급등, 방진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산업의 성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설문 결과와 함께 국민의 인식이 통계 자료에 뒷받침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명백히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인식의 간극은 왜 발생했고, 팽창하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설문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한 요소로 꼽힌 ‘언론의 역할’, ‘경험’ 그리고 ‘사회적 압력’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에 주목하여 다음의 가능성을 유추해보았다.

4.1 언론의 역할

김영옥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오염에 관한 언론 보도, 특히 초점 기사보다는 단편성의 비초점 기사가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주변에 상존하지만 인지되지 않던 위험이 과학적 사실과 무관하게 언론에 의해 위험 문제로 재구성되어 확산될 수 있음”이라 밝혔다(김영옥 외, 2013).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 47.2%의 국민이 ‘뉴스 또한 신문’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답한 점(주원·민지원, 2019)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미세먼지 오염의 통계치가 나타내는 전체적인 감소의 추세보다는 미세먼지의 위험과 당일 오염의 수준을 알리는 단편적 보도의 영향이 국민의 인식 형성에 크게 작용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진행된 설문이 ‘언론의 영향’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다 느끼게 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낸 만큼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괴리를 생성한 것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아래 그림 12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연도별로 54개 언론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 수를 집계한 것이다. 이전까지 각각 1500건대, 그리고 두 자릿수에 머물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관련 기사는 2013년 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데, 이 같은 변

화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키워드의 인터넷 검색 빈도가 2013년 3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 주가 평균이 2013년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며 언론 보도와 국민의 인식 간의 정적 상관관계에 설득력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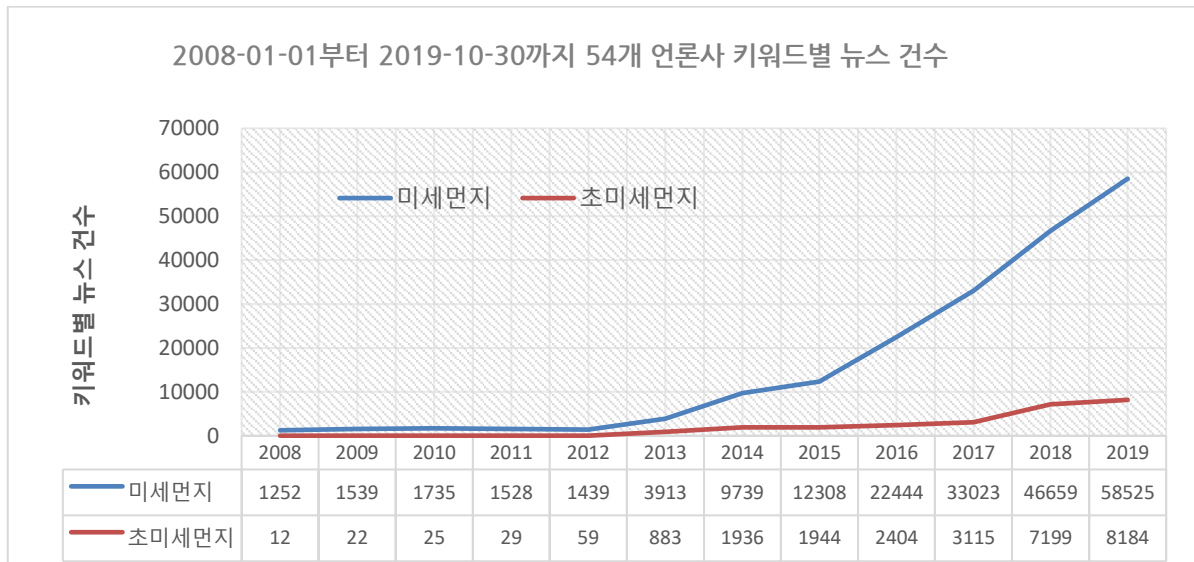


그림 12. 2008-01-01 부터 2019-10-30 까지 54 개 언론사 키워드별 뉴스 건수
(〈뉴스 검색·분석〉, 2019)

4.2 스마트폰 사용률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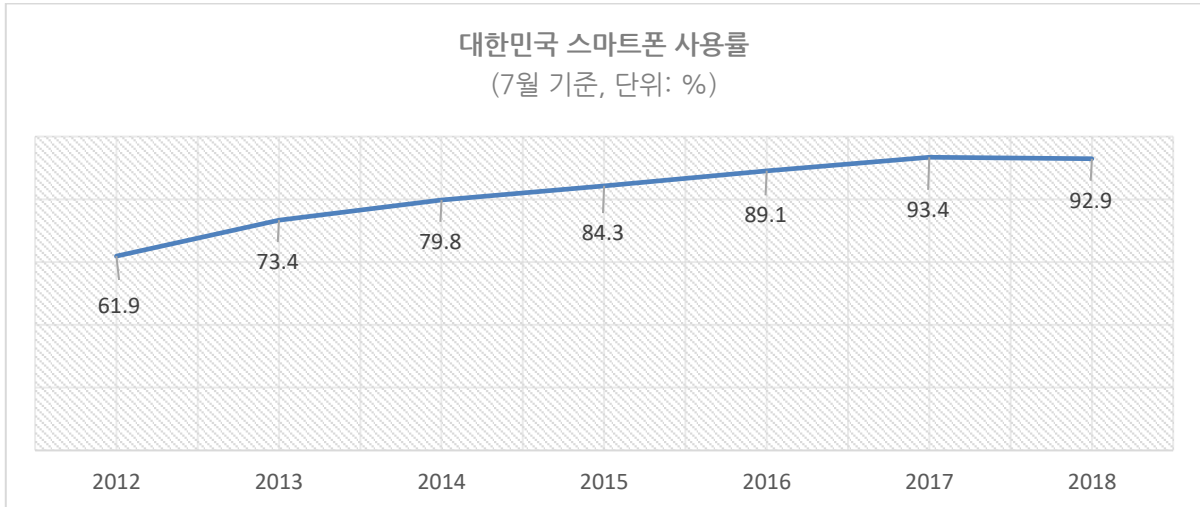


그림 13. 대한민국 스마트폰 사용률
(〈2012-2018 스마트폰 사용률, 현재 사용 & 향후 구입 예정 브랜드〉, 2019)

그림 1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기기가 상용화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90% 이상에 달했다. 스마트폰의 사용률 증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미미한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단발성 기사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4.1 언론의 역할에서 소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같은 조사에서 국민들이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얻을 때 사용하는 매체 중 ‘핸드폰 어플’의 비율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주원·민지원, 2019). 이는 그만큼 사람들이 미세먼지 오염의 정도를 알기 위해 스마트폰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뉴스 또는 신문’에서 정보를 얻는다 답한 47.2%도 스마트폰을 통한 것이었음을 높은 확률로 시사한다.

둘째, 가시거리가 감소하여 미세먼지 오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국민들은 대기질 오염을 보여주는 사진 등을 스마트폰의 SNS 서비스로 지인과 더욱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느끼는 이유를 묻은 문항에서 ‘지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답한 이들은 중복 선택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31.7%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이 분명하기에, 스마트폰 사용률 증대로 대중의 연결성이 강화되었다면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악화되었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3 통계의 한계

4.3.1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인식의 왜곡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하는 기준)과 예보 기준이 WHO와 미국, 일본 등의 기준에 맞추어 강화되었다. PM_{2.5}의 환경기준은 일평균 50 $\mu\text{g}/\text{m}^3$ 및 연평균 25 $\mu\text{g}/\text{m}^3$ 에서 각각 35 $\mu\text{g}/\text{m}^3$ 와 15 $\mu\text{g}/\text{m}^3$ 로 변경되었고, 예보기준 또한 아래와 같이 강화되어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나쁨’과 ‘매우 나쁨’ 일수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홍동근·정수성, 2018).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17년 PM_{2.5}에 대한 ‘나쁨’ 일수는 12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0에서 2일로 증가한 반면 ‘보통’ 일수는 257일에서 210일로 무려 47일 감소하여 시행령 적용 이후 환경부와 언론의 보도가 대기 환경이 더욱 나빠졌다는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분 (단위: $\mu\text{g}/\text{m}^3$)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시행령 이전	0~15	16~50	51~100	101 이상
시행령 이후	0~15	16~35	36~75	76 이상

표 3. 미세먼지(PM_{2.5}) 일평균 예보기준 강화 (홍동근·정수성, 2018)

이외에도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이 발표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 감축 목표가 2021년 14%에서 2022년 30%로 상향 조정되었고(〈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 2018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9) 민간 및 공공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더욱 엄격 해졌다. 이렇듯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공식 입장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기에(〈미세먼지 팩트 체크: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9) 오염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2013년 WHO의 국제 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미세먼지, 즉 PM₁₀과 PM_{2.5}를 1급 발암 물질(Group 1)로 분류(Straif, K. et al, 2013)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한데,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는 각종 규제의 도입을 접하는 국민들은 그 배경에 대해 알기 힘들므로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더욱 악화하는 방향으로 의도치 않은 효과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4.3.2 미세먼지 오염 악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정 방식과 통계 자료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설문 문항 중 복수선택이 허용되었던 3-2번 문항에서 응답자의 68.3%가 가시거리 감소를, 63.4%가 호흡기 불편을, 그리고 29.3%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먼지 쌓임의 정도 등 개인의 '경험'적 요인을 '미세먼지 오염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한 이유로 꼽았다. 이는 실제로 미세먼지 오염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통계치가 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현실을 옳게 반영한 것이고, 그러므로 간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 미세먼지가 감소한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 농도의 변화, 연도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의 변화, 그리고 연도별 가시거리 20km 이상 일수 변화 등 세 가지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은 평균적으로 봄철에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정권 외, 2018) 실제로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면 연도 기준이 아닌 매해 1, 2분기의 오염 정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또한 하루 사이에도 오염 농도는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매시간 혹은 분 단위로 측정한 오염 농도의 분포를 분석하여 최고값과 중간값, 가능하다면 예보 기준 이상의 값이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지 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세먼지 오염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에 반해 국민들은 오염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통계치와 인식 간의 간극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또 팽창하고 있을지를 알아보았다. 미세먼지 오염이 지난 20년간 개선되어 왔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미세먼지 오염의 척도로 쓰이는 세 가지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PM₁₀의 개선은 거의 확실해 보였고, PM_{2.5}의 경우 자료 수집이 비교적 최근 시작되어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했다. 국민의 체감 오염도는 미세먼지 오염 키워드의 검색 빈도, 미세먼지 관련 시장, 그리고 설문을 통해 분석했을 때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여 10년 전과 비교할 때 확연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 결과 토대로 본고는 인식 간극 생성 및 팽창 요인으로 언론의 역할, 스마트폰 사용률의 증가, 그리고 통계의 한계를 꼽았다. 언론의 역할은 선행 연구에서도 분석되었듯 감소 추세를 반영하기보다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도하는 단발성 기사와 미세먼지 관련 보도의 건수 증가로 인해 국민의 체감 오염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었고, 스마트폰의 사용률 증가는 언론의 영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개인 간의 연결성을 높여 사회적 압력 Peer Pressure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각인시킨 것으로 추측되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측면에서는 환경 기준 강화가 ‘미세먼지 나쁨 일수’ 등 국민이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수치를 증가시켰음을 지적했고, 호흡기 불편 등 경험적 요인이 미세먼지 체감 오염도 증가를 불러일으켰다는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미세먼지 오염은 악화되고 있지만 통계치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오염이 악화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을 미세먼지 관련 시장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통계치와 인식 사이 괴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새로운 시각에서 뒷받침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서 진행된 설문의 결과가 이전에 다른 기관과 연구에서 이루어진 설문의 결과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적은 표본의 수로 높은 신뢰도를 이끌어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이 악화되었다 느끼는 이유로 뽑힌 요인들은 차후 관련된 연구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어떻게 경험적 요인과 통계치가 일치하지 못했는지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며, 따라서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노출되거나 미세먼지로 인해 불쾌하다는 지인의 경험을 공유함으로 생기는 심리적 변화가, 미세먼지가 개선되고 있는 실제 상황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경험에 대한 기억을 왜곡하거나 경험 자체를 확대하여 인식하게 하는지에 대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3.2 미세먼지 오염 악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정 방식과 통계 자료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미세먼지 오염이 실제로 개선된 것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오염 측정의 척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비록 본 연구는 실제 미세먼지 오염과 이에 대한 인식 간의 차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여 근본적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였으나, 환경적 위험 요소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상승한 오늘날의 상황은 미세먼지 오염의 수준이 심각하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2000년대 이전의 불감증적 상황보다 크게 발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인식과 현실 간의 격차는 정부와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이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 또한 근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이 자명하다.

6. 참고문헌

1. 김보영, <[팩트체크]미세먼지 10 년전보다 더 나빠졌을까?>, 《이데일리》, 2018-11-0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19403424&mediaCodeNo=257>, [Accessed 18 Sep. 2019].
2. 김석교, 《반기보고서》 31, (주)케이엠, 2019, p10-16.
3. 김영옥 외, <언론은 미세먼지 위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미세먼지 위험보도 프레임과 정보원 분석>, 《한국언론학보》 59(2), 한국언론학회, 2015.
4. 김영준, 김재윤, <미세먼지 이슈 점검>, Ktb 투자증권, 2019.
5. 김현정, <미세먼지 갔나...마스크·공기청정기株 줄줄히 약세>, 《매일경제》, 2019-04-25,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04/261913/>, [Accessed 27 Sep. 2019].
6. 김희진, <'커지는' 공기청정기 B2B 시장... 업계, 너도나도 대형제품 내놓기 경쟁>,
 《뉴데일리경제》, 2019-05-03,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03/2019050300047.html>, [Accessed 2 Nov. 2019].
7. <국내외 마스크 시장 관련 동향>,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2019, p2-3.
8. <뉴스 검색·분석>, BIGkinds, 2019,
<https://www.kinds.or.kr/v2/news/search.do?Bigkinds=1B5A838145E99B165D948A0356FFFE4>, [Accessed 2 Nov. 2019].
9. <라이브 주식 차트>, Investing.com, 2019, <https://kr.investing.com/charts/stocks-charts>,
 [Accessed 27 Sep. 2019].
10. <라이브 지수 차트>, Investing.com, 2019, <https://kr.investing.com/charts/indices-charts>,
 [Accessed 27 Sep. 2019].
11. <미세먼지>, 구글, 2019,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all&geo=KR&q=%2Fm%2F01q35w>,
 [Accessed 26 Sep. 2019].
12.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 2017.

13.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환경부 대변인실, 2016, p5-9, p15.
14. 〈미세먼지 브로셔〉, 환경부, 2013, p1-2,
<http://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97828&fileSeq=1&openYn=Y> [Accessed 19 Sep. 2019].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8%EC%84%B8%EB%A8%BC%EC%A7%80%EC%A0%80%EA%B0%90%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Accessed 3 Nov. 2019].
16. 〈미세먼지 팩트 체크: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실, 2019, p30.
17. 〈미세먼지 현황〉, 환경부, 2019, <http://www.me.go.kr/cleanair/sub02.do#2>, [Accessed 20 Sep. 2019].
18. 〈미세먼지(PM10) 월별 도시별 대기오염도〉, 《대기오염도 현황》, 환경부, 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045,
[Accessed 15 Oct. 2019].
19. 민지원, 주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한국경제주평》 833, 현대경제연구원, 2019.
20. 박찬정, 〈공기청정기 시장 및 기술동향〉, 《건축환경설비》 10(1), 한국건축환경설비학회, 2016.
21. 신동호, 〈미세먼지 경제학, 에어노믹스(Airnomics)와 브랜드노믹스(Brandnomics)〉,
《브랜드타임즈》, 2019-01-2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 [Accessed 2 Nov. 2019].
22. 성서호, 〈초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나쁨'예보 급증할 듯〉, 《연합뉴스》, 2018-03-20,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0087100004>, [Accessed 12 Oct. 2019].
23. 여민주, 김용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추이와 고농도 발생 현황〉,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5(2), 한국대기환경학회, 2019.
24. 이현주 외, 〈한반도 미세먼지 발생과 연관된 대기패턴 그리고 미래 전망〉,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9(4), 한국기후변화학회, 2018.

25. 윤주호, 이창석, <위닉스 044340: 상고하저는 지속되나 강해진 펀더멘털>, 메리츠증권증권, 2019.
26. 이정기, 안주원, 이정원,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공기청정기용 필터 매출액 2 배 성장 시현!>, 하나금융그룹, 2019.
27. 이정은, <조용히 미소짓는 미세먼지 관련주>, 《파이낸셜뉴스》, 2019-01-15,
<https://www.msn.com/g00/ko-kr/money/topstories/%EC%A1%B0%EC%9A%A9%ED%9E%88-%EB%AF%B8%EC%86%8C%EC%A7%93%EB%8A%94-%EB%AF%B8%EC%84%B8%EB%A8%BC%EC%A7%80-%EA%B4%80%EB%A0%A8%EC%A3%BC/ar-BBSgBV9?i10c.ua=1&i10c.encReferrer=&i10c.dv=15#page=2>, [Accessed 27 Sep. 2019].
28. 이한옥, 《반기보고서》 40, (주)크린앤사이언스, 2019, p12-27.
29. <입자상물질>,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01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72995&cid=40942&categoryId=32412>,
[Accessed 19 Sep. 2019].
30.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대기오염 종합평가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 2006, p2.
31. 이상보 외, 《대기환경연보 2017》, 국립환경과학원, 2018, p161-164.
32. 이선미, <국민 78.7% "미세먼지는 건강위협", 72.4% "시민실천운동 참여"...시민참여 의지 높아>, 《보도 자료》, 환경부, 2018.
33. 조승한, <"미세먼지, 20 여년간 감소 추세...인식 격차 줄여야">, 《동아사이언스》, 2019-02-26,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7047>, [Accessed 18 Sep. 2019].
34. 장재연,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환경일반 활동소식》, 환경운동연합, 2018, <http://kfem.or.kr/?p=188082>, [Accessed 18 Sep. 2019].
35. 조성철, 김도균, <미세먼지가 물고 온 마스크 전성시대>, 《보도 자료》, 특허청 특허심사 1 국 주거기반심사과, 2018.

36. 장재훈, 이화운, 이순환, <한반도내 미세먼지 발생주기의 시공간분포 특성>, *《한국환경과학학회지》* 21(2), 한국환경과학학회, 2011.
37. 정다운, 나건웅, <미세먼지에 울고 웃는 기업 | 마스크 판매 50 배↑...편의점서 품귀 현상 공기청정기·건조기 인기에 가전업계 '방긋'>, *《매경이코노미》*, 2018-04-12,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18&no=234617&relatedcode=>, [Accessed 2 Nov. 2019].
38. 전범준, <미세먼지 예보 기준 강화... '나쁨' 일수 늘어날 것>, *《조선일보》*, 2018-04-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4/2018042401879.html, [Accessed 12 Oct. 2019].
39. 정권 외, <2017 년 서울 대기질 평가 보고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2018, p33.
40. <초미세먼지>, 구글, 2019,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all&geo=KR&q=%EC%B4%88%EB%AF%B8%EC%84%B8%EB%A8%BC%EC%A7%80>, [Accessed 26 Sep. 2019].
41. 하선영, <월 1.5 만대→30 만대로 쑥...미세먼지로 폭발하는 공기청정기 시장>, *《중앙일보》*, 2019-02-18, <https://news.joins.com/article/23377752>, [Accessed 2 Nov. 2019].
42. 허종수, <반기보고서> 34, (주)위닉스, 2019, p11-13.
43. 홍제우, 홍진규, 김정환, <조건부 가치 설문조사를 통한 대기 오염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 변화 조사>, *《Atmosphere (대기)》* 29(2), 한국기상학회, 2019, http://j-komes.or.kr/_PR/view/?aidx=20443&bidx=1635#!po=7.14286, [Accessed 22 Sep. 2019].
44. 홍동근, 정수성, <미세먼지[PM_{2.5}]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보도 자료>, 환경부, 2018.
45. 홍유덕, 신혜정, <수도권 뿌연 시야...미세먼지에 의한 빛의 산란이 큰 원인>, <보도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2015.
46. <2012-2018 스마트폰 사용률, 현재 사용 & 향후 구입 예정 브랜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한국갤럽, 2018.
47. <2016 년 서울 대기질 평가 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17, p87-88.

-
48. Kim et al, <Recent increase of surfac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orea>, 《Scientific Reports》 7(4710), nature, 2017.
49. Straif, K. et al, <Air Pollution and Cancer>, 《IARC Scientific Publication》 161,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13.



7.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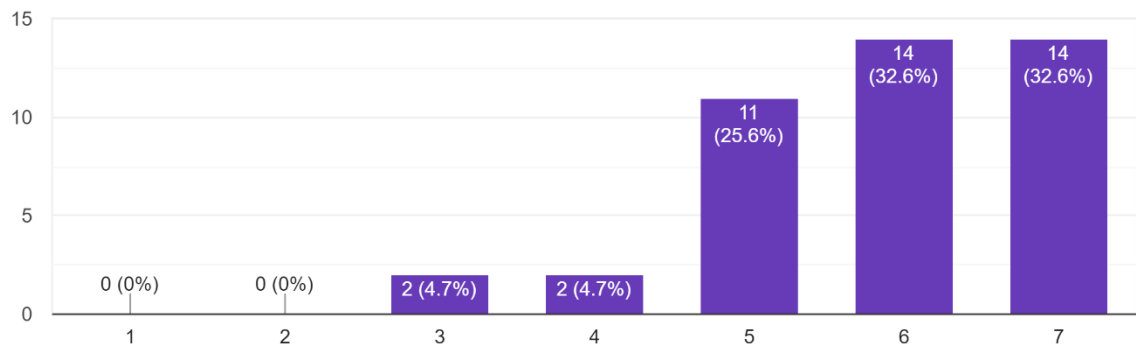
...

1. 미세먼지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



1. 미세먼지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응답 4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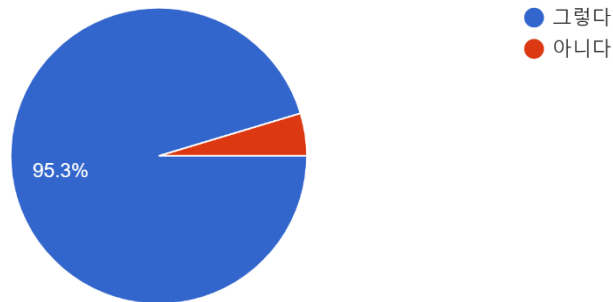
2. 미세먼지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 그렇다

☐ 아니다

2. 미세먼지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응답 4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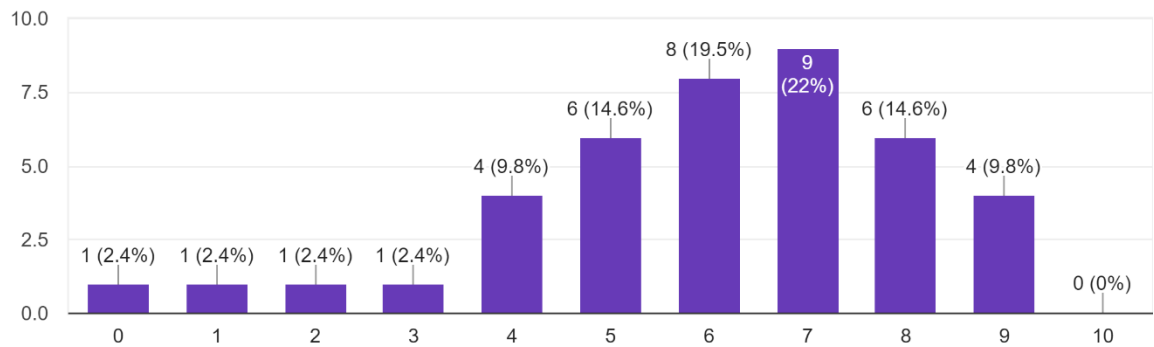


3-1. 미세먼지 오염이 언제부터 악화된 것 같습니다? *



3-1. 미세먼지 오염이 언제부터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응답 4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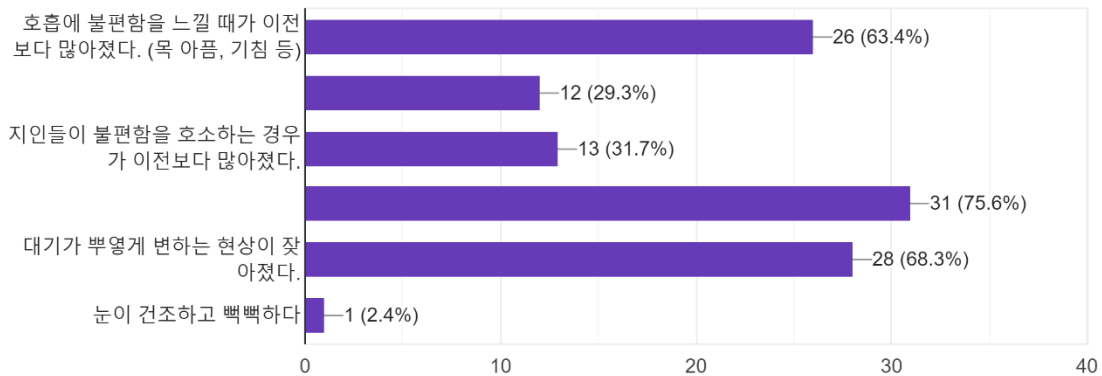
...

3-2.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 ☐ 호흡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이전보다 많아졌다. (목 아픔, 기침 등)
- ☐ 창문 등 표면에 이전보다 많은 먼지가 쌓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 ☐ 지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졌다.
- ☐ '미세먼지 나쁨'이나 뿌옇게 변한 대기 사진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아졌다.
- ☐ 대기가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잦아졌다.
- ☐ 기타...

3-2.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응답 4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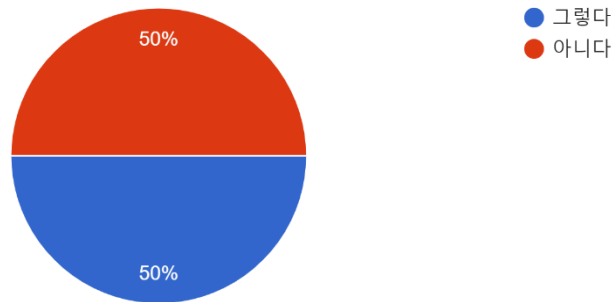
...

4-1.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 ☐ 그렇다
- ☐ 아니다

4-1.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응답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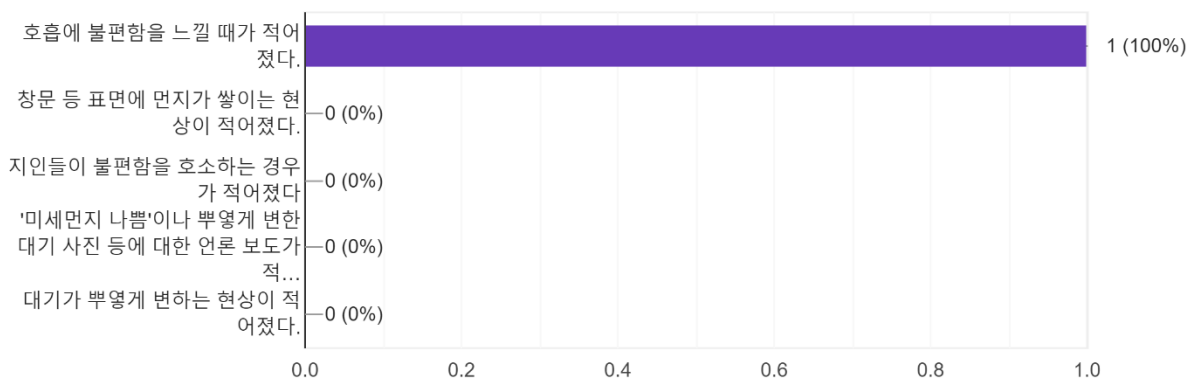
...

4-2.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하고 있다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 ☐ 호흡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적어졌다.
- ☐ 창문 등 표면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적어졌다.
- ☐ 지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어졌다
- ☐ '미세먼지 나쁨'이나 뿌옇게 변한 대기 사진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적어졌다.
- ☐ 대기가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적어졌다.
- ☐ 기타...

4-2.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하고 있다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응답 1개





5-1.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았다 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문형 텍스트

5-1.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았다 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1개

별로 차이를 못느껴서



[보고서 부문: 교무부총장상]

강의 저작물 매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박소연(간호학과)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강의 저작물 매매 현황 및 매매유형별 합법·위법성 경계 탐색
 - 1) 강의 저작물의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
 - 2) 강의 저작물의 매매 현황 및 유형
 - 3) 매매유형별 합법·위법성 경계 탐색
2. 강의 저작물 매매의 문제점
 - 1) 법적 차원
 - 2) 교육·학문적 차원
 - 3) 윤리적 차원
 - 4) 사회적 차원
3. 강의 저작물 매매의 해결방안
 - 1) 학생
 - 2) 학교
 - 3) 커뮤니티

III.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강의 저작물의 매매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의 합법·위법성 경계를 탐색하고, 대다수의 매매 행위가 위법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학생들과 교수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밝히는 데 있다.

2. 문제 제기

“○○○교수님 ○○강좌 필기나 녹음파일 샅니다. 쪽지 주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지난 1년간¹⁾ 약 4,320개의 강의 저작물 거래 글이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라 가격과 거래방법이 다르게 책정되었으나, 구매자는 주로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으로 약 1시간 15분 상당의 강의 저작물에 대한 값을 내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강의 저작물은 어문 저작물로 분류되며²⁾,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된다.³⁾ 하지만, 우리 대학 학생들은 매매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음에도 학습과 학점을 이유로 매매를 지속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점은 저작권자인 교수자가 이러한 위법 행위가 횡행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매매 행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는 교수자의 법익을 침해하여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비윤리의 토대 위에 지성을 쌓게 하여 참된 지성의 함양이라는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를 위협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강의 저작물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의 본래 목적이 무색할 만큼 학점과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질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래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문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치인 ‘정직’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학문의 정도를 되짚으며 대학 내 강의 저작물 거래 행위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⁴⁾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최근 3개년 간 고파스와 에브리타임에서 나타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강의 저작물 매매 행태를 연구한다. 온라인 매매 행태 및 오프라인 위법성 인식 조사의 연계성을 위해 고려대학교 학생들로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와 에브리타임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실제성을 확보한다. 시간적 범위를 2017년~2019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저작물 거래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현 저작물 매매 문화를 주도하는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한다.

1)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2일 기준

2)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3) 저작권법 제30조.

4) 정종진·최선경·하병학, 《학습윤리가이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3, 3면.

4. 연구 방법론

문헌 조사를 통해 강의 저작물의 개념을 밝히고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파스와 에브리타임을 직접 조사하여 매매 현황을 분석한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거래 행태 및 위법성 인식 현황을 밝힌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의 저작물의 거래 양상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문헌 조사를 통해 각 유형의 합법·위법성을 명시한다. 문헌 조사를 통해 강의 저작물 거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고는 강의 저작물 보호의 이론적 근거를 살피고 강의 저작물 매매의 현황 및 유형을 파악하여 각 유형의 합법·위법성을 탐색할 것이다. 또한, 강의 저작물 매매의 문제점을 논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학생, 학교, 커뮤니티의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다.

II. 본론

1. 강의 저작물 매매 현황 및 합법·위법성 경계 탐색

1) 강의 저작물의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

강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로 분류된다.⁵⁾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호한다.⁶⁾⁷⁾ <저작권법>은 창작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한 특정한 절차나 방식 없이 저작권의 배타적인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⁸⁾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이 인정된다. 여기에서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 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⁹⁾ 복제의 방법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수자의 허락 없이 강의내용을 녹음 및 필기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강의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서 나아가 퍼블리시

5)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6) 이판구, <대학공개강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적 개선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3면.

7)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뜻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권리들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대여권. 반면, 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고 오직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이란.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what-the-copyright/definition/index03.do>, 2020년 1월 20일 접속.)

8) 윤종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Creative Commons License>, 《경희법무대학원 법무잡지》, 2008, 12면.

9)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서비스.

https://www.copyright.or.kr/mobile/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jsessionid=sY6o-g3QdT8gWsviDdsEbyPp.copyright_was2?execution=e1s1, 2020년 1월 20일 접속.

티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인정 여부에 관한 우리 법원의 태도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명한 교수자는 그 음성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녹음된 강연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이외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¹⁰⁾

저작권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¹¹⁾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¹²⁾ 따라서, 강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복습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한다면 교수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¹³⁾

그러나, 강의 저작물의 개인 소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자의 강의는 “오랜 연구를 통해 쌓인 지식의 산물이자 재산”이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지라도 사전에 해당 교수의 허락을 구해 저작물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지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¹⁴⁾ 다만, 본고에서는 ‘강의 저작물 매매’를 주제로 삼고 있으므로 강의 저작물의 개인 소장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다루지 않는다.

2) 강의 저작물 매매 현황 및 유형

(1) 매매 현황

고려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와 에브리타임에 최근 3개년간 업로드된 강의 저작물 거래 글을 분석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고파스에서는 2017년에 약 350건, 2018년에 약 600건, 2019년¹⁵⁾에 약 650건의 강의 저작물 매매 글(구매와 판매에 대한 의사 표명)이 업로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에브리타임에서는 2017년에 약 1,540건, 2018년에 약 3,240건, 2019년¹⁶⁾에는 약 4,320건의 매매 글이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두 커뮤니티 모두에서 2018년부터 강의 저작물 매매 글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해가 지날수록 강의 저작물 매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4 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76면.

1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위와 동일.

12) 저작권법 제30조.

13)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서비스.

https://www.copyright.or.kr/mobile/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sessionId=sY6o-g3QdT8gWsviDdsEbyPp.copyright_was2?execution=e1s1, 2020년 1월 20일 접속.

14) 최한나 기자, 〈강의 녹음, 불법이 될 수도 있어〉, 《덕성여대신문》, 2014.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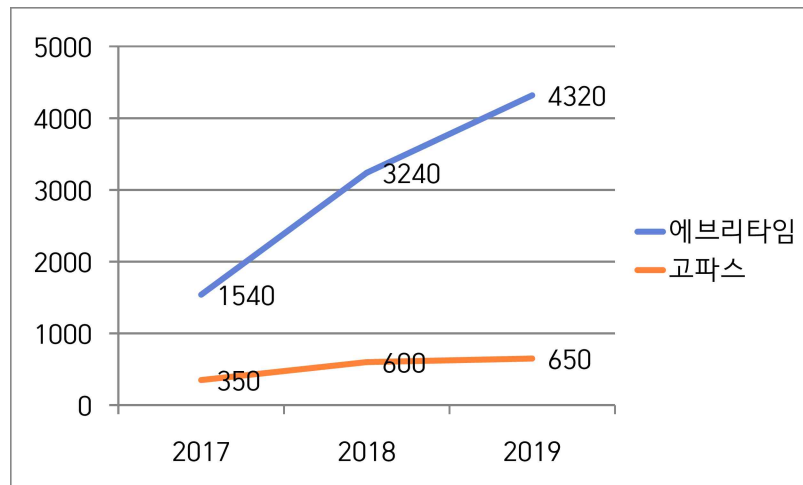
<http://www.dspress.org/news/articleView.html?idxno=5256>, 2020년 1월 20일 접속.

15) 2019년 12월 22일 기준

16) 2019년 12월 22일 기준



< 그림 1 >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 강의 저작물 매매 양상



< 그림 3 > 커뮤니티 내 강의 저작물 매매 글 증가 추이

학생들의 저작물 매매 경험과 저작권 보호 의식을 조사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고려대학교 재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¹⁷⁾ 구글폼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76명 중 61명(전체 응답자의 80%)이 강의 저작물을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강의 저작물 거래 경험이 있는 61명 중 교수자의 동의를 받고 저작물을 거래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0명, 0%). 거래 경험자 61명에 따르면 녹음본(43명, 70%), 필기본(15명, 25%), 필기정리본(3명, 5%) 순으로 많이 거래되었다. 강의 저작물 거래는 주로 에브리타임(53명, 87%)에서 이루어졌다. 강의 저작물 거래 경험이 있는 61명의 학생 중 60명의 학생(98%)이 주로 유료로 저작물을 거래했다. 매매가격은 1시간 15분에 달하는 한 회차의 수업 당 교양의 경우 평균 5000원, 전공의 경우 1~3만 원 선으로 다양했다. 값을 치르는 방법으로는 계좌이체와 같이 현금을 지불하는 형태(5명, 8%)보다 기프트콘을 선물하는 경우(53명, 88%)가 많았다.

17) 2019년 10월 12일부터 2019년 12월 14일까지

문항	설문 참여자 76명			
저작물 거래 경험 여부	거래경험 有 (61명, 80%)			거래경험 無 (15명, 20%)
교수자의 동의 여부	저작물 거래에 대한 교수자의 동의 無 (61명, 100%)			
거래되는 저작물의 내용	녹음본 (43명, 70%)	필기본 (15명)	필기 정리본 (3명)	
거래 경로	에브리타임 (53명, 87%)	고파스 (7명, 11%)	기타 (1명)	
거래 가격	유료 (60명, 98%)		무료 (1명)	
지불 방식	기프트콘 (53명, 88%)	계좌이체 (5명)	기타 (2명)	

< 표 2 > 설문조사 결과 I (교수자의 동의 여부, 거래 내용·경로·가격, 지불 방식)

강의 저작물 거래 경험이 있는 학생 61명 중 매매 행위가 위법임을 아는 학생들은 33명(54%), 모르는 학생들은 28명(46%)으로 집계되었다. 위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강의 저작물을 거래한 이유로는 ‘적발·처벌확률이 낮아서’(27명, 82%)가 1위를 차지했다. 위법 행위임을 몰랐다고 응답한 학생 28명 중 ‘강의 저작물 매매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한 후에도 거래를 지속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2명(43%)이었는데, 그 이유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9명, 75%)가 1위를 차지했다. 기존의 위법성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강의 저작물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학교 교칙이 생긴다면 강의 저작물 거래 행위를 지속하지 않겠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61명 중 41명(68%)이 ‘그렇다’, 20명(32%)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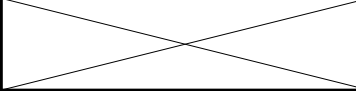
문항	설문 참여자 76명			
저작물 거래 경험 여부	거래경험 有 (61명, 80%)			거래경험 無 (15명, 20%)
위법성 인지여부	위법성 인지 O (33명, 54%)	위법성 인지 X (28명, 46%)		
위법성 인지 후 거래 지속의향			지속의향 O (12명, 43%)	지속의향 X (16명, 57%)
학칙 제정 시 거래의향	학칙 제정 시 거래의향 O (20명, 32%)	학칙 제정 시 거래의향 X (41명, 68%)		

< 표 3 > 설문조사 결과 II (위법성 인지 실태, 학칙 제정의 효과)

정리하자면, 학생들은 주로 에브리타임을 통해 5천 원~3만 원대의 기프트콘으로 한 회차의 수업에 대한 값을 치르며 강의 녹음본을 거래하고 있었다. 위법 행위임을 인지하는 학생들은 ‘적발 및 처벌의 위험이 낮다’라는 이유로, 인지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저작물 거래 행위를 지속할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2) 매매 유형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강의 저작물 거래 양상을 ‘매매 내용’과 ‘유·무료’라는 2가지 변수에 기반하여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유형별 비율은 아래와 같다.

No.	변수		비율	
①	교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0% (0명)	
교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매매 내용		유·무료		
②	녹음	무료	2% (1명)	
③	녹음	유료	68% (42명)	
④	필기	무료	0% (0명)	
⑤	필기	유료	25% (15명)	
⑥	필기 재구성	무료	실질적 유사성 有	0명 (0%)
⑦			실질적 유사성 無	
⑧	필기 재구성	유료	실질적 유사성 有	5% (3명)
⑨			실질적 유사성 無	

< 표 4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매매유형별 비율

가장 많이 나타난 거래 유형은 유형 ②, ③번에 해당하는 녹음본이다. 타 유형과 다르게 거래자 43명 중 무료로 거래한 학생(1명, 2%)이 있었다. 해당 학생과 인터뷰한 결과 200명 이상의 학생이 함께 수강하는 대형강의의 경우 결석생이 많아 녹음을 구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교수자의 지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려는 학생들의 행태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인은 녹음본을 무료로 공유하고자 한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선의로 강의 저작물을 무료 공유한 이 학생의 행동 또한 교수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저작권법에 어긋난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거래 유형은 유형 ④, ⑤번에 해당하는 필기본으로, 모두 유료 형태로 거래되었다. 필기본을 거래한 학생 15명 중 1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인터뷰한 결과 1시간 15분짜리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하는 녹음본에 비해 교수자의 강의내용이 속기 형식으로 적혀 있는 필기본이 학습에 더 용이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녹음본에는 없는 판서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필기본의 장점으로 꼽았다.

가장 적게 거래된 유형은 유형 ⑥, ⑦, ⑧, ⑨에 해당하는 필기 정리본이다. 필기 정리본은 필기본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료 형태로 거래되었으나 타 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적 관점이 반영된 필기 정리본의 특성상 판매 및 학습

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3) 매매유형별 합법·위법성 경계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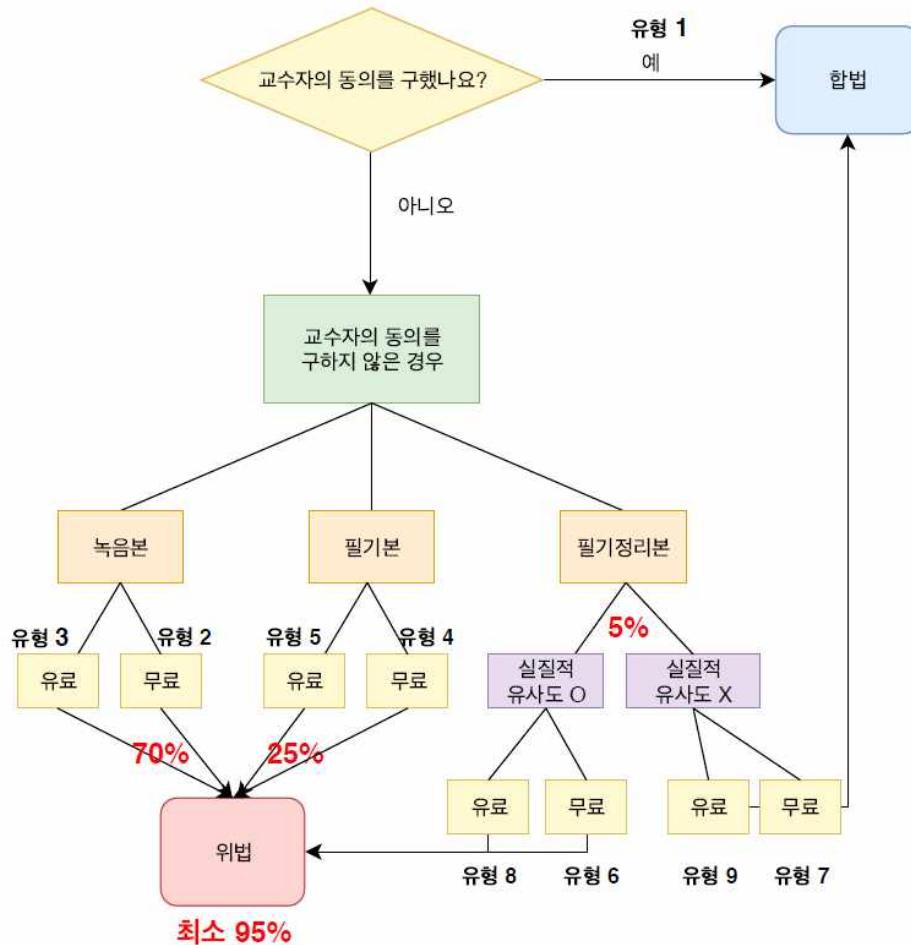
강의 녹음본(유형 ②, ③)과 필기본(유형 ④, ⑤)의 경우 저작권자인 교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 행위이다.¹⁸⁾ 거래 가격 등의 변수는 위법성 여부 판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료 거래이든 무료 배포이든 모두 처벌의 대상이다.

반면, 필기 정리본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에 따라 합법·위법성의 경계가 달라진다. ‘실질적 유사성’은 “요약 및 재구성된 내용을 봤을 때 원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두 자료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다.¹⁹⁾ 이는 “창작성 표현의 복제 또는 부당한 이용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²⁰⁾,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해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개념이다.²¹⁾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²²⁾은 저작권법 실무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될 만큼 추상적이라²³⁾²⁴⁾ 학부생 수준에서는 본인의 자료(필기 정리본)에 대해 합법·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에 저촉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필기 정리본에 대한 거래 및 배포 행위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⁵⁾

매매유형별 합법·위법성 경계를 도식으로 정리하면 < 그림 3 >과 같다.

- 18) 박민경·전남혁 기자, <성행하는 강의 녹음, 영리적 거래 행위는 불법>, 《고대신문》, 2018.11.19.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5472>, 2019년 12월 22일 접속.
- 19) 박수정 기자, <학업에 가려진 위법>, 《중대신문》, 2019.04.15.
<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3025>, 2019년 12월 22일 접속.
- 20) 김민옥,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13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50면.
- 21) 김병일,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17권, 2013, 49쪽.
- 22)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원고 저작물의 보호받는 표현을 피고 저작물이 베꼈는지는 묻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판례는 Haper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회고록 중에서 300여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베낀 경우에 있어 저작물이 사용된 부분의 분량과 실질이 원고의 회고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사용하여 원고의 보호받는 표현의 부당한 이용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최상필, <표준교재와 동영상강의의 저작권적 법률관계 -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1398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7권 3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163면.)
- 23) 김경숙,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재구성 -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륙법계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계간 저작권》 111호(28권 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40면.
- 24)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저작권법의 대표적인 불확정 개념으로 분류될 정도로 상당히 모호하다. 최근 법원은 저작물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전체가 아닌 새롭게 창작된 부분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일부라도 새로운 표현이 담겨 있다면 창작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 25)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형별 자동상담사례.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1s1>, 2019년 11월 01일 검색.



< 그림 3 > 매매유형별 합법·위법성 경계 탐색

매매유형별 합법·위법성을 토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강의 저작물 거래 경험이 있는 학생 61명 중 95% 이상이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거래를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5%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위법 행위 여부는 필기 정리본의 실질적 유사성에 따라 달라지나, 거래된 필기 정리본을 확보하여 그것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유보한다.

2. 강의 저작물 매매의 문제점

1) 법적 차원: 교수자의 법익 침해

정진근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저작물 침해 행위는 저작자가 신고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 심각한 사안이다.²⁶⁾²⁷⁾ 저작권법 제136조에

26) 박수정 기자, 앞의 기사.

27) 이해완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LG Challengers, 저작권 사용 지침서 | 저작권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http://www.lgchallengers.com/social/저작권-사용-지침서 | 저작권이-무엇에-쓰는-물건이/](http://www.lgchallengers.com/social/저작권-사용-지침서|저작권이-무엇에-쓰는-물건이/), 2020

따르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²⁸⁾

그렇다면 저작권은 왜 법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가? 과거에는 저작권이 ‘자연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자연권론의 관점에서 그것의 정당화 근거를 찾았다.²⁹⁾ 자연권론의 대표 이론으로는 로크의 노동이론과 헤겔의 인격이론이 있다. 로크의 노동이론은 “저작물 작성에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게 마땅히 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으로³⁰⁾, “권리 창설과 존속의 근거를 노동으로부터 찾아 창작자에 대한 보상에 주안점”을 둔다.³¹⁾ 헤겔의 인격이론은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되어 있으므로 그 인격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론으로³²⁾, “인격과 개성의 발현인 창작물의 변증법으로부터 정당화 논거를 찾는다”.³³⁾ 한편 현대에 이르러 등장한 유인이론은 저작재산권을 창작행위의 유도 기제(인센티브)로 삼아 공동체 문화의 향상·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이용자의 법익을 조화시킬수 있는 한 저작재산권을 보호할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는 관점에서 저작재산권을 정당화한다”.³⁴⁾³⁵⁾³⁶⁾

법리적 측면에서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이 마련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정의사회,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며 헌법 제22조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한다.³⁷⁾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³⁸⁾

2) 교육·학문적 차원: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교수자의 연구 방해

강의 저작물 매매 행위는 교수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강의 저작물의 거래 행위는 교수자에게 심리적 압박 및 불안감을 조성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딱딱하고 건조한 수업을 유발할 수 있다. 교수자의 숨소리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교수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부담을 받게 되어 농담 하나 없는 무미건조한 수업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의 저작물 매매 행위는 교수자의 발언 범위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강의 진행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년 1월 20일 접속)

28)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9) 신혜원, <저작권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i면.

30) LG Challengers, 앞의 자료.

31) 신혜원, 앞의 논문, i면.

32) LG Challengers, 앞의 자료.

33) 신혜원, 앞의 논문, i면.

34) 신혜원, 앞의 논문, i면.

35) “여러 사상 중 유인이론은 노동에 대한 보상과 인격에 대한 보호 모두를 창작의 유인책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그 권리의 공동체 관련성을 고려한 사회적 구속성 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저작재산권의 사상적 논변으로 적합하다.” (신혜원, 앞의 논문, i면.)

36) 유인이론이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고 해서 자연권론보다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의 타당한 면들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LG Challengers, 앞의 자료.)

37)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

38) 한국저작권위원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common-sense/knowledge-for-netizen/index.do>, 2019년 12월 22일 접속.

그뿐만 아니라, 강의 저작물이 거래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다면 이는 교수자의 연구를 방해할 수 있다. 교수자가 수업 중에 본인의 연구 주제를 언급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닌데, 강의 저작물 거래는 교수자의 연구 주제를 유출할 수 있어 교수자의 아이디어가 도난당할 여지를 만든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자유로운 발언 방해와 연구 주제의 유출 문제는 강의 저작물 매매가 아닌 기록(녹음 및 필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는 기록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통해 그 피해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강의 저작물 매매의 문제점으로 다룰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교수자의 심리적 압박이 기록 행위 그 자체보다 기록된 파일의 유포에 대한 우려에서 온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의 저작물 기록 행위가 그 자체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나 매매 행위의 전제조건이 기록 행위라는 측면에서, 넓은 관점에서는 강의 저작물 기록의 문제점 또한 강의 저작물 매매의 문제점으로 포섭될 수 있다. 따라서, 강의 저작물의 불법거래는 교수자의 효율적인 강의 및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윤리적 차원: 참된 지성의 함양 저해

정종진·최선경·하병학에 따르면 “대학의 주요 역할은 교육과 연구로서, 순수한 학문을 탐구하며 학문 후속세대에게 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공동체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대학 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학문적 교육과 기술의 실질적 훈련을 통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³⁹⁾

이렇게 학문의 정도를 걷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정직’일 것이다. 대학이 단지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만 하는 곳이라면, 사설 학원과 다를 바가 없다. 대학교육은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의 구성원들이 학문과정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인격을 완성하고 발전시키는 곳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학문의 깊이는 인격과 함께 성숙되어야 한다.⁴⁰⁾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단시간에 획득하기 위해 정직한 방법으로 스스로 공부하기보다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에 가담하며 자신의 행동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의 저작물 거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61명 중 45명(74%)이 강의 저작물 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혹은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이를 지속할 의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 지성 함양을 위해 타인의 지적 결과물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을뿐더러, 비윤리의 토대 위에서 쌓은 지식은 결코 참된 지성이 될 수 없다.

4) 사회적 차원: 대학 내 불건전한 문화의 정착과 시민의식의 저해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고파스와 에브리타임에서 강의 저작물 거래 글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파스에 업로드된 2018년 강의 저작물 거래 글은 2017년 대비 70%,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브리타임의 경우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110%,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준법정신이 나날이 저해되는 경향을 고려해봤을 때 학교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39) 정종진·최선경·하병학, 앞의 책, 3면.

40) 정종진·최선경·하병학, 앞의 책, 3면.

취하지 않는다면 강의 저작물 매매는 학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불 건전한 문화는 지성의 상아탑에서 범법자를 다량으로 양성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 지식인의 양 성이라는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를 위협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권 의식이 부재한 학생 들이 저작권 존중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 사회로 진출한다면 이는 거시적으로는 사 회 전체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3. 강의 저작물 매매의 해결방안

1) 학생: 블랙보드에서 저작물 관련 온라인 코스 수강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자 강의 저작물과 관련한 의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이에 블랙보드 내 ‘강의 저작물 온라인 코스’ 개설을 제언한다.

현재 우리 학교는 교내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코스로 개설하여 교내 구성원의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다.

인권센터는 교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 양성평등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2017학년도에는 오프라인 강의로 시행되었고 2018학년도부터는 블랙보드(kulms.korea.ac.kr)에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교육은 2019년 3월 중순 이후 블랙보드에 업데이트되며, 업데이트 상황은 인권센터 홈페이지 및 포털(KUPID)에 공지 됩니다.

한편, 본교는 각 구성원에 따라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이수를 졸업요건,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승진승급 결정사유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운영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⁴¹⁾

‘강의 저작물 온라인 코스’의 기본 골격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그것을 따라 운영한다. ‘강의 저작물 온라인 코스’를 졸업요건으로 지정하여 졸업 전까지 매 학기(1년에 2번) 수강하도록 한다. 온라인 코스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성적 정정 기간 내 성적을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저작권 의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코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유의할 점은 코스의 교육 내용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의 저작물 거래 경험이 있는 61명의 학생 중 33명(54%)은 저작물 매매 행위가 이미 위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코스의 교육 내용은 강의 저작물 거래의 위법성, 저작물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이론적 정보를 넘어서서 저작권 침해 시 학생들이 받게 될 불이익 등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강의 저작물 거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실질적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학교: 강의 저작물 거래 관련 학칙 제정 및 커뮤니티 모니터링

강의 저작물 거래는 피해자인 교수자가 가해자인 학생을 고소하기 곤란해 위법 행위에 대해

41)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 및 운영.

<https://humanrights.korea.ac.kr/hrc/commu/notice2.do?mode=view&articleNo=121057&article.offset=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 2019년 12월 22일 접속.

서 묵인하거나 가벼운 경고를 주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다소 독특한 종류의 범죄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의 저작물 매매 행위에 대해 ‘학내 직접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의 저작물 거래 경험이 있는 61명의 학생 중 41명(68%)이 ‘강의 저작물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학교 교칙이 생긴다면 강의 저작물 거래 행위를 지속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학칙에 ‘강의 저작물 거래 및 거래 시도가 적발될 경우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학생의 성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는 커뮤니티의 강의 저작물 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교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년에 약 5000개 이상⁴²⁾의 거래 글이 업로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자는 고파스, 에브리타임같은 학생 커뮤니티에 접근 권한이 없어 본인의 저작물이 거래되는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 차원에서 각 커뮤니티로부터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강의 저작물 매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교수자에게 매 학기 알릴 필요성이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받은 교수자는 앞서 언급한 학칙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생을 면대면으로 마주하는 유일한 주체는 교수자라는 점에서 교수자가 매매 현황을 인식하는 것은 강의 저작물 매매 근절의 출발점이 된다.

3) 커뮤니티: 강의 저작물 매매 관련 글에 대한 필터링과 신고제도 운영

커뮤니티의 시스템상에서 강의 저작물 거래와 관련한 키워드를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글의 업로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강의’, ‘녹음’, ‘필기’, ‘판매’, ‘구매’, ‘사례’ 등 강의 저작물 매매 글에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단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중 특정 개수 이상의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글은 원천적으로 등록이 차단되는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파스와 에브리타임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기술 도입 및 운영을 위한 학교 측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동 필터링 시스템 내에서는 게시자가 특정 단어를 변용함으로써 본래의 의사 표현은 하면서도 글을 업로드할 수 있으므로 그것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비판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술은 새롭게 나타나는 매매 글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게시물의 업로드를 일차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할 수 없는 글의 경우 ‘인간 관리자’의 분류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커뮤니티 주이용자인 학생들의 누적 신고 횟수에 기반하여 게시글을 자동 삭제 처리하는 신고제도를 제안한다. 학생들의 신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배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강의 저작물 거래 글과 댓글에 대한 신고 횟수가 많은 학생의 커뮤니티 닉네임 앞에는 ‘준법 배지’를, 거래 글 혹은 거래 의사를 표명하는 댓글을 업로드하여 누적 신고 횟수가 많은 학생의 커뮤니티 닉네임 앞에는 ‘경고 배지’를 달아주는 것이다.

‘경고 배지’는 커뮤니티 내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 매매 행위를 어렵게 만든다. 차유리·나은영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낙인(stigma)’은 바람직하지 않은 차이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불명예스러운 특성으로,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공유하는 일종의 사회적 개념”이다. ‘경고 배지’와 같이 “눈에 띄는 특성이나 표시에 기반하여 어떤 사람이 속하는 집단의 범주를 인식하고 그렇게 표시된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

42) 2019년 기준 고파스와 에브리타임의 강의 저작물 매매 글을 합산한 수치

하는 것”을 낙인화(stigmatization) 과정이라고 부른다.⁴³⁾ 이처럼 ‘경고 배지’는 매매 행위를 지속하는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가시화된 불이익을 부과하는 낙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회피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준법 배지’는 일종의 명예 훈장이라는 점에서 매매 글 신고에 대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 ‘준법 배지’는 신고자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법 배지’를 갖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욕망을 촉진함으로써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경고 배지’와 ‘준법 배지’의 유효 기간은 모두 1개월로 하여,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하되 그 기간은 적절하게 설정하여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림 4 > ‘경고 배지’ 예시 운영 방안

물론, 신고제도는 개인의 준법정신을 근본적으로 신장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나 신고제도의 본래 목적은 준법정신의 확립이라기보다는 매매 행위의 근절이며, 준법 의식의 증진은 교육을 통해서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강의 저작물 온라인 코스와 신고제도를 동시에 운영하여 학생들의 의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II. 결론

본고는 강의 녹음본, 필기본 등 강의 저작물이 어문저작물로 분류되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강의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거래하여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위법 행위임을 밝혔다.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와 에브리타임에 업로드된 최근 3개년의 강의 저작물 거래 글을 분석하여 거래 행태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도출했다. 고려대학교 재학생 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의 저작물의 거래 양상을 9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의 합법·위법성 경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거래 건의 95% 이상이 위법 행위에 해당함을 밝혔다.

강의 저작물 매매는 네 가지 차원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강의 저작물 매매는 법적 차원에서 교수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둘째,

43) 차유리·나은영, <TV 드라마 메시지의 낙인 효과>, 《언론정보연구》 49권 1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회, 2012, 181면.

교수자의 발언을 극도로 제한하고 연구 주제를 유출시킬 우려가 있어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교육·학문적 문제를 내포한다. 셋째, 비윤리의 토대 위에 쌓은 지성은 결코 참된 지성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근본 목표를 위협한다. 넷째, 강의 저작물 매매가 학내 불건전한 문화로 굳어져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훗날 저작권 보호 의식이 부재한 사회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강의 저작물 매매 문제는 학생, 학교, 커뮤니티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먼저, 학생은 블랙보드에서 저작물 관련 온라인 코스를 의무적으로 수강함으로써 강의 저작물 매매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고 저작권 보호 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강의 저작물 매매와 관련한 학칙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교수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교수자가 강의 저작물 매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강의 저작물 매매 관련 글을 시스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구비할 뿐만 아니라 열람자에 의한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강의 저작물 매매 글의 범람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최근 3년간의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국내 대학의 강의 저작물 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설문조사의 표본이 76명에 불과하여 교내의 강의 저작물 매매 실태에 정확하게 접근하지 못했다. 더불어, 학교 측에서 학생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지, 커뮤니티 시스템 내 자동 필터링 시스템이 구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제껏 미비하게 다뤄졌던 강의 저작물 매매라는 문제를 조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닐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학술논문

- 김경숙,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재구성 -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륙법계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계간 저작권》 111호(28권 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 김민옥,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13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김병일,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17권, 2013.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 신혜원, <저작권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윤종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Creative Commons License>, 《경희법무대학원 법무잡지》, 2008, 12면.
- 이판구, <대학공개강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적 개선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정종진·최선경·하병학, 《학습윤리가이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3.
- 차유리·나은영, <TV 드라마 메시지의 낙인 효과>, 《언론정보연구》 49권 1호, 서울대학교 언론

정보연구소, 2012.

최상필, <표준교재와 동영상강의의 저작권적 법률관계 -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1398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7권 3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201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4 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 기타 자료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 및 운영.

<https://humanrights.korea.ac.kr/hrc/commu/notice2.do?mode=view&articleNo=121057&article.offset=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 2019년 12월 22일 접속.

곽민경·전남혁 기자, <성행하는 강의 녹음, 영리적 거래 행위는 불법>, 《고대신문》, 2018.11.19.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5472>, 2019년 12월 22일 접속.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2019년 12월 22일 접속.

박수정 기자, <학업에 가려진 위법>, 《중대신문》, 2019.04.15.

<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3025>, 2019년 12월 22일 접속.

최한나 기자, <강의 녹음, 불법이 될 수도 있어>, 《덕성여대신문》, 2014.12.08.

<http://www.dspress.org/news/articleView.html?idxno=5256>, 2020년 1월 20일 접속.

한국저작권위원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common-sense/knowledge-for-netizen/index.do>, 2019년 12월 22일 접속.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형별 자동상담사례.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1s1>, 2019년 11월 01일 검색.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서비스.

https://www.copyright.or.kr/mobile/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jsessionid=sY6o-g3QdT8gWsviDdsEbyPp.copyright_was2?execution=e1s1, 2020년 1월 20일 접속.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이란.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what-the-copyright/definition/index03.do>, 2020년 1월 20일 접속.

LG Challengers, 저작권 사용 지침서 | 저작권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http://www.lgchallengers.com/social/저작권-사용-지침서 | 저작권이-무엇에-쓰는-물건이/](http://www.lgchallengers.com/social/저작권-사용-지침서|저작권이-무엇에-쓰는-물건이/), 2020년 1월 20일 접속.

※ 부록

* 설문지

설문 문항

1. 강의 저작물(필기, 녹음, 필기정리본)을 거래해 본 경험이 있나요? 예 / 아니오
2. 저작권자(교수자)의 동의를 얻고 저작물을 거래했나요? 예 / 아니오
3. 어떤 강의 저작물을 주로 거래하나요? 녹음본 / 필기본 / 필기정리본 / 기타
4. 주로 얼마에 거래했나요? (주관식)
-----원
5. 수업의 종류는 무엇이었나요? 교양 / 전공
6. 강의 저작물에 대한 값은 어떻게 지불했나요? 기프트콘 / 계좌이체 / 기타
7. 강의 저작물은 어떤 경로를 통해 거래하셨나요?
고파스 / 에브리타임 / 기타(오프라인)
8.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강의 저작물 거래는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 불법 행위입니다.
거래 시 이를 알고 계셨나요? 예 / 아니오
- 8-1. 8에 '예'를 선택한 경우) 불법 행위임을 알고도 강의 저작물을 거래한 이유가 무엇인
가요?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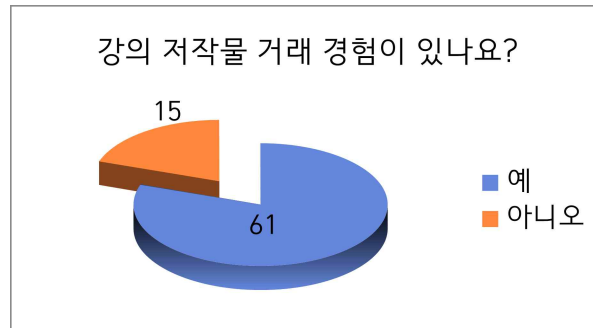
- 8-2. 8에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향후에도 강의 저작물을 거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 아니오
- 8-3. 8-2에 '예'를 선택한 경우) 불법 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강의 저작물을 계속 거래할
의향이 있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관식)

9. 강의 저작물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학교 교칙이 생긴다면, 강의 저작물 거래 행위에 영
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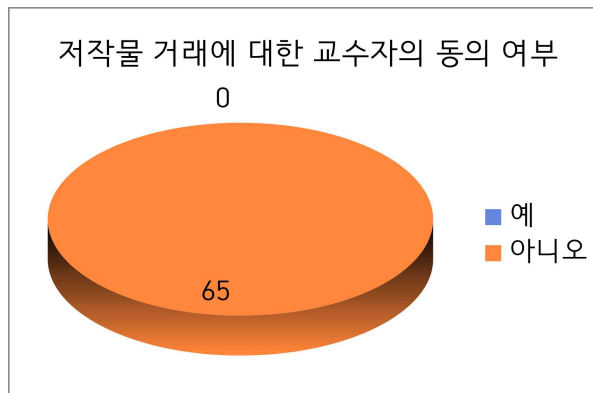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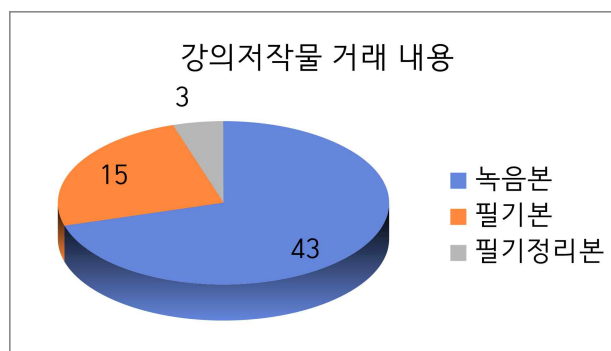
1. 강의 저작물(필기, 녹음, 필기정리본)을 거래해 본 경험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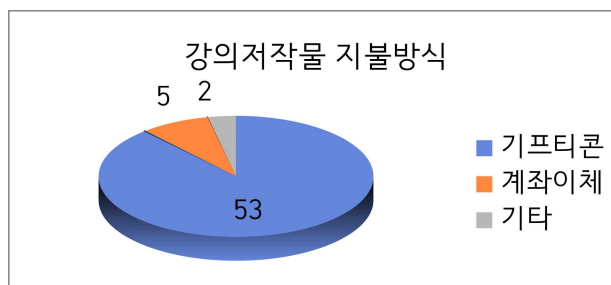
2. 저작권자(교수자)의 동의를 얻고 저작물을 거래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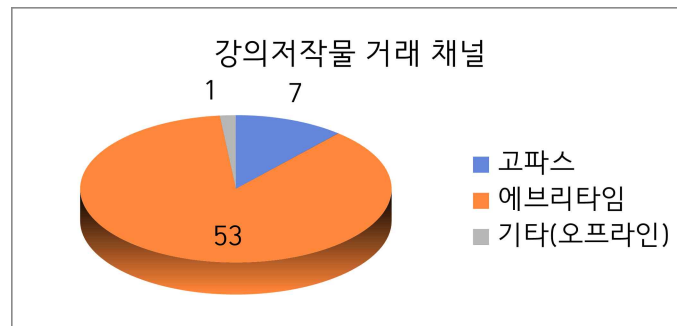
3. 어떤 강의 저작물을 주로 거래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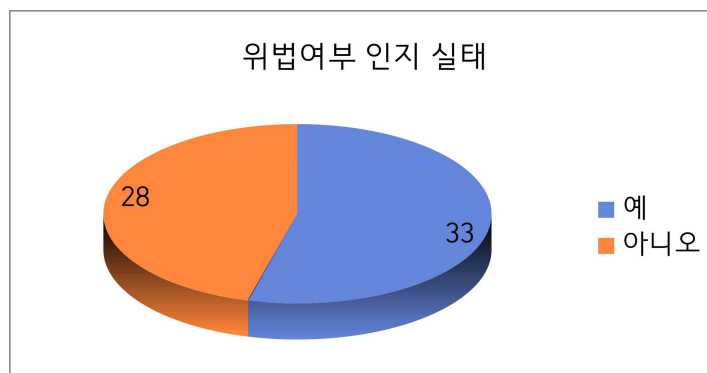
6. 강의 저작물에 대한 값은 어떻게 지불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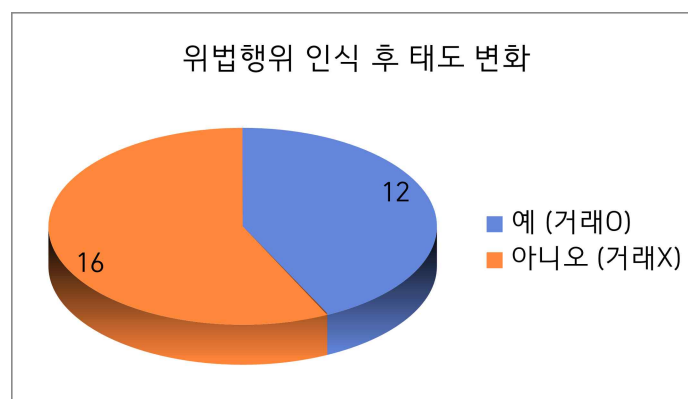
7. 강의 저작물은 어떤 경로를 통해 거래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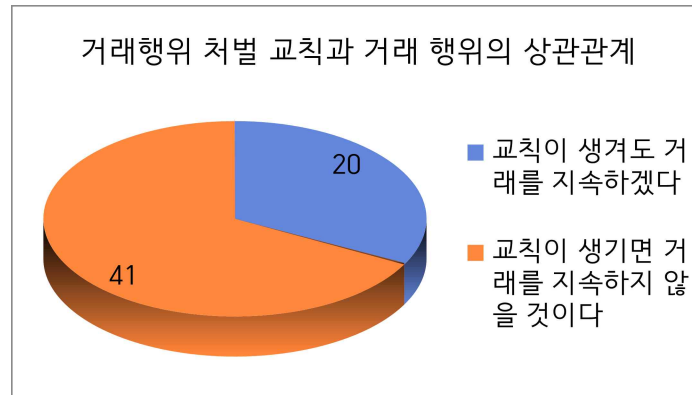
8.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강의 저작물 거래는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 불법 행위입니다. 거래 시 이를 알고 계셨나요?



8-2. 8에 '아니오'를 선택한 28명에 대해)
향후에도 강의 저작물을 거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9. 강의 저작물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학교 교칙이 생긴다면, 강의 저작물 거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문항 4, 8-1, 8-3은 주관식 질문으로 별도의 차트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 문항 5는 문항 4의 연계 질문으로 별도의 차트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 설문동의서

설문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XX학과 X학년 학생으로 2019학년도 2학기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며 '강의 저작물 매매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의 강의 저작물 거래 경험과 저작권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문제들은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경험, 갖고 계신 생각 그대로 문항에 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는 약 5-10분 정도 소요되며, 이외에 연구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작성해주시는 설문지는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저장, 암호화하고 연구가 종료되는 동시에 모든 자료를 폐기하여 개인정보 노출과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은 언제라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기프트콘(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원하시는 분께서는 설문지 마지막에 전화번호를 기입해주십시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2일

XX대학 X학년 XXX 드림

[보고서 부문: 교무처장상]

헌법재판소 정당성 논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규섭(사회학과)

<목 차>

I. 서론	58
II. 헌법재판소 정당성 논란 실태 및 특징	58
1.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위기	58
2. 헌법재판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	59
III.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 비판	61
1. 헌법재판소의 권한 설명 실패	61
2. 헌법재판소의 최고기관화 위험	62
IV. 헌법재판소를 위한 제안 및 실천방안	63
1. 헌법재판소를 위한 새로운 지향	63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보적 관계	63
(2) 제도적 정당성 획득	64
2. 미래의 헌법재판소를 위한 실천방안	65
V. 결론	66
VI. 참고문헌	68

I. 서론

현재 한국 사회에서 헌법재판소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국가보안법 개폐, 대통령 탄핵, 이라크 파병, 양심적 병역거부, 호주제 등 정치·사회·인권·대외관계 핵심 의제들이 전부 헌법적 결정의 문제로 귀결되었다.¹⁾ 그러나 시민들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결정에 완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부터 광장까지 곳곳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에 초점을 맞춘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관점은 민주적 정당성을 헌법재판소에 적용되는 유일한 척도로 상정하기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은 곧 헌법재판소에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해 지금의 권한 수준에 걸맞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한편 현재 지배적인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즉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고찰은 부족해 보인다.

본 글의 목적은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위기를 분석한 후, 민주적 정당성에 치중하여 진행되는 현재의 논의들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의 한계와 위험성을 고찰한다. IV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하고, 미래 헌법재판소의 청사진을 간략하게 그려본다.

II.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논란 실태 및 특징

1.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위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 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3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중립권력을 행사하는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항은 최종적인 국가의사로서 확정되므로, 다른 어떠한 기관의 의사로서도 제약 또는 변경을 가할 수 없다.²⁾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사안에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시민들이 그 권한과 결정에 수긍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즉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87년 출범에서부터 충분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1987년 개헌 협상에 참여했던 개헌특위(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설립취지를 ‘위헌법률심사권을 통한 견제’에서 찾았다. 그들은 정치권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에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률을 만들었을 때 헌법재판만을 담당하는 독립적 사법기관이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³⁾ 헌법재판소 설립

1) 박명림, 「헌법개혁과 민주주의」, 『헌법 다시보기』, 창비, 2007, 67쪽 참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http://www.law.go.kr/lsTrmScListP.do>, 검색날짜: 2019. 01. 09.).

3) 최영해·이명건, 「헌법재판소 탄생은... 1987년 국민항쟁 결과로 만들어져」, 『동아일보』,

취지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 합치는 장차 등장할 새로운 다수로부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위원들은 법관들에게 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맡김으로써 자신들이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헤게모니를 일부 보존할 수 있다고 믿었다.⁴⁾ 이때 그 권한을 대법원에 위임하지 않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위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정치권은 대법원보다 구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독립된 특별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정치 기득권의 이해에 복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출범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표방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가치인 독립성,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고로 헌법재판소는 그 출범에서부터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필요성이 막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충분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2004년 두 차례의 ‘헌법쇼크’ 이후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에 대한 우려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쇼크인 대통령 노무현 탄핵안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의 명운을 장악했으며, 판결을 통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역할을 축소했다. 두 번째 쇼크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고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을 무효화했다. 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감한 사안의 최종결정권을 넘겨받았으나, 미숙한 능력으로 갈등과 국가적 분열의 빌미를 제공했다.⁵⁾ 이에 “헌법재판의 한계 등이 빈번히 논의되며 논란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놓여졌다.”⁶⁾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구성과 권한에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04년 이후에도 굵직한 사건들에서 최종결정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왕왕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으며,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을 상실시켰다. 2016년에는 피청구인 박근혜에 대하여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 지금까지도 전자에 대한 불복의 목소리는 학계에⁷⁾, 후자에 대한 불복의 목소리는 광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리하건대 출범과 함께 시작되어 2004년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위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시민이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결정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은 대부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영역에 대하여 최종결정권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문제시된다.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은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하도록 한다. 이에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는 전원 국민이 직접

2004. 10. 28.

- 4) 차동욱,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정부학연구』12권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6, 173~174쪽 참조.
- 5) 2004년 탄핵심판이 촉발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논란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촉발한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권 논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하였다. 홍윤기, 「헌법개혁과 한국민주주의」, 『헌법 다시보기』, 창비, 2007, 20~27쪽 참조; 정종섭,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법과 사회』30권1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141~143쪽 참조; 강승식, 「憲法國家에서의 最終的 憲法解釋權」, 『공법연구』33집3호, 한국공법학회, 2005, 49~50쪽 참조.
- 6) 권순현,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 『유럽헌법연구』11호, 유럽헌법학회, 2012, 257~258쪽.
- 7)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논의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임지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논총』3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69~387쪽 참조.

선출하는 반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상대적으로 국민과 먼 거리에서 선출된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3인은 대표성이 전혀 없는 사법부에 의해 지명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의기관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수준이 약하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탄핵심판권과 위헌법률심사권을 중심으로 대의기관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충돌이 문제시된다.⁸⁾ 일례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은 대통령과 국회의 결정에 헌법재판소가 가장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건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은 곧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헌법재판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⁹⁾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더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¹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논란은 민주적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위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의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국민근접성’을 요구한다. 곧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방식이 국민 또는 대의기관의 직접적 통제를 받도록 만들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의 사법 엘리트화를 우려하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주장하는 일반적 여론 역시 이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강승식, 정종섭, 권순현의 논의가 돋보인다. 강승식은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지만, 대통령과 의회가 자신들에게 표를 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국민의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¹⁾ 정종섭은 한발 더 나아가 현행 제도가 적합하지 않으며,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최적화된 새로운 제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구의 구성에 사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본질상 정당화하기 어렵다.¹²⁾ 비법관 출신 재판관을 선임하고, 국회의 영향력을 확장하여 헌법재판소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¹³⁾ 권순현은 헌법재판권을 대의기관이 가져야 합당하지만, 단지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에 부여했을 뿐이라고 본다.¹⁴⁾ 따라서 그 역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현재의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¹⁵⁾ 이에 국민의 직접 위임을 통한 구성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차선으로 대의기관만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

한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만을 주제로 논의를 전개하는 허완중은 ‘국민에 의한 지배 정당화’를 요구한다. 그가 보기에 민주적 정당성은 비교기준이 아닌 확인기준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국회보다 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점은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헌법재판권 행사에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뿐이다.¹⁷⁾ 이때 민주적

8) 정종섭, 앞의 글, 141~143쪽 참조; 이부하,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외법논집』42권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12쪽 참조.

9) 차동욱, 앞의 글, 164쪽.

10) 허완중,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헌법학연구』18권3호, 한국헌법학회, 2012, 560~561쪽 참조.

11) 강승식, 앞의 글, 65~66쪽 참조.

12) 정종섭, 「한국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헌법논총』19집, 헌법재판연구원, 2008, 109쪽 참조.

13) 정종섭,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법과 사회』30권1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170~171쪽 참조.

14) 권순현, 앞의 글, 262쪽 참조.

15) 고문현, 「헌법재판소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헌법재판관선출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11권4호, 한국헌법학회, 2005, 383쪽 참조. (권순현, 앞의 글, 265쪽에서 재인용.)

16) 권순현, 앞의 글, 265쪽 참조.

17) 허완중, 앞의 글, 562쪽 참조.

정당성은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으로 나뉜다.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은 헌법에 의한 권한 부여,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임명, 그리고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은 법률에 대한 구속과 국민의 책임추궁 가능성을 통해 얻어진다.¹⁸⁾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에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인적 독립성이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에, 헌법의 추상성과 헌법재판소의 물적 독립성이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로 작용한다.¹⁹⁾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두 민주적 정당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획득하고, 아울러 ‘보충적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비재판관 제도, 비법관 출신 재판관 선임, 구두변론 및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 공개, 종국결정에 대한 논증을 시행해야 한다.²⁰⁾

허완중은 헌법재판소의 국민근접성을 요구하는 논의가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에 치우친 편협한 논의라고 비판한다.²¹⁾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이 비교기준이 아닌 확인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적절하다. 그러나 그는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근접성을 요구하는 논의에 수렴한다. 상술하였듯이 허완중은 우선 헌법재판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과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로 작용하는 헌법의 추상성과 헌법재판소의 물적 독립성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헌법재판의 최종결정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수정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 반면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로 작용하는 헌법재판소의 인적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수정하거나 극복하기 쉽다. 고로 문제는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의 확충으로 축소된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보충적 민주적 정당성을 추가로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네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네 제안 중 결정과정 및 내용 공개와 종국결정에 대한 논증은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예비재판관 제도는 구체적인 재판지침의 변화가 없는 한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지 모연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제안은 비법관 출신 재판관 선임뿐이다. 결과적으로 허완중은 국민근접성을 요구하는 논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두 논의는 모두 법관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선임 과정에서 대의기관의 지배를 강화하고 비법관 출신 재판관을 선임하라고 요구한다. 요컨대 이상으로 검토한 논의들은 헌법재판소의 비민주성을 정당성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민주적 정당성 획득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관점은 민주적 정당성을 헌법재판소에 적용되는 유일한 척도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이라고 하겠다.

Ⅲ.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 비판

1. 헌법재판소의 권한 설명 실패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은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면

18) 위의 글, 572~574쪽 참조.

19) 위의 글, 577~589쪽 참조.

20) 위의 글, 590~593쪽 참조.

21) 위의 글, 561~562쪽 참조; 이부하, 앞의 글, 211쪽 참조. 이부하는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에 대한 허완중의 분석틀을 수용하고 있다.

법재판소에 의한 대의기관 통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대의기관 이상의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획득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자체에 내재한 한계로 인해 필연적인 제약을 받는다.²²⁾ 반면 국민의 직접투표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의회는 국가권력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유일한 척도로 상정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대의기관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깁슨(Gibson) 미국 연방대법관은 *Eakin v. Raub* 판결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에 사법부는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²³⁾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을 따르면 깁슨 연방대법관의 주장에 반론을 전개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모든 국가기관의 정당성을 규정하는 단일한 척도라면,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기관이 전권을 쥐는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폐지와 영국의 의회주권(parliament sovereignty)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된다. 고로 헌법재판소를 존속시키되 그 내부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확충하는 해결책은 본질상 논리적 모순으로 치닫는다.

혹자는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을 채택하더라도 ‘견제’에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확인된다고 반박할 수 있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는 권력분립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을 채택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대의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표상하는 기구라면 헌법재판소가 대의기관을 견제하는 이유와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헌법재판소가 대의기관을 견제하려면 서로 추구하는 규범이 달라야 한다. 특히 헌법은 고도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항상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때 대의기관이 헌법재판소 구성의 전권을 진다면,²⁴⁾ 헌법재판소는 필연적으로 대의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헌법을 해석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대의기관에 의해 구성되고 대의기관처럼 민주적 정당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대의기관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어떤 사항을 견제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2. 헌법재판소의 최고기관화 위험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에는 헌법재판소의 현재 권한에 대한 성찰이 부재한다. 헌법재판의 세 성격을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사안에서 확고한 최종결정권을 지닌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항은 최종적인 국가의사로서 확정되므로, 다른 어떠한 기관의 의사로서도 제약 또는 변경을 가할 수 없다.”²⁵⁾ 둘째 현실에서 헌법과 결부되는 문제는 그 본질상 정치적이다. 셋째 헌법은 고도로 추상적이기에 항상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헌법재판의 이러한 성격은 헌법재판소가 필연적으로 실질상 입법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다.²⁶⁾ 헌법재판소의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대의기관의 권한을 견제하는 걸 넘어 침범할 수

22) 허완중, 앞의 글, 577~589쪽 참조.

23) *Eakin v. Raub*, 12 S.&R. 330, 1825. (강휘원, 「미국의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심사권: John Marshall의 법적 사상과 정치적 기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7권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387쪽에서 재인용.)

24) 위의 글, 265쪽 참조.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http://www.law.go.kr/lsTrmScListP.do>, 검색날짜: 2019. 01. 09.).

26) Chr. Möllers, Legalität, Legitimität und Legitimatio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Schönberger/Jestaedt/Lepsius/Möllers, Das entgrenzte Gericht, 2011, S. 281 (324). (이부하, 앞의 글, 212쪽에서 재인용.)

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논란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대의기관을 통제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촉발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 침범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지점에서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은 헌법재판소에게 현재 권한에 적합한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대의기관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으니 그에 걸맞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주자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이를 수용하면 헌법재판소는 ‘대의기관 위의 대의기관’이 되고 만다. 나아가 그 결정을 번복할 수도 없으며 국민의 선출권과 책임추궁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대의기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관은 민주주의적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귀족회의나 독재국가의 명실공한 최고기관에 가깝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분립은 하나의 국가기관이 최고기관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이 현실에 적용된다면 본인들이 꿈꾸는 ‘민주주의적’ 헌법재판소를 매개로 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Ⅳ. 헌법재판소를 위한 제안 및 실천방안

1. 헌법재판소를 위한 새로운 지향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보적 관계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의 대안을 구상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치이다. 한편 하나의 가치를 통해 다른 가치를 설명해 내려는 시도는 순환논법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²⁷⁾ 실제로 앞서 보았듯이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은 민주적 정당성을 단일 척도로 상징하는 결과 헌법재판소가 대의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논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태욱은 제3의 관점인 ‘자유주의(liberalism)’를 매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고민한다. 정태욱은 미국 헌정사, 특히 노예제 폐지의 헌정사에서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를 발굴한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오류가능성과 교정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체제의 기본원리로 삼는다. 이에 가치의 실현을 소극적으로 추구하고, 억압과 차별에 취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보적 관계를 맺는다. 즉 자신과 상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쌍방의 ‘방어적 교정’을 통해 이를 수정해 나간다.²⁸⁾

자유주의 개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확정할 수 있다. 대의기관 즉 국민주권 또는 민주주의 또한 오류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의기관은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민주적 정당성을 단일 척도로 상징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이 최고기관으로 거듭나 삼권분립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의기관은 법치주의에 의한 교정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제한된 상황에서 대의기관을 통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27) 정태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한 시론: 미국의 노예제 폐지의 헌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49권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28쪽 참조.

28) 위의 글, 128~130쪽, 147~151쪽 참조.

교정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 영역의 대표자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즉, 사안에 맞추어 “소수의 자연법적 외침이 다수 여론의 미흡함을 교정”²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대의기관의 대척점에서 법치주의 영역의 대표자로 존재해야 한다. 이때 우선 헌법재판소의 권한 행사가 법치주의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은 상당 부분 유효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이라는 허구적 근거를 창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 법안을 무효화했다.³⁰⁾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권한을 민주주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고 시도했거나, 민주주의 영역에 대한 방어적 교정을 넘어 공격적 교정을 시도한 대목으로 읽힌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은 이 지점에서 헌법재판소를 이러한 권한 행사에 적합한 기관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및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보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법치주의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그 내부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2) 제도적 정당성 획득

민주주의의 영역과 법치주의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려면,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과 구분되는 법치주의 영역의 프레임이 필요하다. 차동욱은 사법부의 정당성을 완벽한 전문성이 보장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에서 찾는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논리를 세워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획득되는 ‘제도적 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을 제시한다.³¹⁾ 제도적 정당성은 헌법재판소를 이해하고 규범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훌륭한 프레임이 된다. 차동욱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들이 득세할 위험이 있는 정치현실에서 사법적 전문성에 입각한 법적 결정과정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공익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도라고 주장한다.³²⁾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주의적 교정이라는 통찰과 일맥상통한다. 즉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가 다수에 편파적으로 작동할 때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제도적 정당성 프레임은 헌법재판소에 보다 분명한 규범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전문성에 토대를 두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제도적 정당성을 획득했을 때 수긍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정치문제 혹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가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교정에 나서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의 사법적 개입은 승자와 패자를 가를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의 성격상 불복자와 비난자를 양성할 뿐이다.³³⁾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무조건 수긍을 요구하는 측과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것을 요구하는 측이 대립했다.³⁴⁾ 이는 정치가 본질상 논리보다는 선택과 결정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치 영역을 논리를 통해 재단하려고 한다면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할 수 없음은 물론 제도적 정당성의 훼손을 초래하게 된다. 고로 민주주의의 영역에 대한

29) 위의 글, 149쪽.

30) 홍윤기, 앞의 글, 23~25쪽 참조.

31) 차동욱, 앞의 글, 184~187쪽 참조.

32) 위의 글, 186~187쪽 참조.

33) 차동욱, 앞의 글, 183~184쪽 참조.

34) 강승식, 앞의 글, 49~50쪽 참조.

일반 원칙은 사법자제(judicial restraint)가 되어야 한다. 반면 민주주의의 결함을 교정하는 데에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법부의 대의기관 통제를 거부한 김슨 연방대법관의 주장은 다수의 전제에 반하여 소수를 보호하는 민주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오늘날 비판받고 있다.³⁵⁾ 김슨 연방대법관은 민주주의의 결함을 고려하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자를 핍박할 때 민주주의는 주권재민과 평등의 원칙을 스스로 파괴한다. 이러한 경우, 사법부가 개입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논리를 관철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물론 민주주의 자체도 보존할 수 있다. 권순현은 비록 다른 결론에 이르지만, 이 지점에서 상당한 통찰을 보인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종속되어 현재 세대의 대표자인 대의기관의 대척점에 서는 이유가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한다.³⁶⁾ 이처럼 때로는 오히려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획득에 기여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유, 인종권, 참정권 등 인권 분야에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견인하고 시민들에게 사법부의 권한과 결정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³⁷⁾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치주의의 영역은 민주주의가 소외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30년 동안 제도적 정당성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시작한 이래 1기 그리고 2기 헌법재판소를 거치며 내려온 결정들의 성향을 보면 민주화의 이행기에는 ‘탈국가주의’를 충실히 시행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공고화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핵심 사안인 ‘가치의 재분배’를 두고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³⁸⁾ 곧 민주주의 공고화 시기에 이르러 공익을 확정할 권한을 쥐었지만,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민주주의에서 배제된 소수자를 포용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한국에서도 제도적 정당성에 기반을 두고 미래 헌법재판소를 구상해야 한다. 바로 그때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결정에 수긍하고, 헌법재판소는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래의 헌법재판소를 위한 실천방안

헌법재판소는 제도적 정당성을 획득하여 현재의 정당성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두 실천방안이 유효할 것이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법관 출신으로 엄격하게 한정 지어 사법적 전문성을 고취하고, 그 한계 안에서만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법관 출신 참여시키는 방안은³⁹⁾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전문성을 저해해 제도적 정당성을 훼손한다. 헌법재판소가 법관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관들이 헌법을 가장 잘 해석하기 때문이 아니다. 법관들이 때로는 대중의 관점에 어긋나더라도 가장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헌법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엄격하게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전문성에 가까워지며 자신에게 적합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의 추상성을 고려하여 법관의 한계 내부에서는 최대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관 내부에서의 다양성은 다양한 소수 관점을 수용한 법치주의적 해석

35) 강휘원, 앞의 글, 387쪽 참조.

36) 권순현, 앞의 글, 262쪽 참조.

37) 강휘원, 앞의 글, 391쪽 참조.

38) 차동욱, 앞의 글, 174쪽 참조. 차동욱은 민주화 이행기의 핵심 과제를 ‘자유화(liberalization)’로 개념화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정태욱의 자유주의 개념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맥락을 고려하여 ‘탈국가주의’로 새롭게 개념화했다.

39) 정종섭, 앞의 글, 170~171쪽 참조; 허완중, 앞의 글, 592쪽 참조.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효성 있는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사법적 전문성과 다양성을 함께 고취하기 위해 고려해볼 만하다.

둘째,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의 ‘계몽된 공론(enlightened public opinion)’을 헌법재판소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리프만은 기본적으로 법이 ‘인민의 의지(the will of the people)’를 통해 감지되어야 한다고 이해한다. 공론(public opinion)은 인민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단서이지만, 공론 내부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중론(mass opinion) 또한 존재한다.⁴⁰⁾ 따라서 법관은 정치적 지혜(political wisdom)를 발휘하여 공론을 수용하고 그 내부에서 계몽된 공론을 감지해야 한다.⁴¹⁾ 계몽된 공론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보적 관계에 가장 적합한 규범이다. 사법부 입장에서 공론의 수용은 민주적 법치주의, 즉 법치주의의에 대한 민주주의적 교정을 의미한다. 이로써 “다수 시민의 민주적 법담론이 기성관념에 젖기 쉬운 법조엘리트의 한계를 교정”⁴²⁾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론 안에서 중론을 분리하고 계몽된 공론을 감지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주의적 교정의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로부터 소외된 소수자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공론과는 다른 계몽된 공론을 발굴해야 대중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불행히도 헌법재판소가 끝내 제도적 정당성의 획득에 실패한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할 때 그 권한을 의회에 돌려주기보다 대법원에 위임해야 차라리 합당하다. 그러나 아직은 헌법재판소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2004년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우선 짚었다. 이어서 파면은 대통령의 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더는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판시했다.⁴³⁾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영역을 존중하되 부정의가 현실적으로 심각한 경우에만 방어적으로 교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더하여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로부터 배제된 소외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두 결정에서 일반적 정치문제 또는 정책적 사안에서의 자체적 해결을 존중하고, 억압과 차별에 취약한 이들 우선적 고려하는 사법부의 면모를 보였다. 고로 헌법재판소가 제도적 정당성의 초임기에 들어갔다고 하겠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굳건한 제도적 정당성 위에서 현실의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하기를, 그리고 그리하여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결정을 수긍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V. 결론

본 글은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위기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40) 김대영, 「법과 정치: 리프만의 정치평론에 나타나는 보통법적 관점」, 『한국정치학회』 37권1호, 한국정치학회, 2003, 38~40쪽 참조.

41) Lippmann Walter, 「The Function of the Supreme Court」, 『Today and Tomorrow』, 1965, 292쪽. (김대영, 앞의 글, 41쪽에서 재인용.)

42) 정태욱, 앞의 글, 149쪽.

43) 헌법재판소 결정 2004헌나1 전원재판부, 2004. 5. 14.; 정종섭, 앞의 글, 166~167쪽 참조.



‘제도적 정당성 프레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출범과 함께 파종된 정당성 위기는 2004년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주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위기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우선 헌법재판소 권한의 원인과 범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논리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최고기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 한계를 지닌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주의적 교정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 영역을 표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정당성을 지향해야 한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완벽한 전문성이 보장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시민들이 그 권한과 결정에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을 법관 출신으로 한정하되 그 내부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리프만의 계몽된 공론을 규범으로 삼아 제도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정당성은 끊임없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입증하여 차차 쌓아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그만큼 제도적 정당성 획득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실천방안은 끝없는 구체화와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본 글의 내용과 필자의 한계를 넘기에, 본 글은 제도적 정당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간략히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 따라서 보다 발전된 실천방안의 구상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보다 발전된 실천방안의 구상은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특수성을 반영해 적실성을 갖추는 실천방안’ 사이의 균형을 잡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걸어 정당한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때 본 글이 헌법재판소의 진정한 가치를 마주하고 옳은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

Ⅵ. 참고문헌

1. 논문

- 강승식, 「憲法國家에서의 最終的 憲法解釋權」, 『공법연구』33집3호, 한국공법학회, 2005.
- 강휘원, 「미국의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심사권: John Marshall의 법적 사상과 정치적 기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7권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 고문현, 「헌법재판소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헌법재판관선출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11권4호, 한국헌법학회, 2005.
- 권순현,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 『유럽헌법연구』11호, 유럽헌법학회, 2012.
- 김대영, 「법과 정치: 리프만의 정치평론에 나타나는 보통법적 관점」, 『한국정치학회』37권1호, 한국정치학회, 2003.
- 박명림, 「헌법개혁과 민주주의」, 『헌법 다시보기』, 창비, 2007.
- 이부하,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외법논집』42권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임지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논총』3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전학선, 「프랑스에서의 헌법의 수호」, 『헌법학연구』14권3호, 한국헌법학회, 2008.
- 정태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한 시론: 미국의 노예제 폐지의 헌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49권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정종섭,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법과 사회』30권1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 정종섭, 「한국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헌법논총』19집, 헌법재판연구원, 2008.
- 차동욱,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정부학연구』12권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6.
- 허완중,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 『고려법학』55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허완중,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헌법학연구』18권3호, 한국헌법학회, 2012.
- 홍윤기, 「헌법개혁과 한국민주주의」, 『헌법 다시보기』, 창비, 2007.
- Lippmann Walter, 「The Function of the Supreme Court」, 『Today and Tomorrow』, 1965.

2. 기사

- 최영해·이명건, 「헌법재판소 탄생은... 1987년 국민항쟁 결과로 만들어져」, 『동아일보』, 2004. 10. 28.

3. 판례

- 헌법재판소 결정 2004헌나1 전원재판부, 2004. 5. 14.

4. 기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http://www.law.go.kr/lsTrmScListP.do>).

[보고서 부문: 교양교육원장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지성(知性)을 중심으로 바라본 고려대학교 SW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정경민(노어노문학과)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4차 산업혁명과 SW 교육

- 1) 4차 산업혁명과 지성
- 2) SW 교육의 필요성과 도입

2. 고려대학교 SW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1) 공통교양: 정보적 사고
- 2) 핵심교양

3. 고려대학교 SW 교육 문제의 해결 방안

- 1) 모범 사례: 성균관대학교
- 2) 해결 방안

III.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고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지성을 함양하기 위한 SW(Software)¹⁾ 교육의 중요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현행 SW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문제 제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단순히 많은 양의 정보를 중요시했던 기존의 지식정보사회는 정보와 지능이 결합한 지능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교육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의 교육은 정보 전달이 주목적이 되었다면, 현재는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해결하는 지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핵심에는 다양한 정보의 처리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처럼 SW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지성을 함양하기 위해 필수적이기에, 학생의 지성 함양을 추구하는 기관인 대학 역시 SW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SW 교육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인식하고 교과 과정에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다. 선진국의 SW 교육 열풍은 국내에도 영향을 주어 국내 SW 중심대학 사업 등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2030 비전을 세우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SW 교육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의 SW 교육이 과연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신입생 공통과목인 ‘정보적 사고’에서 시험 대신 시행되는 온라인 퀴즈의 정답은 강의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으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의 지성인을 배양하는 대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교 SW 교육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이를 본고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3. 연구 대상

본고에서 다룰 SW 교육은 컴퓨터 관련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을 의미한다. 관련 전공자는 교과 과정 내에서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접할 수 있으므로 대상을 비전공자 대상 SW 교육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대상에는 먼저 고려대학교의 SW 교육이 해당한다. 본교가 지향하는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통교양 ‘정보적 사고’와 핵심교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학교의 SW 교육을 연구한다. 그 이유는 우선 성균관대학교가 국내 SW 중심대학 사업에서 고려대학교와 함께 1차 대상으로 선발된 8개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해당 대학은 비전공자를 위한 SW 필수교양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SW 교육의 모범 사례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4. 연구 방법론

우선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2개 대학의 SW 교육 현황을 조

1) 소프트웨어(Software)란 컴퓨터의 기계 부분을 의미하는 유형(有形)의 하드웨어(Hardware)와 반대되는 용어로 컴퓨터를 운영하는 무형(無形)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하 Software를 모두 SW라 칭한다.

사한다. 이를 위해 대학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 등의 자료를 참고한다. 특히 각각의 대학에 설립된 SW 중심대학 사업단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참조할 것이다. 동시에 SW 교육과 관련된 문헌 조사를 함께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SW 교육의 필요성, 국내 SW 교육의 현황, 그리고 국내 SW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룬 문헌을 참조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본론 1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지성, 그리고 SW 교육의 필요성과 도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본론 2에서는 고려대학교 SW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론 3에서는 대학 SW 교육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본론 2에서 분석한 국내 SW 교육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SW 교육

1-1. 4차 산업혁명과 지성

과학과 첨단기술의 물결이 파도치는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간단히 말해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일컫는다. 3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지식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분야에서 고도화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정보들이 서로 융합되어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사회를 의미한다.¹⁾ 이러한 형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보와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사회가 바로 지능정보사회이다. 이를 대표하는 기술의 예시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인공지능 등이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교육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전 사회에서는 한 분야에 대해 깊고 방대한 지식을 쌓은 전문가가 사회의 지성인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핸드폰 위로 몇 번 손가락을 움직이기만 해도 방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에, 단순히 많은 양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요구되는 지성은 이처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과 더불어 이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역량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다.

1-2. SW 교육의 필요성과 도입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성 함양의 수단으로써 SW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SW 교육이란 Software 교육, 즉 컴퓨터를 동작시키고 이를 통해 특정한 일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SW 교육은 과거의 단순한 문서 작업에서 나아가 파이썬, JAVA, C언어와 같은 컴퓨터 언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코딩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SW 교육은 단순히 컴퓨터 역량을 익히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력과 데이터 분석능력, 나아가 문제해결력을 함께 증진하는 교육이다.²⁾ 이러한

1)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http://dic.mk.co.kr/cp/pop/index.php>, 검색일시 2019.12.06.

역량은 앞서 언급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지성과 부합하므로 SW 교육은 지성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공교육과정에 컴퓨팅을 포함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SW 교육을 창조경제의 실현 도구로 키운다’라는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부터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³⁾ 그리고 이러한 동향이 대학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는 SW 중심대학 사업이 있다. 고려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의 소개에 따르면 이는 2015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체제와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지역사회와 SW 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조 인재를 길러 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⁴⁾ 그 1차 대상으로는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를 포함한 8개교가 선정되었으며, 그 후로 꾸준히 늘어나 현재에는 40여 개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사업에 포함된 학교에서는 SW 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에게 SW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고려대학교 SW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고려대학교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2030 Vision을 설정하고 SW 중심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SW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가 설정한 전체적인 SW 교육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고려대학교 SW 교육 과정

본론 2에서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공통교양, 핵심교양 두 부분에 집중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통교양이나 핵심교양과 달리, 입학 전 캠프, 방학특강, 선택 교양 등의 교육 프로그램은 선택적 사항이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⁵⁾

2) 김경규, <정보과학적 사고 기반의 SW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0면.

3) 전용주·김태영, <국내의 동향 분석을 통한 SW교육의 이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8(2), 한국컴퓨터 교육학회, 2014.8, 137면에서 재인용.

4) 고려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 <https://helloworld.korea.ac.kr/>, 검색일시 2019.11.07.

5) 물론 ‘핵심교양’ 역시 그 안에서 원하는 영역과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 교양과 달리 강

2-1. 공통교양: 정보적 사고

(1) 교육 현황

SW 교육과 관련된 고려대학교의 공통교양에는 ‘정보적 사고’가 있다. 공통교양이란 고려대학교의 재학생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양과목을 의미하며, 본교의 자유·정의·진리, 글쓰기, 1학년 세미나 등의 과목이 이에 해당한다. 고려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의 소개에 따르면 ‘정보적 사고’는 전공 계열과 상관없이, 컴퓨터의 범용성을 기반으로 CS(Computer Science)의 기본적인 내용과 프로그래밍의 이용법을 다룬다. 이를 통해 컴퓨팅의 이해와 활용 능력, 정보 활용의 실천력, 정보사회에 참여하는 태도 등을 함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사회에 더욱 광범위하게 응용될 정보기술의 확산에도 당황하지 않고 맞서나갈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⁶⁾

‘정보적 사고’는 일반적인 교양과목과 구별되는 독특한 수업 방식과 평가방법을 지니고 있다. 본 과목은 총 15주 차의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매 차시 2~3문항의 객관식 퀴즈를 통해 학습 결과를 확인한다. 그러나 강의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기한이 매주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5강, 6~11강, 12~15강으로 나뉘어 부분당 한 달 정도의 이수 기한이 정해져 있다. 또한, 실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기 내 8회의 오프라인 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회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 ‘정보적 사고’의 평가 방식은 Pass/Non-Pass(PNP)로 출석 점수 40점과 퀴즈 6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패스할 수 있으며, 출석은 오프라인 특강 1회 참석 여부로 평가된다. 이처럼 ‘정보적 사고’는 온라인 강의 위주의 수업과 P-NP 평가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컴퓨팅사고력의 배양이라는 ‘정보적 사고’의 학습 목표를 이루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온라인 강의의 구성과 진행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온라인 강의는 일반적인 강의실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실습보다는 이론 교육이 위주가 된다. 실제로 ‘정보적 사고’의 15개 강의 중 3개를 제외한 모든 강의는 이론을 다루고 있으며, 이 3개의 강의조차 학습자가 영상을 보고 직접 실습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오프라인 강의 역시 대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뿐더러,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인해 실습이 짧고 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온라인 강의 위주로 진행되는 ‘정보적 사고’의 수업 방식은 이론에 치우친 구성과 학습 검증 수단의 결여로 인해 효과적인 SW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정보적 사고’의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평가 방식에 있다. 학습자의 참여도와 성실도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온라인 강좌의 문제점은 엄격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지만, 오히려 본 교양과목의 평가 방식은 해당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우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하는 P-NP 방식에서 출석이 60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오프라인 특강 1회만 무사히 참석한다면 60점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40점 만점의 퀴즈에서 10점만 받더라도

제성이 있고 선택의 폭이 매우 좁으며, SW 교육과 관련된 교양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고려대상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6) 고려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 <https://helloworld.korea.ac.kr/>, 검색일시 2019.11.07.

라도 통과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퀴즈는 한 강좌당 3문항의 사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영상을 하나도 보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친구와 답을 공유하여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다. 대학교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의 게시판만 보더라도 손쉽게 사람들이 올려둔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교내 공통교양인 ‘정보적 사고’는 오프라인 강의에 한 번만 참여한다면, 온라인 강의를 전혀 듣지 않고도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사실상 오프라인 강의의 출석도 수업 후 제공되는 구글 폼 링크만 작성하면 출석이 되기 때문에 수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링크만 작성해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보적 사고’는 느슨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온라인 위주 수업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는커녕 더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2-2. 핵심교양

(1) 교육 현황

SW 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교내 핵심교양에도 개설되어 있다. 핵심교양은 세계의 문화, 역사의 탐구, 윤리와 사상, 문학과 예술, 사회의 이해, 과학과 기술, 정량적 사고 등 7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려대학교 재학생이라면 7개의 영역 중 반드시 3개 이상의 영역을 선택하여 영역 내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에 따르면 핵심교양은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의 교과 과정도 변화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반영하여 최초 개설 이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⁷⁾ 본교에서 SW 관련 핵심교양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본교 핵심교양에는 총 15개의 SW 관련 강의를 개설되어 있다. 그 예시로는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 ‘양적 유전학’, ‘인문 사회학을 위한 수학’, ‘하이퍼텍스트와 계산 가능성’, ‘컴퓨팅사고력과 빅데이터 분석’, ‘뇌 영상의 이해와 활용’, ‘생활 속의 생물학’ 등의 과목이 있다.⁸⁾ 이처럼 본교의 SW 교육은 단순한 컴퓨터 역량을 기르는 데서 나아가 수학, 생물학, 유전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여기서 컴퓨팅 사고란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절한 사고방식, 즉 문제 상황의 핵심 원리를 찾고 이를 재구성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⁹⁾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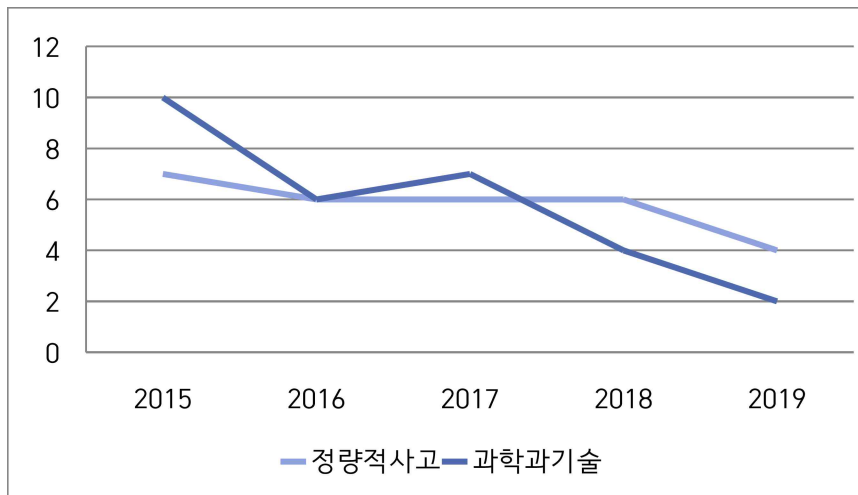
아래 두 개의 표는 SW 중심대학 사업이 시작되었던 2015년부터 2019년 2학기 현재까지 교내 핵심교양에 개설된 SW 관련 과목의 수와 구체적인 강의 개설 현황을 보여준다.¹⁰⁾

7)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ge.korea.ac.kr/ge/index.do>, 검색일시 2019.11.10.

8) 고려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 <https://helloworld.korea.ac.kr/>, 검색일시 2019.11.10.

9)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검색일시 2019.11.10.

10) SW 관련 교양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15개의 과목으로 한정한다. 또한, 이 과목들은 모두 핵심교양의 ‘과학과 기술’ 또는 ‘정량적 사고’ 분야에 해당하므로 표에서는 해당 두 분야만 다루기로 한다.



<표 1> 2015-2019 고려대학교 SW 관련 핵심교양 개설 과목 수

	1학기		2학기
2015	정량적 사고	인문사회학을 위한 수학 하이퍼텍스트와 계산 가능성	인문사회학을 위한 수학 하이퍼텍스트와 계산 가능성 양적 유전학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빅데이터 분석과 해석
	과학과 기술	생활 속의 생물학 뇌 영상의 이해와 활용	생활 속의 생물학 정보보호의 이해 뇌 영상의 이해와 활용 암호학의 이해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 과학기술과 창업가정신 실험의 과학 효율적 데이터 분석 기법
2016	정량적 사고	인문사회학을 위한 수학 하이퍼텍스트와 계산 가능성	인문사회학을 위한 수학 하이퍼텍스트와 계산 가능성 양적 유전학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과학과 기술	생활 속의 생물학 뇌 영상의 이해와 활용	생활 속의 생물학 정보보호의 이해 암호학의 이해 실험의 과학
2017	정량적 사고	인문사회학을 위한 수학	인문사회학을 위한 수학

		하이퍼텍스트와 계산 가능성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하이퍼텍스트와 계산 가능성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과학과 기술	생활 속의 생물학 기계학습의 이해와 응용 실험의 과학 컴퓨팅사고력과 일상의 빅데이터	생활 속의 생물학 뇌 영상의 이해와 활용 암호학의 이해
2018	정량적 사고	인문사회학을 위한 수학 하이퍼텍스트와 계산 가능성	인문사회학을 위한 수학 하이퍼텍스트와 계산 가능성 양적 유전학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과학과 기술	생활 속의 생물학	생활 속의 생물학 암호학의 이해 실험의 과학
2019	정량적 사고	하이퍼텍스트와 계산 가능성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하이퍼텍스트와 계산 가능성 양적 유전학
	과학과 기술	생활 속의 생물학	생활 속의 생물학

<표 2> 2015~2019 고려대학교 핵심교양 내 SW 관련 교양 개설 현황

교내 SW 관련 핵심교양의 첫 번째 문제점은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점점 강의 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실제로 SW 중심대학사업이 시작되었던 2015년에는 ‘정량적 사고’ 분야에서 7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10개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며,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정량적 사고’ 분야에서 4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2개의 과목만이 개설되었다. 이처럼 갈수록 SW 교육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본교의 SW 관련 핵심교양의 과목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과목 개설의 유동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표2를 보면 15개의 SW 관련 강의 중 고정적으로 개설되어 온 과목에는 ‘생활 속의 생물학’과 ‘하이퍼텍스트와 계산 가능성’ 두 과목뿐이다. 그 외의 과목들은 개설 여부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강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생기더라도 다음 학기에 듣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 ‘과학기술과 창업가정신’, ‘효율적 데이터 분석 기법’, ‘빅데이터 분석과 해석’, ‘컴퓨팅사고력과 빅데이터 분석’, ‘기계학습의 이해와 활용’ 등 6개의 과목은 표에서 다루고 있는 10학기 중 오직 한 학기에만 개설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고려대학교 SW 교육 문제의 해결 방안

3-1. 모범 사례: 성균관대학교

SW 교육의 국내 모범 사례로는 성균관대학교가 있다. 성균관대학교의 SW 교육 과정도 고려대학교와 유사하게 공통교양과 그 외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1) 공통교양

성균관대학교가 비전공자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SW 기초교육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필수교양이 있다. 첫 번째 과목은 ‘컴퓨팅사고와 SW 코딩’이다. 성균 SW 교육원 홈페이지의 정보에 따르면 해당 과목은 컴퓨팅사고력의 주요 핵심개념을 순차적 단계에 활용하여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과목은 ‘문제해결과 알고리즘’으로 문제 해결 절차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고 이를 프로그래밍 언어나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수업이다.¹¹⁾ 이 수업들은 모두 정규 수업과 계절학기 모두 고정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두 수업은 모두 충분한 실습과 소규모 분반 운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해당 과목들은 먼저 이론을 배운 이후 다양한 문제해결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수업을 교사나 강사, 혹은 실습 조교가 소규모 분반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도도 함께 제고시키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학생이 실습 중에 질문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성균 SW 교육원에 따르면 ‘문제해결과 알고리즘’ 수업의 경우 학문 분야별로 교육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실습내용을 흥미롭게 구성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심도를 높인다. 이때 실습내용은 이야기로 제시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선수지식과 경험,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¹²⁾

(2) 그 외 교양

성균관대학교는 앞으로 모든 학생이 전공과 무관하게 소프트웨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성균융합인재 인증 프로그램’이다. 그중 ‘소프트웨어소양 인증트랙’은 학교에서 지정한 SW 관련 교양과목 중 24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는 성균관대학교의 필수 졸업요건 중 하나인 ‘창의품’의 취득을 인정해준다.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창의품’은 IT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 필수 졸업요건이다.¹³⁾ 앞서 언급한 ‘소프트웨어소양 인증트랙’은 해당 졸업요건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필수교양이 아니더라도 SW 관련 교양을 이수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특히 이는 본교의 필수 교양인 ‘정보적 사고’와 달리 강제성이 없고 학생 스스로 이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자율성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성균관대학교는 앞으로 모든 수업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는 모든 전공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넣고 강의 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 AI 등의 소프트웨어를 교육 과정이나 교육방식에 접목하는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교수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¹⁴⁾ 이는 학생들이 SW 기술에 직접 관련된 교양을 듣지 않더라도, 본인의 전공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11) 성균SW교육원, <http://ssen.skku.edu/index.do>, 검색일시 2019.11.13.

12) 성균SW교육원, <http://ssen.skku.edu/index.do>, 검색일시 2019.11.13.

13) 성균관대학교, <https://www.skku.edu/skku/>, 검색일시 2019.12.19.

14) 김연주, <儒學 전공자도 AI 활용 능력 갖추게 할 것>, 《조선일보》, 2019.2.20.

3-2. 해결 방안

(1) 공통교양

앞서 분석한 본교 공통교양 ‘정보적 사고’의 문제점에는 이론 위주의 수업 방식과 허술한 평가 방식이 있었다. 성균관대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프라인 특강의 수강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정보적 사고’의 수업 내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프라인 특강이지만, 수백 명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실습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심지어 자리가 부족하여 일부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문제도 발생했다. 따라서 분반을 소규모로 나누어 운영한다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교육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실습 문제를 제공해야 한다. 이론에 치우친 강의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론을 학습한 후에 심화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해 학습의 능률도 떨어진다. 따라서 ‘정보적 사고’는 이론보다 실습을 위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온라인 강의에서 실습을 다루는 강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자유정의진리’ 과목의 온라인 강의와 같이 90% 이상 시청해야 점수가 인정되도록 설정한다면 학생들이 강의를 듣지 않고 퀴즈를 푸는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하지만 강의를 틀어놓고 주의 깊게 시청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 차시 진행하는 퀴즈의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퀴즈를 다양화하여 무작위로 배정되도록 하거나 직접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의 과정과 결과값을 서술하도록 하는 주관식 퀴즈를 적용한다면 교육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2) 핵심교양

우선 본교 SW 관련 핵심교양은 수업이 점점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적은 교육 시수는 자칫 수박 겉핥기식의 일회성 체험에 그칠 수 있으며, 부족한 교육 시수에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만 강조된다면 무리한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 낼 것이다.¹⁵⁾ 따라서 본교 핵심교양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의 수 확대와 강의의 고정적인 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강사법 등의 문제로 인해 본교의 강의 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SW 교육의 시수만 늘리거나 유지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간접적으로 SW 교육을 접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방안은 성균관대학교의 ‘소프트웨어교양 인증트랙’과 같이 현재 있는 교양과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본교는 핵심교양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사실 핵심교양 내부에서 어떠한 교양과목을 선택하는지는 본인의 자유이다. 따라서 SW 관련 교양이 아무리 많이, 그리고 자주 개설된다고 해도 학생들의 이수율이 저조하다면 효율적인 SW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필수교양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SW 관련 교양을 수강하게끔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성균관대학교의 제도는 SW 관련 교양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처럼 완전한 강제력을 지니지 않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학생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본교의 SW 관련 교양을 더 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5) 김다운, <해외사례와 비교를 통한 국내 SW 교육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36면.

다음 방안으로는 다른 교양에서 간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의 인터뷰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IT를 활용하면 교육 내용과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학과에 IT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특정 수학 공식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학생들 흥미도 이끌 수 있다. 유학(儒學)과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 대학에 정도전 관련 고서적이 166권 있다. 그 내용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할 때 하이퍼링크를 직접 삽입할 수도 있다. 인문계 학생도 데이터 과학 등 소프트웨어 능력을 갖추면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¹⁶⁾

이처럼 SW 기술은 다른 과목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SW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인 컴퓨팅사고력 역시 직접적인 컴퓨터 역량보다는 알고리즘 과정을 통한 문제해결력의 배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SW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면, 간접적으로 SW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본고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함에 따라 증가한 SW(Software)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의 SW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특히 본고의 SW 교육을 이수 의무성이 높은 공통교양과 핵심교양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후, SW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사례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연구에 따르면 SW 교육은 단순한 컴퓨터 역량에서 나아가 알고리즘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팅사고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미래 지성인을 양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의 현행 SW 교육은 이론 위주 수업과 실습의 부족, 허술한 평가 방식, 그리고 SW 관련 강의 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의 SW 교육과 달리 실습 위주의 수업과 소규모 분반 운영 등의 장점이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사례를 참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 SW 교육의 수강 인원 감축과 평가 방식의 변화, 그리고 간접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타 과목 활용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본고의 연구는 고려대학교의 모든 SW 교육이 아닌 비전공자의 필수교양, 핵심교양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점점 증가할 SW 교육의 중요성에 대비하여 본고 SW 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측면에 관해서는 속히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본고의 SW 교육이 미래 지성인 양성을 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6) 김연주, <儒學 전공자도 AI 활용 능력 갖추게 할 것>, 《조선일보》, 2019.2.20.

참고문헌

- 김경규, 〈정보과학적 사고 기반의 SW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다운, 〈해외사례와 비교를 통한 국내 SW 교육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연주, 〈儒學 전공자도 AI 활용 능력 갖추게 할 것〉, 《조선일보》, 2019.2.20.
- 전용주·김태영,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한 SW교육의 이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8(2),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4.8.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ge.korea.ac.kr/ge/index.do>.
- 고려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 <https://helloworld.korea.ac.kr/>.
-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http://dic.mk.co.kr/cp/pop/index.php>.
- 성균관대학교, <https://www.skku.edu/skku/>.
- 성균SW교육원, <http://ssen.skku.edu/index.do>.
-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보고서 부문: 교양교육원장상]

“쌈 타다”라는 신조어 분석과 “쌈” 문화 유행의 원인 고찰

한동엽(경영학과)

<목 차>

1. 서론
 - (1) 연구 목적
 - (2)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 본론
 - (1) “쌈”이란 무엇인가?
 - (2) 쌈 문화 유행의 이유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1) 연구 목적

언어에는 그 언어를 향유하는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그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쌀을 주식으로 삼아온 우리나라의 한국어에는 쌀과 관련된 어휘가 매우 풍부하다. 수확되기 이전의 쌀은 “벼”로, 수확이 끝난 쌀은 “쌀”로, 조리가 된 쌀은 “밥”으로 표현할뿐더러 쌀을 재배하는 밭을 지칭하는 “논”이라는 단어까지 존재한다. 이와 상반되게, 쌀을 주식으로 삼지 않은 영미권의 영어에는 벼, 쌀, 밥을 모두 “rice”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일반적 생활상에서 눈을 밀접하게 접하는 에스키모의 이누이트어에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20여 종이 넘게 존재한다.¹⁾ 이러한 예시는 한 공동체의 집체적 경험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화가 그 공동체의 언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어휘를 분석하는 일은 우리 공동체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조어를 분석하는 일은 현대 우리 사회를 고찰하는 데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신조어는 사회, 물질적 변동에 의해 신개념이 등장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표현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탄생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²⁾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어에 존재해온 어휘들과는 달리, 신조어는 최근 일어난 사회적 변동에 의한 필요로 새로이 만들어진 말인 것이다. 따라서, 신조어를 분석하는 일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난 변동과 그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신조어는 주로 새로 보급된 인터넷, SNS 환경에서 생성되고, 이 환경에 비교적 친화적이며 신조어 사용에 거부감이 크지 않은 청년 세대에 의해 향유된다.³⁾ 그러므로 신조어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른 세대와 청년 세대를 분리하여, 청년 세대만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회변동을 중점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신조어에 대한 탐구가 학술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소외된 청년 세대를 조망함으로써 청년 세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이어나가고, 특히 신조어 분석을 통한 청년 세대 이해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든다.

최근 통용되는 신조어 중 “썸타다”라는 단어는 특히 의미심장하다. 연인 관계도 아니면서, 친구 관계도 아닌 관계, 연인으로 발전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순식간에 관계가 단절해도 이상하지 않은 “썸타는” 관계는 최근 청년 세대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썸타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 이전 한국어의 어휘 중 이와 유사한 뜻을 가진 어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외국어의 사례에서도 “썸타다”와 동일한 성격을 가졌으며, 비밀비재하게 사용되는 어휘는 찾을 수 없었다.⁴⁾ 사랑이라는 감정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 본성이라는 점에서 사랑에 관한 “썸타다”라는 어휘가 우리나라 청년세대에서만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썸타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우리나라만의, 우리나라 청년세대만의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1) 권연진, 「언어상대성 가설에 대한 재조명」, 『인문과학연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2) 김광해, 「어휘론」, 『국어학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993.

3) 2017년 잡코리아 설문결과 연령별로는 20대 75.7%, 30대 63.4%, 40대 이상 59.4%로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신조어를 사용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4) 이정규, 「썸을 탄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조어 “썸타다”의 적용조건 분석」, 『철학적분석』, 한국분석철학회, 2019, 63쪽.

정리하자면, 본고는 먼저 특수성을 갖고 있는 신조어 “썸타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실제적으로 “썸을 타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한 뒤, 청년 세대에 유행하는 “썸문화”의 근저에 있는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난 사회 변동과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썸, 더 넓게 조망하자면 청년 세대의 연애 문화에 대한 학술적 탐구는 미비하지만, 먼저 소비자본주의와 청년 세대의 연애 문화 간의 관계를 조망하려는 시도가 있다. 소비자본주의는 미디어를 통해 선물을 주고받는 이벤트, 기념일 문화를 창조해 연애에서의 소비를 강요하고 있으며(김현경, 2003), 이러한 소비자본주의 하에서 청년 세대는 연애 대상과의 관계가 아닌, 연애에서의 소비를 통해 연애를 평가한다는 것이다(윤영준,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소비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사회적 변동이 청년 세대 연애 문화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좋은 분석을 보여주며, 자본주의라는 흐름이 사회 전반과 세대 문화에 어떻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하지만 연구 전반이 소비라는 한 가지 행위 양식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청년의 연애문화 전반을 조망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젠더 차이와 그로 인한 연애 당사자들의 심리적 경향성에 주목하는 흐름이 있다. 강진영, 정태연(2001)은 남성들은 지속적인 연애 감정을 느끼기 위해 연애를 하지만, 여성들은 연애 상태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애를 한다고 말한다. 변혜정(2010)은 청년들의 연애는 일종의 ‘자기계발’ 과정이며 남성은 연애 그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를 맺지만, 여성은 친밀감을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를 맺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젠더 간의 차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연애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해설을 내놓지만,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에야 나타난, “썸 타다”라는 단어를 의미론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썸 타다라는 단어가 최근 청년 연애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어휘 중 하나이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더 확장된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정규, 2019). 이 연구는 현재 청년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연애문화를 지칭할 때 쓰이던 “썸 타다”라는 신조어 그 자체를 하나의 어젠다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하지만 연구자 본인이 인정했듯이⁵⁾, 실제 청년 문화에서 “썸 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으며, 아직 “썸 타다”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논리학적 관점에서만 신조어 “썸 타다”를 분석하면 실제 청년 간에 이루어지는 연애 문화와는 동떨어진 결론을 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썸 타다”라는 신조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재 청년 연애 문화의 향유자인 대학생들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다. 또한 “썸 타다”라는 신조어의 의미적 분석을 넘어, “썸 타다”의 실제적 의미가 내포하는 함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청년 세대 문화의 변화와 그 근저에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조망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연애행위와 썸을 탄 경험이 있는 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

5) 이정규, 「썸을 탄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조어 “썸타다”의 적용조건 분석」, 『철학적분석』, 한국분석철학회, 2019, 75쪽.

로 면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썸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썸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썸과 연애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썸이나 연애가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의 공통 질문을 이용해 일대일 면접을 진행했다. 대상자가 경험한 “썸 타다”는 무엇인지, “썸 타다”가 불러 일으킨 감정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시간은 개인당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연구 사례로 식사를 한 끼 대접하였다. 면접 대상자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남성, 20세, 원 거주지 부산, 썸 경험 2회, 연애 경험 1회.

사례2 여성, 20세, 원 거주지 대구, 썸 경험 4회, 연애 경험 2회.

사례3 여성, 22세, 원 거주지 서울, 썸 경험 5회, 연애 경험 1회.

사례4 남성, 21세, 원 거주지 대전, 썸 경험 3회, 연애 경험 3회.

사례5 남성, 22세, 원 거주지 목포, 썸 경험 3회, 연애 경험 2회.

2. 본론

(1) “썸”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청년 세대에서 썸 문화가 유행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썸 타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엄밀하게 규정해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세간에 유행했던 노래 가사처럼, 썸은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와의 관계로, 그 자체가 모호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어휘의 완전무결한 뜻을 정의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나는 “썸”이라는 단어를 단번에 규정하기보다, “썸”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와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요소를 찾아 “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는 언어적 범주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썸”을 “썸”이게 만드는 핵심적인 특징들을 지목하고자 한다. 또한, “썸”이라는 단어는 통상 “타다”라는 동사와 결합해 “썸 타다”라는 술어로 기능하므로, 이제부터 “썸 타다”라는 어휘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썸 타다”라는 단어의 뜻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그 어원의 의미이다. 신조어 “썸 타다”가 정확히 어떤 뿌리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영어 “some”이라는 단어와 한국어 “타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어휘로 보인다. 영어 “some”이라는 단어는 “약간의”라는 뜻으로, 뒤따라오는 명사가 “많지 않지만 없지도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많지 않지만 없지도 않게 존재한다”라는 말은 논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이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썸 타다 라는 동사는 뒤따르는 명사를 수식하는 “some”뒤에 명사가 오지 않고 바로 동사가 합성되었으므로, 썸 타다라는 단어 안에는 썸과 타다 사이에 “것”- 영어로 치자면 “thing” -을 뜻하는 명사가 표기상 생략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썸 타다라는 단어에서의 타다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썸 타다에서 타다라는 단어가 “불에 타다”나 “자동차에 타다”라는 뜻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절이나 분위기, 간지럼을 타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여기서의 “타다”는 “느낀다”라는 단어와 매우 흡사한 의미를 가지므로, “썸타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

을 느낀다”라는 범주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주 1 : “썸타다” $\subset$ “어떤 것을 느낀다”

하지만 이 범주는 지나치게 방대하다. 내가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춥다는 것을 느낀다고 해서 “나는 썸타다”라고 말할 수 없다. 먼저 “썸”의 근원지가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위를 불러일으키는 명확한 상대가 없어도 추위를 탈 수는 있지만, 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대도 없이 썸을 탈 수는 없다. 썸은 근원지 없이 그저 느껴지는 느낌인 ‘춥다’와는 다르게 그 근원지가 ‘상대방’으로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것을 느낀다”라는 종전의 범주는 “상대로부터 어떤 것을 느낀다”의 범주로 좁혀진다.

범주 2 : “썸타다” $\subset$ “상대로부터 어떤 것을 느낀다”

추위를 느꼈다고 “나는 썸타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가 더 있다. 추위와 썸은 전혀 다른 종류의 느낌이기 때문이다. “썸”이라는 느낌은 분명히 연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애정이다. 따라서 범주 2에서의 “어떤 것”은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으로 특정할 수 있다.

범주 3 : “썸타다” $\subset$ “상대로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

상술한대로 “썸”은 분명히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이지만, 연인 간의 사랑과는 다른 단어이다. 바로 이 지점, 연인 간의 사랑과 흡사하면서도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썸타다”라는 단어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의미의 범주를 더 좁힐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주 3에 쓰인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이 무엇인지 더 내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유사하다’라는 말 안에는 양자 간에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양자 간에 많은 공통점과 소수의 차이점이 있을 때 우리는 둘이 ‘유사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썸을 탈 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면, “썸타다”와 연인 간의 사랑 사이에는 일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안에 “썸타다”라는 단어의 특수성이 있을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썸타다”와 연인 간의 사랑을 비교하며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썸타다”를 설명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징이자 연인 간의 사랑과 “썸타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상호성’이다. “썸타다”의 의미를 분석하는 기본적 뼈대로 “무엇을 느낀다”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썸타다”가 실현되는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썸타다”에서의 주관적 감정에 집중해 논의를 전개했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썸타다”라는 진술이 참이 되려면 “썸을 타는” 개인이 특정한 주관적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황 역시 알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개인이 주관적 감정을 느끼는 알맞은 상황은 ‘상호성’이 충족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연애하다”의 진술이 참이 되려면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 역시 내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상호성’이 충족된 상황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의 양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질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A가 B에게 연인 간의 사랑을 느끼지만 B가 A에게 우정을 느낀다면 이를 두고 “A와 B가 연애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썸타다” 역시 ‘상호성’이 충족된 상황 하에서만 이루어진다. 상호성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면, 이는 “썸타다”가 아닌 “ 짹사랑하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썸타다”에 있어 ‘상호성’이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있다. 어떤 상황을 “썸타다”에 있어 ‘상호성’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인가?

우선 위의 예시에서 나온 “연애하다”에서의 상호성을 대입해보자. “연애하다”에서의 상호성은 두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질적으로 같은 감정을 느끼는 상태이다. 이를 “썸타다”에 대한 범주 3의 진술에 대입하면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상대방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가 된다. 아직 더 배제해야 할 부분이 많은 진술이지만, 지금까지의 맥락에서 이 진술이 “썸타다”에 포함되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범주 4 :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상대방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 $\subset$ “썸타다” $\subset$ “상당로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

“연애하다”에서의 상호성을 “썸타다”에 그대로 대입해 “썸타다”에 포함되는 범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썸타다”가 참이 되려면 반드시 상대가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실제로 느껴야 하는가?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상대방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가 “썸타다”에 포함되지만 그 역도 성립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상대가 진실로 그 감정을 느끼는지 느끼지 않는지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썸타는” 과정은 굉장히 모호하게 진행된다.

그런 게 제일 답답하죠. 애가 먼저 연락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진짜로 애도 나한테 비슷한 걸 느끼는 게 맞나? 싶을 때. 애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보여도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확인이 안 될 때 답답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썸인 것 같아요.(남, 사례1)

그냥 보통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좀 보이고, 나도 상대방한테 관심이 좀 있다 싶으면 썸타다고 표현을 하죠.(여, 사례3)

이게 사실 서로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썸타는게 아니니까, 그 마음이 쉽게 바뀔 수도 있는거고. 막 확실하게 마음이 있어야만 썸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서로 하면 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손을 잡는다던가. 그냥, 좀 간지러운 내용으로 잡자기 전에 전화를 한다던가. 그런거요. (남, 사례5)

면접자들의 응답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대부분의 경우 “썸타다”의 과정은 상대가 진실로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썸타다”의 과정이 곧 상대가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는 과정이라면, “썸타다”가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상대방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에 포함될 수는 없다. “썸타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혹은 “느끼지 않는” 실재와 그 실재를 인식하는 과정 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썸타다”가 포함될 수 있는 범주에 적용되는 ‘상호성’은 “연애하다”에 사용된 ‘상호성’과는 차이가 있다. 모든 “썸타다”를 포함하려면 ‘상호성’은 상대방이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실제로 느끼지 않더라도,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야한다. 그러므로 “썸타다”는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범주 5 :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상대방으로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 $\subset$ “썸타다” $\subset$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

또한, “썸을 타는” 당사자들은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상호 감정 확인의 교환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상호적으로 직, 간접적인 감정 표현을 통해 일견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이 진짜로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상호 감정 확인 행위’는 단순 괴리를 좁히기 위한 도구적 행위를 넘어, 괴리가 좁혀진 이후에도 요구되는 “썸타다”의 필수조건으로 여겨진다. ‘상호 감정 확인 행위’ 자체, 혹은 이를 통해 얻는 충족감이 “썸타다”의 목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냥 뭐, 연애에서 받을 수 있는 설렘 같은 걸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느끼는 게 (썸의) 목적 아닐까요? 썸타면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걸 조금씩 표현을 하니까 거기서 설렘을 느끼는 것 같아요.(남, 사례 5)

(썸의 목적은) 그냥 좋은 거? 뭐라 해야 되지, 서로 연락하고 감정 표현하고 하면서 느끼는 좋은 느낌? 그렇게 목적인 것 같아요.(여, 사례3)

이처럼 면접자들은 썸의 목적으로 썸을 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 감정 확인 행위와 이를 통한 감정적 충족감을 들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상호 감정 확인 행위와 이를 통한 감정적 충족감은 “썸타다”의 목적이자 필수 요소인 썸이다.

범주 6 :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상대방으로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며 상호 감정 확인 행위를 통해 감정적 충족감을 얻는다” $\subset$ “썸타다” $\subset$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며 상호 감정 확인 행위를 통해 감정적 충족감을 얻는다”

“썸타다”와 연인 간의 사랑 사이의 공통점을 통해 “썸타다”의 특징, ‘상호성이 적용되는 상황’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범주를 더 좁힐 수 있었다. 한편, “썸타다”와 연인 간의 사랑 사이의 차이점 역시 “썸타다”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신조어는 신개념에 대한 표현의 필요성으로 인해 생겨나므로,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썸”이라는 신조어가 새로 등장해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이유가 곧 썸이라는 신조어와 연

인 간의 사랑이라는 단어 사이의 차이점에 있기 때문이다.

썸과 연인 간의 사랑을 구분해주는 요소로는 ‘고백’이라는 의례의 여부와 이에 따른 관계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관계에 비해 썸이라는 관계는 그 불확실성에 있어서 훨씬 불안정하다. 연인 간의 사랑은 ‘고백’이라는 의례를 수행했지만, 썸은 그 의례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썸과 연애의 차이 중)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썸은 좀 타다가 상대가 별로 맘에 안 들면 쉽게 끝낼 수 있고, 끝내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연애는 안 그렇잖아요. 썸은 좀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뭔가 받아들여지는 그 무게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썸은 타다가 끝내도 다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는데 사귀다가 깨지면 다들 뭔가 큰일로 여기죠. 일단 사귀기로 한거니까.. (남, 사례 4)

자기 맘대로 끝낼 수 있냐 없냐? 음.. 썸은 눈에 보이는게 아니니까 그냥 좀 타다가도 별로면 맘대로 끝낼 수 있는데 연애는 이미 고백을 받거나 한거니까 맘대로 끝내기가 어렵죠 사실. (연애는) 맘대로 끝내면 그럴거면 고백을 왜 받았냐고 욕도 먹고.. (여, 사례 2)

면접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현대 한국의 청년 문화에서 고백과 그에 대한 승낙이라는 행위로 수행되는 연인 관계의 선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이는 ‘나는 이 사람과 깊은 관계에 있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둘째로, ‘이 깊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상대방과의 약속이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연인 간의 사랑을 썸보다 안정적인 관계로 만든다.

‘나는 이 사람과 깊은 관계에 있다’라는 사회적 선언은 그 관계가 좌절되었을 때의 사회적 손실로 귀결된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은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관계를 포기하기보다는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 깊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상대방과의 약속은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내적 책임을 갖게 만든다. 반면 “우리는 썸을 탄다”라는 사회적 선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썸탄다”에는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유인이 크지 않으며,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내적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썸탄다”에서는 고백 수행으로 인한 관계의 확실성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선 범주의 ‘일종의’를 ‘관계의 불확실성이 비교적 큰’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범주에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라는 진술을 추가할 수 있다.

범주 7 :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관계의 불확실성이 비교적 큰 상황에서,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상대로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며 상호 감정 확인 행위를 통해 감정적 충족감을 얻는다” ⊂ “썸탄다” ⊂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관계의 불확실성이 비교적 큰 상황에서,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로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며 상호 감정 확인 행위를 통해 감정적 충족감을 얻는다”

이제 “썸탄다”와 “연인 간의 사랑”간의 구분이 거의 확실히 이루어지는 범주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다. 논리적 추론과 면접법 조사를 활용해 신조어 “썸탄다”가 포함되는 범주를 충분히 좁힐 수 있었다. 이렇게 얻은 범주 7에서 도출할 수 있는 “썸탄다”를 “썸탄다”이게 만드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고백의 미수행에 의한 관계의 불확실성
2. 상대방이 내게 느끼는 이성적인 호감의 실재와 인식의 괴리
3.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감정 확인 행위와 이에 따른 감정적 충족감 제공

이제부터 나는 도출해낸 이 “썸타다”만의 특징들을 활용해 현대 한국 청년 세대에서 왜 “썸” 문화가 유행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썸타다”가 신조어로 청년세대에 유행하고, 새로운 연애편화로서 유행하게 된 것은 “썸타다”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이 청년세대의 요구를 잘 대변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썸타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 청년세대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가 어떤 환경에서 생성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썸” 문화 유행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썸” 문화 유행의 원인

1) 고백의 미수행에 의한 관계의 불확실성

썸타다의 의미 분석으로 얻어낸 첫 번째 특징, ‘고백의 미수행’은 어떤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을까? 가장 직관적이고 당연한 대답은, “고백행위 기피”라는 요구이다. 고백이 수행되지 않아야만 한다는 특징을 가진 썸 문화가 청년 세대에서 향유된다는 것은, 청년 세대가 고백을 원치 않는다는 뜻과 같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는 왜 고백을 기피할까? 상술했듯이, 연애에는 있고 썸에는 없는 ‘고백’이라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연애에는 관계의 확실성을, 썸에는 관계의 불확실성을 배가시킨다. 따라서 청년 세대가 고백 기피를 욕망한다면 고백 기피의 필연적 결과인 관계의 불확실성 역시 욕망한다고 하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은 상호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실정보다는 불확실성 쪽으로 견인하고자 할까?

이에 대해 답하려면 관계의 불확실성이 가진 속성을 더 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연인 간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설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설명은 스테른버그의 ‘삼각형 모형’일 것이다.⁶⁾ 스테른버그에 의하면 진정한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는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이다. 친밀감은 상대방을 가깝고 편하게 여기는 정도를 의미한다. 열정은 상대방에게 몰입하는 뜨거움의 정도를 의미하고, 헌신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다는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스테른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으로 고백을 보면, 고백은 개인적 맹세와 사회적 선언의 형식을 통해 세 가지 요소 중 헌신을 크게 강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고백을 통해 연인관계에 돌입했을 때 친밀감과 열정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이는 고백에 의한 연인관계 형성에 따른 부산물이지 고백 자체의 주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백을 기피하는 청년세대는 사랑의 세 가지 요소 중 헌신을 기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테른버그는 헌신이 결여된 사랑을 ‘낭만적 사랑’으로 지칭했으므로 고백을 기피하는 청년 세대는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는 셈이다.

하지만 스테른버그가 지적했듯, 사랑의 온전한 형태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된 ‘온전한 사랑’이며 다른 사랑의 형태보다 온전한 사랑 하에서 인간은 가장 큰 충족감을 느낄 수

6) 전한열 외, 「Sternberg 사랑의 삼각이론으로 본 대학생의 연애행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2016.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온전한 사랑 대신 낭만적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은, 온전한 사랑의 충족감이라는 헌신 추구의 유인보다 외부적 환경에 의한 헌신 포기의 유인이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청년 세대에게 헌신 포기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외부적 환경으로는 탈주술화를 들 수 있다. 막스 베버가 정의한 ‘탈주술화’라는 개념은 ‘불가측한 힘’에 대한 불신과 모든 대상이 원칙적으로 ‘가측성’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⁷⁾ 전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없지만 예측가능한’ 사회였다. 마을 단위로 구성되는 유교적 공동체는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효, 충과 같은 가치가 가득 차있었지만, 개인의 앞날은 바로 그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의해 예측이 가능했다. 반면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현대는 이성의 힘으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해체했고 신비함을 인과 관계의 형틀에 묶어 처형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사랑에도 두 가지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첫 번째로, 탈주술화에 의해 예측이 불가능해진 사랑은 불안한 것이 되었다. 이는 울리히 벡의 저서 <사랑은 지독한 혼란>⁸⁾의 모녀간의 대화 장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도대체 엄마는 왜 그런 남자랑 결혼하신 거죠?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진짜 삶은 놓쳐 버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그런 거창한 질문은 하지 않았단다. 넌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힘들지도 않나?”

소설에서 드러나듯이 현대 이전에 사랑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사랑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가족의 형성이었고, 공동체의 인도를 따라 걷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측이 가능했다. 사랑하는 상대는 상대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보증했고, 내가 상대에게 헌신을 기울이는 만큼 상대 역시 나에게 헌신을 기울이는 것이 예측 가능했다. 따라서 사랑에 헌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불안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전통적 가족 규범은 사랑에 헌신을 다하기를 강요했다.

반면 현대 시대에 사랑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사랑은 공동체의 지도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개인의 선택은 아무도 담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상대는 보증이 되지 않은 상대이고, 내가 상대에게 헌신을 기울여도 상대가 나에게 헌신을 기울이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 따라서 사랑에 헌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지극히 불안한 일이 되었다.

두 번째로, 탈주술화는 사랑의 숭고함을 벗겨냈다. 모든 것을 이성으로 재단하는 탈주술화에 의해, 사랑은 더 이상 종교적, 신화적 의미를 갖는 숭고한 신비함이 아닌 설명과 분석의 대상 중 하나로 전락했다. 백마 탄 왕자를 만나 완벽한 사랑을 가꾸는 서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사랑은 효용을 얻는 기술의 일종이 되었다. 지극한 헌신을 다하는 사랑은 더 이상 숭고한 것이 아닌 손발이 오글거리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7) 원동훈, 「세계, 예술, 꿈의 탈주술화」, 『현상학과 현대철학』, 한국현상학회, 2006.

8) 울리히 벡, 엘리자베스 벡, 『사랑은 지독한 혼란』, 강수영 역, 새물결, 1999.

2). 상대방이 내게 느끼는 이성적인 호감의 실재와 인식의 괴리

상대방이 내게 느끼는 이성적인 호감의 실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썸의 특징이 청년 세대의 욕구를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견 이해하기 힘들다. 상대방이 나에게 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싶다는 욕망은 직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썸의 관계에서는, 상대방 역시 내가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성적인 호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썸의 특징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측면보다는 상대가 나에게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청년 세대의 욕구와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로가 서로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썸의 특징은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들이기 싫다”라는 욕구로 이어진다.

이 욕구는 사랑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시대적 변화에 기인한다. 마이클 센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⁹⁾에서 지적했듯, 현대 문명의 발전을 견인한 시장 경제는 점차 사회 전반에 그 손을 뻗치고 있다. 인간의 장기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새치기는 돈만 내면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이 되었으며, 준법의 의무마저도 벌금을 대체하는 요금만 내면 저버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되었다. 경제 체제에 국한되었던 시장 논리가 이젠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을 지배하는 논리가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랑 역시 시장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랑의 시장화는 상술한 사랑의 탈주술화에 기인한다. 사랑이 탈주술화되자, 사랑은 숭고한 정신적 활동이 아닌 ‘합리적 개인의 합리적 선택’ 행위가 되었다. 사랑은 이제 일종의 선택 기술이다. 사회학자 에바 일루즈의 말을 빌리자면, “선호도에 따라 좋아하는 단계를 정한 다음 모순 없이 행동하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된 것이다.¹⁰⁾ 사랑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무릎 꿇은 셈이다.

사랑의 대상을 고르는 것이 일종의 ‘소비’가 된다면, 그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된다. 주변의 평가로 객관화되는 ‘좋은 조건’을 가진 대상을 고르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징표가 되는 것이고, 이는 사랑의 성공 여부와 사회적 능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는다. 사랑의 성공은 그 사람의 사회적 능력을 증명하고, 사랑의 실패는 그 사람의 사회적 능력을 부정한다. 사랑의 성공 여부와 사회적 능력의 결탁은 또 다시 사랑의 성공 여부와 자존감의 결탁을 이끈다. 특히 사랑은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소비’하기를 희망한 사람이 날 ‘소비’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의 사회적 능력이 상대의 그것보다 떨어짐을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능력의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비교는 자존감의 붕괴로 직결된다. 여기에 어떤 종류의 실패를 겪든 느끼기 마련인 개인적 좌절감도 더해진다. 이렇게 사랑은 자존감을 걸고 하는 도박이 되었고, 사랑의 실패는 자존감의 파괴를 뜻하게 되었다. 결국 사랑의 합리화가 사랑이 비합리적이라는 논증을 하게 된 셈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속마음을 들이기 싫다”라는 청년층의 욕구가 “속마음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썸의 특징과 맞물린다. 썸은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라기보다는, 익명 경매 거래에 가깝다. 내가 ‘소비’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표할 수는 있지만 그 관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개인적 층위, 사회적 층위, 그리고 두 사람 간의 관계의 층위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강점을 갖는다.

먼저 개인적 층위에서 보았을 때, 썸이라는 익명 경매 거래는 실패하더라도 개인에게

9) 마이클 센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안기순 역, 와이즈베리, 2012.

10) 박형신, 「감정자본주의와 사랑: 에바 일루즈의 짝찾기의 감정사회학」, 동양사회사상학회, 2014.

주는 좌절감이 작다. 개인은 모호하고 간접적으로 소비를 욕망했을 뿐, 고백이라는 의식을 통해 “나는 저 사람을 소비하고 싶다”라는 자기 인식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썸을 실패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욕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백을 할 정도로 크게 욕망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 식의 자기방어기제와 자기합리화를 통해 심리적 좌절감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 만약 타인에게도 그 ‘속마음’이 들켰다면, 타인이 자신이 가졌던 ‘속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방어기제가 지속적인 공격을 받게 되지만 썸은 “속마음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방어기제 역시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간접적인 소비 시도의 실패는 직접적인 소비 시도 실패에 비해 개인에게 훨씬 더 적은 좌절감을 선사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층위에서 보았을 때, 썸이라는 익명 경매 시장에서는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즉 주변의 나의 소비 시도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소비 시도가 고백이라는 사회적 선언이 아닌 관심 표현이라는 개인적 결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변인이 나의 소비 시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썸에서는 소비에 실패하더라도 소비 실패에 따른 사회적 능력 결여의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자존감의 붕괴를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세 번째로 두 사람 간의 관계의 층위에서 보았을 때는 상대가 나의 소비 욕구를 정확히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의 소비 욕구를 정확히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 역시 작용한다. 사랑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거래 결렬 원인은 “한 쪽의 사회적 능력 결여로 인한 선택의 기피”만이 아니다. 주머니 사정이나 바쁜 스케줄 같은 개인적인 사정이 작용할 수도 있고, 가족의 압박과 같은 다른 종류의 원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사랑의 거래가 결렬되더라도 그 원인이 나의 사회적 능력 결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에 받는 상처가 거의 없다. 썸에서는 내가 상대방의 소비 욕구가 어땠는지, 다시 말해 나의 사회적 능력이 결여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소비가 실패하더라도 그 원인이 나의 사회적 능력 결여에 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이 역시 소비 실패가 자존감에 주는 피해를 경감하는데 일조한다.

3)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감정 확인 행위와 이에 따른 감정적 충족감 제공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감정 확인 행위와 이에 따른 감정적 충족감 제공이라는 썸의 특징은 직관적으로 청년세대의 요구와 연결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성적인 호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그 자체로 감정적 충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현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금까지 나온 썸의 특징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상호 감정 확인 행위와 이에 따른 감정적 충족감’이라는 특징은 연애에도 해당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다.

앞서서 언급된 특징들은 모두 썸과 연애를 구분하는 특징이었다. 예컨대, 연애에는 고백이 필요하지만 썸에는 고백이 필요하지 않다. 연애는 상호간 갖고 있는 감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썸의 경우에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썸과 연애 모두에서 지속적인 상호 감정 확인 행위와 감정적 충족감 제공은 이루어진다. 몇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썸과 연애를 유사한 관계로 묶고 있는 것이 이 공통점인 셈이다.

그렇다면, 지속적 상호 감정 확인 행위와 이에 따른 충족감에 대한 요구는 비단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에게서만 발견되는 요구가 아닐 것이다. 썸과 연애의 공통적인 특징을 수용하는 요구라면, 썸 문화가 아닌 다른 종류의 사랑 문화를 향유하는 이들 역시 공감할 수 있는 요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마지막 요구는 한국 사회 청년에 한정되는 요구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는 동서고금 상존했던 ‘사랑하는 관계’를 향유하는 문화의 공통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지속적 상호 감정 확인과 이에 따른 감정적 충족감은 보상으로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구이므로, 썸 문화를 향유하는 청년 세대는 썸 문화라는 새로운 사랑 문화를 통해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론

본고에서 나는 신조어 “썸타다”의 의미를 논리적 추론과 면접법 조사를 활용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관계의 불확실성이 비교적 큰 상황에서,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상대방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며 상호 감정 확인 행위를 통해 감정적 충족감을 얻는다” $\subset$ “썸타다” $\subset$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관계의 불확실성이 비교적 큰 상황에서, 나에게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부터 연인 간의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며 상호 감정 확인 행위를 통해 감정적 충족감을 얻는다”

라는 신조어 “썸타다”의 의미적 범주에 도달할 수 있었다.

“썸타다”의 의미적 범주에는 “썸타다”를 “썸타다”이게 만드는 본질적 특징이 담겨있으므로, 나는 이 의미적 범주에서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추출했다.

1. 고백의 미수행에 의한 관계의 불확실성
2. 상대방이 내게 느끼는 이성적인 호감의 실재와 인식의 괴리
3.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감정 확인 행위와 이에 따른 감정적 충족감 제공

신조어는 표현하려는 욕구는 존재하나 그에 맞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생겨나 사용되므로, 신조어 “썸타다”의 본질적 특징은 “썸타다”라는 단어를 향유하는 청년 세대의 욕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썸”문화 유행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청년 세대의 욕구를 분석해 “썸”문화 유행의 배경을 고찰했다.

첫 번째 특징은 청년 세대의 ‘고백을 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대변한다. 이 욕구는 사회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사랑이 탈주술화를 겪었기 때문에 발현되었다. 고백은 스티븐스의 개념 ‘헌신’을 강화하는 행위로 기능하는데, 사랑이 탈주술화를 겪어 불안정해지고 숭고함을 잃은 현실에서는 사랑에 ‘헌신’을 다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욕구를 대변한다. 이 욕구는 사회가 사랑이 탈주술화를 겪고, 시장논리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 사랑마저 시장 논리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발현되었다. 시장화된 사랑은 ‘좋은 상대를 소비’하기 위해 진행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면 ‘소비’에 실패했을 때 개인적, 사회적으로 자존감에 큰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마지막 특징은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감정 행위와 그에 따른 감정적 충족감에 대한 욕구를 대변한다. 이 욕구는 다른 욕구들과는 달리 “썸”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랑 문화에서도 발견되는 욕구이다. “썸” 문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랑을 했을 때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추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청년 세대가 “썸” 문화를 향유하는 이유일 것이다.

현대화와 그에 따른 사랑의 탈주술화, 시장화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썸” 문화는 한국에만 존재하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들 수 있다. 먼저 가장 일찍 현대화가 이루어진 서양의 경우, 한국과 달리 연애와 썸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인 고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상하건데 고백이라는 의식은 보수적인 유교문화의 잔재로 인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거부감이 큰 동양 사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사회와 서양 사회의 연애문화는 단순히 비교하기가 힘들다.

또한, 한국은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늦게, 그리고 급속도로 현대화를 겪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서양은 이르게는 18세기, 늦게는 19세기에 현대화를 겪었지만,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와서야 급속도로 현대화를 겪기 시작했다. 서양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점진적으로 현대화가 이루어져 연애문화가 이에 맞춰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연애문화가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가 아주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이루어져 아예 “썸”이라는 새로운 연애문화가 등장한 것이다.

4. 참고문헌

- 강진영, 정태연. 「사랑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에서의 차이: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 6권 1호, 1-21쪽. 2001.
- 권연진. 「언어상대성 가설에 대한 재조명」. 『인문과학연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 김광해. 「어휘론」. 『국어학연감』. 국립국어연구원. 1993.
- 김현경. 「프로젝트로서의 연애와 여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여자 대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 박형신. 「감정자본주의와 사랑: 에바 일루즈의 짝찾기의 감정사회학」. 동양사회사상학회. 2014.
- 변혜정. 「이성에 관계에서의 자기 계발 연애와 성적 주체성의 변화」. 『생명연구』. 제17권 1호, 53-92쪽. 2010.
- 양동옥, 김경례. 「대학생들의 ‘썸 문화’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과 양가적 행위성」. 『젠더와 문화』. 제 10권 제 1호, 83-120쪽. 계명대학교 여성학 연구소. 2017.
- 원동훈. 「세계, 예술, 꿈의 탈주술화」. 『현상학과 현대철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 31집, 293-321쪽. 한국현상학회. 2006.
- 윤영준. 「대학생의 연애경험과 일상적 자아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 이은순. 「‘썸’ 현상, 그린라이트는 언제 켜지는가?」.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4-96 쪽. 한국방송학회. 2015.
- 이정규. 「썸을 탄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조어 “썸타다”의 적용조건 분석」. 『철학적분석』. 제 41호, 61-80쪽. 한국분석철학회. 2019.
- 전한열 외. 「Sternberg 사랑의 삼각이론으로 본 대학생의 연애경험」.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76-376쪽. 한국심리학회. 2016.
- Yang Mei. 「한·중 인물 지칭 신조어의 대조 연구 : 2012년~2015년 신조어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7.
- 뤽 페이, 클로드 카플리에. 『철학의 다섯 가지 대답』. 이세진 역. 더 퀘스트. 2015.
- 마이클 센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안기순 역. 와이즈베리. 2012.
- 올리히 벡, 엘리자베스 벡. 『사랑은 지독한 혼란』. 강수영 역. 새물결. 1999.
- 신문기사
- 광주일보 , 2014.8.19, “썸(some)에 관한 단상”.
- 노컷뉴스 , 2014.2.24,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 판지일보 , 2015.7.8, “우리의 썸: 그것을 떠들어보려는 이유”.
- 시청각 자료
- <지식체널e>, EBS-TV, 월 12시 40분, 2015.2.17, “그들이 썸만 타는 이유”



Ⅱ . 에세이 부문

[에세이 부문: 교무부총장상]

여행, 나에게서 엄마의 삶으로

백승주(행정학과)

스물 한 살의 여행, 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대부분은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을 떠올릴 것이다. 혹은 이제 막 청소년 티를 벗기 시작한 개인이 여러 차례 실수도 거듭하면서 혼자 만들어나가는 독립적인 여행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매번 모종의 이유로 친구와 계획하는 여행마다 모두 파기되는 기현상을 겪고 있었으며, 우리 부모님은 혼자 떠나는 여행을 허락해주지 않는 편이셨다. 서른이 된 우리 언니도 처음으로 혼자 떠나본 여행이 올해 부산으로 1박 2일을 다녀온 여행이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이대로 지나가는 여름을 보내주기에는 참 아쉬웠다. 태양 빛이 뜨겁게 작열한다고 그것을 집 안에서, 혹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원에서 피하고만 있다가 개강을 맞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스물 한 살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여행, 작지만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여행이었다. 엄마와 함께 하는 여행. 그동안 해왔던 가족여행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엄마만을 오롯이 생각하면서 일정을 채웠다는 점, 그리고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지갑을 비웠다는 점일까?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엄마 앞에서 영어나 스페인어 같은 것을 쓰면서 현지에서 대화하고 문제해결도 척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는 8월 말, 방학의 끝물에 춘천을 하루 다녀오기로 했다.

춘천은 서울에서 멀지 않았다. KTX로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다. 엄마가 그쪽으로 지나갈 때 철길이 참 예쁘다는 말을 지나가듯 하실 때 우리의 목적지는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날부터 춘천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인터넷으로도 열심히 찾아보고, 춘천에 오래 살았던 친구에게도 물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 맞춰 하나씩 추려 나갔다. 엄마는 액티비티를 좋아하니깐 꼭 넣고, 또 분위기 있는 식당을 좋아하니깐 아무리 맛집이라도 너무 시끄럽지 않고 예쁘고 천장이 높은 곳으로. 그리고 일정은 느슨하게. 끝으로 목록에 적은 것들을 지도에 구석구석 표시하면서 동선을 짰다.

어느덧 여행날이 되어 기차에 몸을 실었다. 다행히도 기상예보대로 날이 흐리지 않고 맑았다. 그리고 도착한 춘천에서 우리는 소양강 스카이워크에 갔다. 강화유리로 된 바닥이 흰히 발밑을 비춰서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은 곳이었다. 엄마는 날더러 겁도 많으면서 괜찮겠냐고 하셨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별로 괜찮지 않았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투명한 바닥을 통해 강 표면이 햇빛에 자글자글 빛나는 걸 보고 있자니 금방이라도 몸이 아래로 곤두박질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엄마가 그래도 가운데가 아닌 왼쪽과 오른쪽은 지지하는 기둥이 보여서 덜 무서우니 그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엄마는 가운데로 걷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가 스카이워크를 자유롭게 걷는 모습을 보았다. 하늘과 맞닿게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당당한 걸음은, 엄마의 삶이 되어 놀랍게도 내 심장에 다가와 부딪히고 있었다. 한 발짝, 멋진 패션 디자이너였던 엄마는 나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한 발짝, 그 건 엄마의 선택이었지만 엄마의 선택은 아니었다. 한 발짝, 아무리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때의 엄마는 그 틀 안에서 엄마가 원하는 만큼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한 발짝, 엄마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하늘에 떠 있는 듯한 투명한 유리 바닥에는 엄마의 그림자도 비춰지고 있었다.

나도 엄마를 따라서 걷기 시작했다. 가장자리를 걸으며 엄마를 쫓아가다가 유리 밑이 텅 빈 가운데로 발을 내딛었다. 엄마가 걸었던 바로 그 길이였다. 한 발짝, 엄마는 내가 의류학과에 진학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다. 한 발짝, 엄마는 내가 디자인을 하거나 글을 쓰기 이전에 우선 전문직을 하나 주직업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한 발짝, 나는 강박적으로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한 발짝, 내가 찾던 것의 실체는, 결국 엄마가 내 세상에 주고 싶었던 것과 다르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도착한 전망대에서 내가 지나온 길은, 내가 잡고 있는 난간은, 내가 달아있는 모든 것은 엄마의 마음이었다.

서울로 다시 떠나기 전에 마지막 행선지인 카페에 들렀다. 의암호가 한 눈에 보이는 카페였다. 엄마는 나무가 비치는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엄마의 수박주스 위에 장식으로 꽂혀 나왔던 종이 우산을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런 엄마를 보고 있었다. 흔치 않은 정적이었다. 엄마와 함께 있을 때면 항상 내 이야기 혹은 엄마의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 날은 입 밖으로 꺼내는 이야기가 별로 필요없었다. 유리컵 바닥이 보일 때쯤 올렸던 종파로 충분했다. 충분하고도 남아서 가게 안에 호수처럼 흘러넘쳤다.

— 여기 괜찮다. 아까 모터보트도 재밌었어. 오늘 재미있었어.

좋은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십 대의 치기로 이곳저곳을 헤매며 눈에 멋진 풍경을 담고, 가끔은 그 풍경 속의 피사체가 되어 SNS에 올릴 만한 끝내주는 ‘인생샷’을 얻는 경험. 혹은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나는 어떤 종류의 여행이 가장 필요한 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싶지는 않다. 언제나 그 경험은 그 때에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여행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이고, 각기 다른 의미로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행 중에서도 부모님을 위한 여행을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날 그 여행은, 항상 날 위했던 엄마를 생각한 하루였고, 무엇보다도 나에게서 엄마의 삶으로 가는 여행이었다.

[에세이 부문: 교무처장상]

다시 돌아온다는 것

김보민(미디어학부)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 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¹⁾ 어느 날 문득 내가 한 생애를 허둥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에 박힌 별도 없이 나는 그저 허둥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팠다. 그만 아프고 싶었고, 그만 허둥거리고 싶었고,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다. 수능이 네 달 정도 남았던 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그 날 나는 지친 것과 힘든 것의 차이를 알았다. 힘든 것은 상황이었지만 지친 것은 상태였다. 나는 지쳤고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읽어야 했다. 시험지 한 장을 가뿐히 넘어가는 비문학 지문을 읽어야 했다. 이거 한 지문만, 이거 한 장만, 이거 한 문제라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읽을 수 없었다.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필름이 없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무언가 남기려 애쓰는 카메라가 된 것 같았다.

학교를 나와 서점으로 달려가 가장 짧은 글을 찾았다. 내가 아무런 글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허둥거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그 서점에서 나는 이 시를 읽었다. 가장 짧은 글이었다.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아 여러 번 읽었다. 사랑하는 사람아를 읽고 너는 내 가슴에를 읽다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아를 읽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인지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서점에서 나는 이 사실을 몰랐으므로 책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비행기 표를 끊었다. 캐리어에 짐을 채웠다. 책장에 꽂혀 있던 책과, 바닥에 놓여 있던 시집과, 학교에는 입고 갈 수 없었던 옷들을 차곡차곡 넣었다. 떠나고 싶었으므로 떠나야 했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멀리 가야 했다. 기준은 하나였다. 혼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제주도였다.

제주도에 도착하자 해가 저물었다. 저무는 해를 보다 바다로 갔다. 여행이라기보단 도피에 가까웠고, 이 도피에서 정해진 건 바다가 보이는 방을 예약한 것밖엔 없었다. 어두운 밤 파도가 돌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울었다.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나는 내 기대치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아무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에게 완벽할 것을 요구했다. *이걸 틀리면 어떡해.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돼. 그 날 내가 나를 잡아먹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내가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 사실을 알자 울음이 터졌고 멈출 수 없었다. 그 날 텔레비전을 보면서 늦은 저녁을 먹다가 울컥 울음이 터졌다 멈출 수 없어 그냥 두었다 그 밤 다시 견디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²⁾ 그 날, 다시

1) 문정희, 『사랑의 기쁨』, 시월, 2010

견디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캐리어를 열어 시집을 꺼냈다. 밤새 그 시집을 읽고 마음에 드는 시를 아무 종이에나 옮겨 적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시가 쏟아졌다. 마지막 시를 쓰고 나서 나에게 편지를 썼다. 울음이 터져 종이가 엉망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를 받아들이자.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지치기 전에 힘들다고 말하자. 한 생애를 허둥거리지 말자...* 이젠 지나간 날에 대한 반성이기도, 아직 오지 않은 날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다. *2018년 7월 8일 제주도에서.* 받는 이와 보내는 이를 쓰는 것도 잊지 않았다.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도피를 끝냈다. 비행기에서는 긴 글을 읽었고, 다행히도 잘 읽혔다. 그 날 이후로 글이 다시 읽히지 않는 날은 없었다. 지치기 전에 쉬었고 읽히지 않기 전에 읽지 않았다. 유난히 더웠던 그해의 여름이 지나 수능을 봤고 대학에 붙었다. 대학에 붙고 담담하게 비행기 표를 다시 끊었다. 여름에 갔던 방을 예약했다. 여름에 가져갔던 시집을 들고, 그 여름에 갔던 바다로 갔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그 여름은 지났고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겨울이 왔다. 그 여름에 내가 울었기 때문이었고, 지쳤던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여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에 가까운 것 같다. 떠나는 것이 도피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여행이다. 여름의 나는 도피를 했고 겨울의 나는 여행을 했다. 흐트러졌던 나를 이끌고 어디론가 떠나 잔뜩 흐트러진 나를 달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여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도피보다, 여행을 하고 싶다.

2) 곽효환, 『슬픔의 뼈대』, 문학과 지성사, 2014

[에세이 부문: 교양교육원장상]

소라게 껍데기 찾듯

박찬영(경영학과)

무료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기껏해야 삼 일까지였다. 내 모든 여행의 종점은 영등포 구청 근방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가 몇 채 서있는 동네였는데, 바로 앞 청과물 시장을 포함하여 주변을 에워싼 각종 상가들이 워낙 오래전에 지어져 낡기도 낡았거니와 높이도 낮았기에 집에 올라 거실에 앉으면 창문을 통해 보이는 탁 트인 하늘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때때로 날씨가 좋으면 거실에서는 인왕산과 남산타워까지 서울의 서쪽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고, 내 방 창문을 통해서는 핑크빛 저녁노을에 섬세한 구름 조각들이 어우러져 무의식적인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적당히 늦은 시간 일어나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킨 후 돌아와 우쿨렐레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펼쳐지는 이 풍경은, 말 그대로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그림들이나 뿔어낼 만한 아우라를 아낌없이 발산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곳이 내 집이고, 이 사실이 앞으로 수년간 변함없을 것이라는 믿음은 여느 로맨스 소설 속 예측 불가능한 여주인공이 그러듯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으로 나를 불안하게 했다. 어쩌면 여행과 유흥이 체크카드 한 장과 남아도는 시간만으로 해결될 만큼 간편해진 세상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에 쉽게 질려버리는 게 아닐까. 또 변치 않기 때문에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도 나는 좀처럼 나 자신이 지박령 마냥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내게 역마살이 낀 것 같다 하셨고, 나는 다시 여행을 떠났다.

북경수도공항에서 왕징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줄 알았던, 보다 추상적인 어떤 감정을 느꼈다. 몸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차린 것일까? 50분간 지하철을 타고, 2시간 동안 비행기에 올라 있었음에도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전학’이란 얼마나 불쾌하고 어색한 일일지 매번 상상하곤 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내 삶에서 수학 점수를 뺀 모든 것을 사랑했다. 유흥업소라고는 노래방 한 개가 전부이며 깔끔하게 계획되어 눈 닿는 곳마다 푸르른 분당의 그 동네에서 나는 그때까지 기억하는 한 인생의 거의 전부를 보냈다. 아침이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높게 자란 나뭇잎들을 스쳐 지나가며 기분 좋은 소리를 들려주었고, 점심이면 해가 정수리 위를 곧바로 비추어 땀이 나다가도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은 저녁에는 달과 별, 그리고 아주 가끔씩 은하수가 눈을 떼지 못할 만큼 아름답게 밤하늘을 빛내었다.

아침마다 몸 구석구석의 털을 말리느라 10분 정도 늦는 친구를 기다리다 보면 집 앞 정류장을 막 지나치고 있는 학교행 마을버스를 마주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그와 나는 버스를

잡고 있는 사거리의 빨간 불이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기만을 바라며 혈떡이는 숨을 참고 어서 다음 정류장으로 뛰어갔다. 녹색 페인팅이 거의 벗겨진 나무 문을 밀고 반으로 들어가 중학생의 혈기를 앞다퉈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친구들과 활기찬 아침 인사를 나누고, 내가 짝사랑하던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설레는 가슴을 잠재우려 애썼다. 수학 시험은 역시 끔찍했지만, 점심시간 종이 치자마자 합주실로 뛰어가 밴드부 친구들과 버스커버스커를 연주하는 순간만큼은 나의 낭만이 이곳에 살아 숨 쉴 수 있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중국으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나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아련함에 빠져들어 한동안 헤어 나오지 못했다. 그건 분명 정든 ‘집’을 떠나야만 한다는 슬픔이었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집이라고 절실히 느끼는 북경의 여름은 기억 속 그대로 건조하고, 또 타는 듯이 뜨거웠다. 태양이 몇 배는 가까이 다가온 것만 같았다. 그래도 그늘 속은 에어컨이라도 튼 듯 서늘했기에, 택시에서 내린 후 모교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능한 한 가로수 밑을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다.

도심의 땅값이 너무 오른 나머지 부지를 확보할 수 없었던 모양인 나의 모교는 재단이 정부와 맺은 계약을 통해 공립학교 건물에 세 들어 운영하고 있다. 덕에 매일 아침 9시면 건물 전체에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며 창문 너머로 (우리로 치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중국 학생들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학교는 아직 방학 중이어서 그런 구경을 다시 하진 못했다. 선생님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동안 잠시 기억에 잠겨 복도를 걸었다. 처음 전학 온 날처럼 두리번거렸으나 그 어떤 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좁디좁은 도서관과 실험 장갑 냄새로 가득한 실험실, 각종 중국 간식으로 채워진 자판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의외로 소소한 것들이었다.

첫날 저녁은 아직까지도 가끔 연락하는 중국인 친구 둘을 불러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 이래 가장 그리워하던 교자 집에서 해결했다. 호기롭게 다섯 접시를 주문한 후 고추기름과 간장과 식초를 적당량 덜어 자리에 앉자 우리는 마치 방학이 끝나고 다시 만난 친구들처럼 근황과 과거 이야기를 술술 털어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보아도 웃음이 새어 나오는 그런 친구가 흔치 않다는 사실을 대학에 와서야 깨달았던가. 떠드는 동안에도 아쉬움은 빈 물병 마냥 웃음 위로 자꾸만 떠올랐다.

여행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모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출발도 늦어졌고, 하필 중국인들의 휴가 시즌과 겹쳐버려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됐을 자금성과 이화원의 입장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 얄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선이 꼬여 일 평균 2만 5000보를 걷게 됐으니 나는 어디로 보아도 관광객보다는 길 잃은 행상인 같았다. 그럼에도 익숙하지 않은 곳을 떠돌아다니다 보니 여행을 왔다는 것이 점차 실감 났고, 대안으로 찾은 원명원과 천단은 그간 달릴 줄만 알았지 잠시 멈춰 숨 한번 고르지 못했던 나에게 훌륭한 선택이었다. 라이브 카페의 음악 소리가 호수 위로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스카하이의 밤거리에서 3박 4일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고, 그 무렵 북경은 더 이상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었다. 나의 집은 다시 먼 곳에 있었다.

영등포구청역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가던 중 문득 궁금해졌다. 무엇이 집을 집답게 하는 걸까? 정든 풍경? 근처에 사는 마음 맞는 친구들? 울고 웃던 기억? 아니면 헤어 나



올 수 없는 폭신평신했 침대인가? 좀처럼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변에는 얼룩무늬 길고양이 한 마리가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나는 조금은 익숙해진 서울의 삭막함을 있는 힘껏 들이마신 후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에세이 부문: 교양교육원장상]

파도 위에 떠 있다는 것

배석준(정치외교학과)

매년 겨울, 우리 가족은 통영으로 여행을 간다. 처음에는 싼 값에 잘 수 있는 숙소가 있어 선택한 여행지였다. 아버지 직장의 연수원 시설이 통영에 있고, 직원들은 거의 공짜로 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과 평화로움은 우리 가족을 그곳으로 자꾸만 이끌었다. 덕분에 이제는 연례행사처럼 통영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만의 이유로 매년 통영 여행을 기다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의 풍경 때문이었다. 2017년, 처음 통영에 갔던 날, 나는 숙소 옆으로 나있는 작은 옆길을 따라 혼자 산책을 했다. 여행지에 도착하면 혼자 산책을 하는 것이 나만의 버릇이었기 때문이다. 마을을 지나치고 쌓여있는 굴, 가리비 껍데기를 지나치자 탁 트인 보리밭과 함께 바닷가가 보였다. 그리고 가운데 작은 섬 하나가 떠있었다. 별로 크지는 않아도 섬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 자갈밭과 둥그런 언덕, 파도에 쓸려 남은 절벽들. 위에는 소나무 몇 그루와 이름 모를 풀들이 초록색 이불처럼 섬 전체를 포근하게 덮고 있었다. 나는 끼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치 시간이 나만 비껴가는 것처럼 사방은 정적에 사로잡히고 바람에 보리들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지금까지 섬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외로움과 권태로움, 평화와 초연함은 내 안의 무언가와 공명했다. 그렇게 30분 정도 흐른 후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했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사실 스무 살이 되기 전까지, 나는 그 기분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간 동안 언제나 목표만을 바라보며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그 섬과 풍경이 잠시나마 나에게 쉴 틈을 줬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의 파도 속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 이 시간이 되자, 나는 오히려 내가 지금 그 섬을 더욱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는 한동안 적응을 하지 못했다. 언제나 뻑뻑한 시간의 틀 속에 나를 맞춰갔는데 갑자기 틀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삶의 기준을 찾지 못했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여유를 즐기지도 못했다. 마치 그날 본 섬처럼, 나는 공허한 바다 속에 홀로 던져진 작은 섬이 된 기분이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허비한 후에야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사실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날 내 눈에는 작은 섬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다음 해 찾아갔을 때는 그 뒤에도 수많은 섬들이 있었다. 그들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나의 삶을 되찾은 지금도, 나는 통영의 섬을 생각한다. 아마 올해도 통영으로 똑같은 가족 여행을 갈 것이고 나는 똑같은 길을 지나 똑같이 섬을 마주할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한결같



겠지만, 이번에는 과연 그 풍경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이미 많이 변해버렸고 여전히 초연할 그 섬을 보며 당당해질지, 부끄러워질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그것은 그 순간이 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다.

[에세이 부문: 교양교육원장상]

천사의 무릎

임성준(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천사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나는 천사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다짜고짜 이 얘기를 하면 종교와 신앙에 심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나는 종교를 전혀 믿질 않으며 내세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다. 물론 재수할 때 잠들기 전 온갖 신에게 구걸해본 적은 있지만 막상 내가 경험한 종교체험이라고는 친구 따라 교회에서 측구한 것이 끝이다. 때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다. 키가 작고 왜소한 것에 콤플렉스가 절정으로 다다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나랑 눈높이가 비슷했던 녀석들이 내 머리 위로 한 뼘, 두 뼘 자라나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졌던 시기이다. 진짜 천사가 있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려 우리 집에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정말로 바로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냉큼 전화를 받고 누군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토해내듯 이야기했다.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난 여드름을 다 없애주시고 너무 어렵다면 코에 난 여드름이라도 몽땅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한바탕 쏟아냈다. 하지만 그 천사는 “으이구,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면 되지 이 똥강아지야.”하고 말했다.

똥강아지.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담임선생님께서 알림장에 우리 집 가훈을 적어오라고 한 적이 있다. “할미, 가훈이 뭐야?”, “가훈은 집에서 하는 말이지.” 그 당시 집에서 나에게 하는 말이라면 똥강아지니까 가훈으로 똥강아지를 적어갔다. 이걸 본 할머니는 뒤집어질 듯 웃으시며 나를 쓰다듬어 주셨다. 할머니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나와 누나를 돌봐주려고 역곡에서 삼산동으로 매일 오셨었다. 우리 할머니는 녹내장 때문에 늘 넣으셨던 안약 대신 나를 넣어도 아파하지 않음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주셨다. 어렸을 때 나는 손가락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께서 유치원에 갔다 온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밥을 먹여주셨기 때문이다. “할미, 화장실이 영어로 뭐야?”, “할미, 하늘 천 다음에 뭐게?” 나는 오물오물 음식을 씹으며 매일 내가 배웠던 것들을 할머니께 물었다. 할머니는 진즉에 어린 손주가 그날 배운 것을 아는 체하고 싶은 것임을 아셨고 자신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보고 늘 말해보라고 했다. 나와 할머니는 이 시간을 무척 좋아했었다. 언젠가 낮잠을 자고 깼더니 저녁을 먹여줘야 할 할머니가 먼저 집을 떠나셨던 적이 있다. 나는 울면서 전화로 “할미, 밥 맥여 주고 가야지.”하고 서글프게 울었더니 할머니가 추위를 무릅쓰고 돌아와 다시 나를 무릎에 앉혀 밥을 먹여주고 가셨다.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눈물 젖은 밥을 먹는다는데,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 젖은 밥을 먹었다.

하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할머니 무릎에 올라가는 걸 사내답지 못하다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할머니와 다툼이 잦아졌는데 보통 컴퓨터 게임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바보상자에 잡아먹혀 나사가 빠질까 봐 하루에 한 시간만 게임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어린 나에게는 한 시간이 너무 짧았고 투덜투덜 할머니한테 짜증을 많이 부렸다. 학교에서 집에 오자마자 컴퓨

터를 켜고, 할당량을 다 채우고 나면 옆 아파트에 사는 민규네로 핵 가버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 그 친구가 게임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대리만족을 했던 것이다. 어느 날 할머니는 자기에게 컴퓨터를 알려주면 게임을 더 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웬 떡이니 하고 그때마다 대충 “여기를 누르면 메일을 보낼 수 있고 할머니가 할 말 쓰면 돼.” 통명스럽게 이야기했고, 타자가 느린 할머니를 다그치며 답답해하곤 했다. 할머니는 늘 조잘조잘 떠들고 애교부리던 동강아지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옆집으로 가버린다고 생각했고, 관심도 없던 컴퓨터를 배우겠다며 손주에게 용기내서 물었던 것이다. 배움이 짧았던 걸 부끄러워하셨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 가르침을 요청한 것은 큰 용기였을 것이다.

그때는 나도 배움과 거리가 멀었다. 수학 단원평가가 있는 날에는 나머지 수업을 해야 하는 학생을 뽑았었고, 당연히 늘 내가 뽑혔었다. 중학교 때 이사를 오면서 180도 이미지가 변했는데, 전학을 처음 왔을 때 쉬는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기다려질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운 좋게도 첫 시험에 전교 7등을 했다. 성적표를 보여 주면서 할머니한테 500평짜리 집도 지어 주고 경호원도 붙여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다. 할머니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니 옛 선조들이 장원급제하려고 목숨을 건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때부터 할머니는 ‘몸 건강해라, 착하게 살아라.’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도 추가되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늘어났다.

할머니의 주름도 하나하나 늘어가고 나는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됐다. 서울대 간다던 놈이 대학에 다 떨어졌다는 소식이 할머니 귀에도 들어갔다. 집으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우리 손주, 넌 괜찮은 놈인 거 알지?”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하니 눈물이 안날 수가 있겠는가. 찌질하게 대학 떨어진 거로 울고 싶지 않았는데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애기처럼 엉엉 구슬피 울며 잠에 들었었다.

꿈처럼 재수에 성공해 우리 학교에 입학했고 요즘도 할머니랑 자주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 각박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여러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오래된 앨범의 먼지를 털 듯 천천히 눈을 감고 삼산동의 추억을 반추해본다. 경제학, 법학 등 차가운 것을 다루면서도 시, 음악, 꽃에 한눈을 파는 이유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덕이다. 나에게 할머니는 입신양명보다 몸 건강히 떼떽하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삶의 철학을 가르쳐준 고마운 스승님이다. 최근 이런 스승님께서 삼산동에서 내가 그랬듯 종종 문제를 내신다. 심장이 덜컹하는 문제인데, 바로 노인정에서 내는 치매예방 퀴즈이다. 간단한 퀴즈임에도 답을 못 내서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다. “친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고 나는 외할머니니까 가짜 할머니야.” 어렸을 땐 이 말을 들으면 섭섭한 마음에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자동으로 질질 나왔었다. 요즘은 할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어찌나 걱정이 들 때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 영웅이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잊힌 영웅은 영웅으로 남을 수 없다. 비록 할머니가 나를 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할머니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 나의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러했듯 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스한 영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무릎을 내주는 따스한 영웅.